
심시순화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054) 655-1011,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3월 24일(음력2월 4일) 수요일 (주간) 제466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조계종 개혁 10년 '미지근'

불교 자주화 긍정 52%, 청정승단 구현엔 16%

시급한 과제, 출가정신 회복 · 적극적 신행 등

'3 · 29개혁' 10주년 불교계 지도자 50명 본지 전화 설문 조사

"일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불만족스럽다."

불교계 지도자들은 조계종의 개혁 10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또 승가의 의식개혁과 청정승단 구현 등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1994년 3월,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반대로 촉발된 조계종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종단 개혁. 꼭 10년이 지난 2004년 3월, 조계종이 이뤄낸 개혁 성과에 대해 불교계 지도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조계종 개혁 10년을 맞아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승 · 재가 각 25명씩 50명을 대상으로 한 '개혁 10년 평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설문은 3월15일부터 19일까지 면접 및 전화 인터뷰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94년 이후 조계종이 내세운 종단 개혁 5대 실천 이념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불교 자주화'와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법구현' '종단 운영 민주화' '청정 승단 구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항목별로 보면 '불교 자주화'와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52%와 68%였다. 그러나 나머지 세 항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정법구현' 36%, '종단운영 민주화' 44%, '청정승단 구현' 16%로 나타났다.

특히, '청정승단 구현'의 경우 '그저 그렇다' 50%, '부정적이다' 34%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그저 그렇다'를 선택해 실질적인 부정적 응답은 84%인 셈이다. 이같은 응답 형태는 다른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승가와 재가별 응답을 비교하면 '종단운영 민주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재가보다 높았다. 승가가 '종단운영 민주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높은 것은 인사문제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불만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응답자의 62%는 '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제도개혁 보다는 의식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출가자가 안고 있는 시급한 개혁과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출가정신 회복'(2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청정승단구현(18%)-수행풍토 확립(16%)-재정투명화(10%)-승려자질향상(8%)-승가교육체계확립(8%)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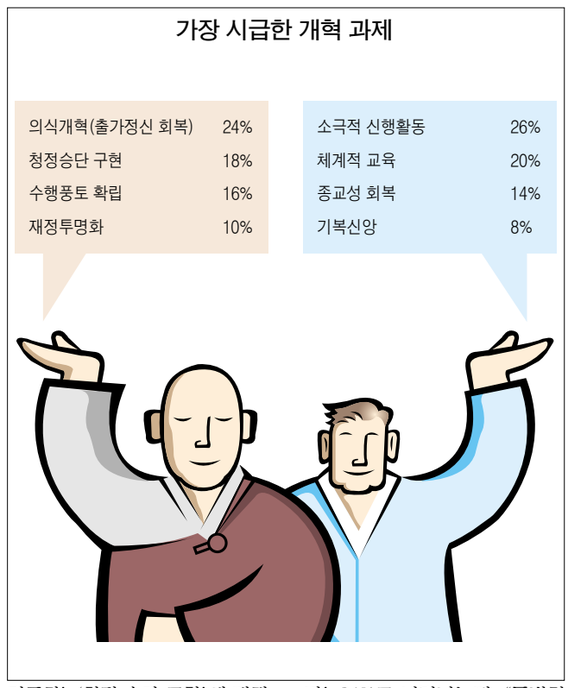
이외에도 문중 · 파벌 의식, 권위주의, 사부대중 공동체의식, 승려생활보장제도 등을 개혁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재가자가 안고 있는 시급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신행활동'(2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체계적 교육 미흡(20%)-참불자로의 자세 부족(14%)-기복신행(8%) 등도 개혁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활동 부족, 수행 부족, 신도회 침체, 불자로서의 자부심 부족 등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개혁이 가장 시급한 제도'로는 '선거제도'(2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부대중 참여기구 마련'(18%) '사찰운영제도'(12%)를 포함해 승가 및 신도 교육체계, 비구니 차별, 종단관리시스템, 주지인사고과제도 등이 꼽혔다.

관련기사 4면

한명우 · 남동우 기자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투표에 앞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에게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간곡한 당부의 말을 했다. 원로 스님들이 종회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조계종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사면 개헌' 또 불발

조계종 종회, 찬성 53 · 반대 21로 부결

내달 1일 임시종회

조계종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또 부결됐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제163회 임시종회에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속개된 제162회 임시종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찬성 53명, 반대 21명으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가결에 1표가 모자란 것이다.

이날 투표 전에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과 수석부의장 종산 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정 스님의 교시도 있었고 원로회의 유시도 있었다. 특히 종정 스님이 전화를 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불기 2506(19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종헌 개정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면 · 경감 조치에 한해 사면 · 경감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사면 · 경감일로부터 10년간 종헌 · 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 취임을 금지하고,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다.

이날 종회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으로 '기초선원'을 '기본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종헌개정안을 찬성 68, 반대 2명으로 가결시키고 폐회했다.

관련기사 2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 현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현대불교신문은
세계 불교 정보의 '총본산' 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신청
- 전화요금 합산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납부 가능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1구좌 1천원 법보시 후원 동참하세요
- 월 구독료 : 5천원
- 구독 · 법보시 동참 문의
02)737-0090, 02)737-8881



봉축 디자인 자료집 · CD 나와

바리공주 캐릭터 등 추가

200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디자인 자료집과 연등축제 합창곡 · 반주곡 CD가 나왔다.

자료집은 아기부처, 천진동자, 팔상도, 바리공주(좌우 사진), 십대제자, 동자승, 관음 42수, 십육나한, 사천왕 및 심우도, 팔길상무늬 및 각종문양 등으로 구성됐다. 합창곡 · 반주곡 CD는 부처님 오신날,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꽃바람 부는 사월초파일 등으로 꾸며졌다. (02)2011-1744~7

남동우 기자



선원장 초청 대법회
영진 스님
'모든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3월 28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12면



마고한의원 · UNIVERSITY OF CONTINENTAL 평생교육원 한국분원 · 사회복지법인 한국경로복지재단 · 선불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Tel 02)587-0001 동양의학박사 성법 합장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 전문병원으로 거듭납니다.
- 큰 스님들을 위해 아늑한 별도의 치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큰 스님들을 시봉하신 불자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무료로 치료하여 드립니다.



지하법당 | 약장(접수대) | 휴게실 | 스님 전용 치료실 | 일반 치료실

■ 크리닉 안내 척추 전문 크리닉 (2004년형 최신의료기) / 관절염 전문 크리닉 Tractizer 척추, 관절 물리 치료실 Nerve Stimurator(T.E.N.S) 종합중풍 크리닉 Infra Red / 통증 크리닉 Ultra Sonic Therapy / 척추 특수 경락치료 LAPEX - 2000

콘티넨탈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체의학 2004년 수강생 모집
UNIVERSITY OF CONTINENTAL 평생교육원 한국분원
본 평생교육원은 콘티넨탈대학교 의과대학 부설로써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치료와 예방의학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 가실 분 환영
- 모집인원 : 25명 - 교육기간 : 15주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6시
- 모집과목 : 대체의학 - 수료 후 콘티넨탈 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 수여

공부하는 학생들만 먹는 마고환
마고환은 세계적 석학들처럼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두뇌에 좋은 한약입니다. 마고환이야말로 잠자고 있는 80%의 뇌를 130%의 뇌로 가동시키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고환은 뇌 신경세포에 좋은 성분만을 공급하는 한약입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은 밤낮으로 공부하느라 피로가 늘 겹치고,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몸 전체의 신진대사기능과 뇌신경세포까지 악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고환은 정신의 안정과 체력을 돕는 작용으로 지구력을 증가시켜 수험생의 대뇌에 천재적 기억력, 암기력, 논리력, 수리력 등으로 뇌를 감미롭게 발달시키는 한약입니다.



해외포교 '말 문' 먼저 열어야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전법포교를 위해 제자들을 외지로 파견하면서 현지의 사정에 맞추어 설법하라고 당부하셨음은 오늘의 포교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받들어야할 교훈이다. 부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수기설법(隨機說法, 대상에 맞추어 설법함)'은 설법의 내용은 물론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명제이다.

설법 도구인 언어의 중요성은 부처님 당시에도 부각되었으니, 포교의 대상 즉 청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말하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종족과 지방에 따라 100여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불제자들은 포교대상자의 언어를 구사하였고, 그러한 노력은 시대에 따라 인도 밖으로도 계속되었다. 남방과 북방으로 불교가 전파될 때 지역과 민족문화에 따라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경전이 번역·주석되어왔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현지인·교포2세가 주 대상
의사소통·문화공감대 필수

근래에 우리도 해외포교를 시도해왔고, 이미 백여 개의 한국 사찰이 여러 나라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 실상을 보면, 극소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불교를 배우고 익힌 후에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머물며 그들이 학습한 것을 중심으로 포교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국교포가 모여 사는 곳에 인연 있는 한국 스님들이 임의로 찾아가 나름대로 절을 만들고 한국어로 설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까닭에 해외사찰의 대다수가 미국에 몰려 있고, 한국교포가 적지 않게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는 한국 사찰이 없는 곳도 많다. 기존 한국 사찰의 포교 실태를 보더라도 교포위주의 한국어 설법이 대부분이며, 현지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교포 2세나 외국인들에 대한 포교는 미미하다. 이는 포교 주체인 스님이나 재가 포교사들의 자질과 언어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현지인들을 제대로 교화시킬 수 없으며, 결국 한국불교의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언어장애를 극복하지 않고 포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제 종단 차원에서 해외포교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이다. 불교 소양과 언어 능력을 갖춘 국제포교사를 양성하는 제도적 노력이 절실하다. 기존 포교사에 대한 연수교육도 시급하다.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다른 나라 포교사의 국제포교 준비와 기독교 등 다른 종교의 선교활동도 참고할 만하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불어, 독어, 에스파냐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 교육을 준비하여야 하며, 종단 자체적 시설이 어려우면 외국어 대학을 포함하여 기존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 **진월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종회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 부결-과정·원인과 전망

원로들 간곡한 당부…1표 모자라 부결… '다음' 기대

세차례 중진모임서 공감대 형성
"만장일치"에 "종헌상 투표"맞서

3월 18일 오후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과 부의장 종산·원명 스님이 종회장에 입장했다. 조계종 종회 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도원 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정 스님의 교시도 있었고 원로회의 유시도 있었다. 특히 종정스님이 전화를 해 개정안 통과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종산스님도 "어느 단체든 위계질서가 중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안과 종헌 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된다는 안이 맞서 몇 차례 휴회를 거듭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닥을 잡았고 찬성 53명, 반대 21명으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은 부결됐다. 가결에 1표가 모자랐던 것이다.

왜 부결됐나?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처리를 위해 종회 중진 및 계파별 스님들이 8일, 10일, 13일 등 세 차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사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파별 요구를 반영한 후 개정안 문안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결되었을까?

첫째, 반대표를 던진 스님들 중 표면적으로는 사면에 찬성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스님들이 있다는 분석이다. 종단사태 당시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종헌 제128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헌을 개정한다는 것이 '과연 법률과 율장에 맞는 것인가'란 거부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면 당사자들이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지 의문을 품고 있는 스님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집행부를 비롯, 여러 스님들이 공을 들였지만 그래도 준비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전망

2003년 4월에 열린 제158회 임시종회에서도 투표결과 찬성 41명, 반대 30명, 무효 1명으로 사면이 불발됐다. 그 후 1년 정도 지난 2004년 3월 제162회 임시종회에선 찬성 53명, 반대 21명으로 나왔다. 산술적으로는 찬성이 12명 증가한 것이다.

4월 1일부터 열리는 제163회 임시종회에 멸빈자 사면 개정안이 재상정됐다. 여기에선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162회 종회에 참석하지 않은 스님 중 한 명만 더 참석해 찬성에 표를 던지면 되기 때문이다. 또 162회 종회에서 사면에 반대했던 스님들의 체면도 어느 정도 세워졌고,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 종회의원 스님은 "단순히 산술적 계산만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사면방식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장일치'안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26기 행자교육원이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3월 19일 회향했다.

조계종 예비스님 134명 탄생

19일 송광사서 수계식

조계종 예비스님 134명이 새로 탄생했다.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3월 19일 순천 송광사 사자루에서 보성(송광사 방장)스님을 수계사로 사미(니) 수계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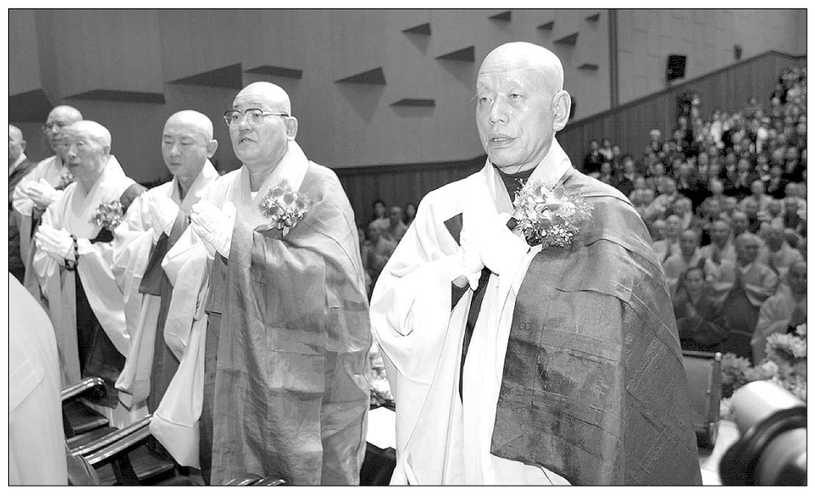
이날 계를 수지한 사미(니)는 조계종 제26기 행자교육원을 수료하고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남행자 69명, 여행자 67명 등 모두 134명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수계식에 앞서 대웅전에서 행자교육원 회향식을 거행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출가사문의 길은 결코 편하고 쉽지 않다"며 "물러섬 없는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어 방황하는 인류를 구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의 초발심을 잊지 말고 길고긴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6기 행자교육원에는 남행자 78명 여행자 69명 등 총 147명이 입재했으나 13명의 행자가 탈락했다.

순천=이준엽 기자



현해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

학교법인 동국학원 제21대 이사장 현해 스님(맨 오른쪽)의 취임식이 3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종회의장 지하 스님 등 사부대중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현해 스님은 "대학을 비롯한 산하 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교병원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확실히 어려웠다"

4급 승가고시 합격률 81%

조계종 스님 되기가 확실히 어려워졌다. 3월 12일 치러진 조계종 제4급 승가고시에 425명(사미 246명, 식차마나니 179명)이 응시, 344명(사미 192명, 식차마나니 15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0.9%.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4급 승가고시 평균 합격률 95.5%에 비하면 15%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주관식 비율 증가 등 문제 난이도가 높았고 문항 수도 50문항에서 100문항도 늘었다.

합격자들은 4월 8~14일 통도사에서 열리는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비구(니)계를 받아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된다.

권형진 기자

상표등록

미수다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저압전력 사용량별 요금표

사용량(kWh)	요금(원)	사용량(kWh)	요금(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4,720
110	8,590	320	47,440
120	9,890	330	50,150
130	11,190	340	52,870
140	12,500	350	55,580
150	13,800	360	58,300
160	15,090	370	61,020
170	16,390	380	63,730
180	17,690	390	66,450
190	19,000	400	69,710
200	20,300	500	112,430
210	22,850	600	188,460
220	24,730	700	258,510
230	26,610	800	328,580
240	28,500	900	398,640
250	30,370	1000	468,690
		1250	

전자전구 사용 전력
1/25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전화 031-791-8871 792-8867~8

하와이 무량사 싯달타大 설립

올 9월 개교…불교·동양의학과 등

미국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가 4년제 정규대학을 설립한다.

올 9월 개교하는 하와이 싯달타대학은 무량사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 지난해 초 미국서부사학연합회 실사를 거쳐 4년제 정규대학과 2년제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

무량사 부설 한인문화원 건물에 설립되는 하와이 싯달타대학은 올해 불교학과와 불교문화교양학과를 개설해 미국 현지인 학생을 위주로 선발한 뒤 한국불교 포교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학원 과정과 학부과정에 동양의학과(한의학과)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대학원에는 한국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선학과도 개설해 4안거를 성만할 경우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방침이다.


하와이 싯달타대학이 들어설 무량사 한인문화원 전경.

싯달타대학은 또 미국에서 동양학부문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하와이주립대학과 학점교환 등의 교류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올 여름부터는 현대불교신문사와 어학연수 프로그램(디렉터 김민선, 하와이대학 스피치 디파트먼트 커뮤니케이션 교수)도 개설해 한국 불자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20박 21일 단기 어학연수 겸 문화캠프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02) 722-4162

하와이 싯달타대학이 들어설 무량사 한인문화원은 건평 3천5백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한국전통사찰 양식으로 건립됐다. 문화원 건물에는 10여개의 강의실과 다실 등 전통문화센터, 강당, 선방, 법당, 세미나장, 기숙사, 식당이 갖춰져 있다.

주지 도현 스님은 "미국 전역에 한국불교를 포교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학을 설립하게 됐다"며 "다도 등 현지인들을 위한 강좌도 다양하게 개설해 한국불교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정기 바자회 성황 조계종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3월 19~21일 안양 본원에서 연등축제 및 불우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식품, 의류, 화분 등 30여종의 생활용품들이 전시 판매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은경 기자

파키스탄 탁실라 사원서 유적 발굴

동국대 문명대 교수팀 불상 등 다수

무불상(無佛像) 시대 이후 불상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간다라 지역에서 한국 발굴팀에 의해 불교유물이 발굴됐다.

동국대 문명대 교수팀(한국미술사연구소 부설 한국불교미술사학회)은 지난 2월 파키스탄 탁실라 조울리안(Joulian) Ⅱ 사원지에서 불두(佛頭) 1점, 불신(佛身) 4점, 얼굴모양 토기식 탈 파편 1점 등 유물을 발굴했다.

이번에 출토된 불두는 길이 19cm, 폭 12cm 크기로 갸름한 얼굴에 신비로운 눈, 오똑한 코 등 전형적인 그리스계 미인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불두는 굽타 시대 이전 유물로 삼국시대 불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 문 교수의 설명이다.

문 교수는 이번 발굴조사의 최대 성과로 불두 발굴을 들며 "조울리안 Ⅰ 사지에서 출토된 불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불두도 삼국시대 초기 불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간다라 문화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얼굴모양 토기식 탈은 사선이 그어진 굵은 눈썹과 동그란 눈, 이마의 특이한 무늬 등이 기하학적으로 표현돼 있다. 이 탈은 서역인으로 알려져 있는 신라시대 처용(處容) 탈과 비교할 수 있어 간다라 문화 수용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다라 지역에서도 처음 출토된 것이어서 파키스탄 고고박물관청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또 함께 발견된 등잔은 사원의 벽을 파고 그 속에 불상 등을 넣어두던 벽감(壁龕) 속에서 사용하던 모습 그대로 출토됐다.

이번 1차 발굴에서는 조울리안 Ⅱ 사원지 탑 벽면에 두껍게 회를 바른 후, 붉은 색으로 채색한 흔적이 남아 있어 2005년도에 실시할 2차 발굴에서 채색벽화의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오유진 기자

자비실천, 이라크서 구호사업

키르쿠크 주민대표와 합의서 체결

재단법인 자비실천(이사장 도현)이 이라크 키르쿠크 주민대표들과 이라크 내 구호사업과 봉사활동 합의서를 3월 18일 체결했다.

신라호텔 마로니에홀에서 진행된 합의 조인식은 이사장 도현 스님을 비롯, 자비실천본부 관계자들과 바그다드대 레파트 교수, 아랍족 오베디가문 지도자 싸미 압둘라 등 이라크 키르쿠크 주민대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합의서에 따라 자비실천은 이라크 재건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봉사활동, 구호품 지급, 주택건축사업 등 각종 구호사업과 봉사활동, 재건사업 등을 이라크 현지에서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는 오는 4월 파견되는 자이툰부대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안전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도현 스님은 "이번 합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를 실천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작은 시도"라며 "이라크 키르쿠크지역 내 전쟁 이재민들과 재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레파트 교수는 "한국군 활동에 기대가 크다"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라크 키르쿠크 주민대표 8명은 자이툰 부대를 방문, 실질적인 지원방법과 파병 규모 · 역할 등에 대한 좌담의 시간을 가졌다.

김은경 기자

불교상담대 4월1일 개강

상담 전문인력 확보위해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은 불교상담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기관인 '불교상담대학'을 4월 1일 개강한다. 부설 자비의 전화에서 해오던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올해부터 '불교상담대학'으로 확대 개편했다.

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전문과정으로 나뉘며 기본과정은 4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저녁 7~9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시청각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접수마감은 3월 27일까지.

상담개발원은 이와 함께 불교상담전문인력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가칭)'불교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한국능률협회의 민간자격 등록을 마치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공인과정단 내 특수포교사 자격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abi24.org)를 참고하거나 전화 (02)737-8803. 권형진 기자

고려대장경硏 10주년 기념식

4월1일 달마사서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 이하 연구소)가 4월 1일 서울 달마사(주지 미명)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산화본 고려대장경을 부처님 전에 봉안하고, 새로운 보금자리 건립을 선언할 계획이다.

전산화본 고려대장경은 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전산화한 1514종의 고려대장경을 총 108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이날 봉안을 위해 새로 제작했다.

1994년 해인사 뒷방에서 시작된 연구소는 이날 달마사에 연구소 건물 신축을 선언한다. 연구소는 달마사에 장경도량을 건립해 연구와 생활, 수행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 이상돈 학술차장은 "달마사에 건립될 장경도량은 불교문화정보 구축, 학술연구,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장경도량에서 연구소가 이웃과 함께 하면 진정으로 살아있는 연구소라는 설립정신을 널리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청소년 사경공모전

파라미타 4월27일까지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제7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전국 불교종립학교 재학생, 파라미타 청소년회원을 비롯한 일반 청소년이면 모두 참가가능하며,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파라미타에서 제작한 사경지에 사경해 4월 27일까지 파라미타로 보내면 된다. 우수 사경에게는 총무원장상과 파라미타 총재상 등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여된다. (02)723-6165

김은경 기자

장기기증 신청 4만925명 · 장기이식 484건

자비 씨앗 뿌리기 10년 결실

31일, 창립10주년 기념식

'생명나눔실천본부'

오는 3월 27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가 창립 10돌을 맞는다. 그간 본부가 벌인 장기기증운동은 자비사상의 사회적 회향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본부의 성장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3월 현재 조직은 2만여 명의 일반회원과 5천500여 명의 후원회원으로 몸집이 커졌다. 출범 첫해 469명에 불과하던 장기기증 신청자도 2003년 말 기준 4만925명(누계)에 이르렀으며, 장기이식도 총 484건을 성사시켰다. 또 지난 1998년부터 화장서약운동도 전개해 3만1741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이런 공로로 본부는 지난해 서울시 NGO지원사업 부분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난 2월 11일 대구영남불교대학관음사에서 가진 헌혈기증행사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본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환자 돕기도 펼쳤다. 매달 중병과 경제적 곤란을 겪는 환자 1명을 선정해 현재까지 88명에게 총 4억여 원을 치료비로 지원했다.

본부는 출범 10년차를 맞아 4월과 9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조계사 교육관에서 '생명나눔 강좌'를 연다. 창립 10주년 기념식도 3월 31일 오후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혜숙 사무총장은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백혈병, 재생불량 빈혈 환자 등을 위해 골수기증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현대설법

법회를 세우는 위대한 감동! 설법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새로 나온 <프라즈냐 6권> 특별가 책정!!!

프라즈냐(6권)
35만원 ➔ 19만원<특별가>

6권(일반)의 종류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 49일 천도, 명절

2권(특별)의 종류 방생, 영가 천도, 각종 특별 행사 기도 법문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가족법회, 일요 수요 법회, 학생회, 대학생, 청년회,공무원, 회사원, 교수 교사 군 불자 법회나 가족 모임, 수련대회 각종 불공과 기도

법문 준비 시간에 다른 불사를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법문 내용에 소홀하지는 마십시오.

주제별 재일별로 독특한 구분 / 자유자재 응용 / 1편 분량 25분 소요 / 경전근거 / 시원한 활자 크기 / 겹친 내용 없음 / 수많은 특별 사례 소개/1편씩 분리 가능

찬탄과 헌공으로 가는 계획된 감동/ 진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명 법문 / 영험을 건져내는 새로운 눈빛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정진만 있고 법회와 설법이 없습니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한정 제작에 들어간 <프라즈냐>에도 눈 밝으신 법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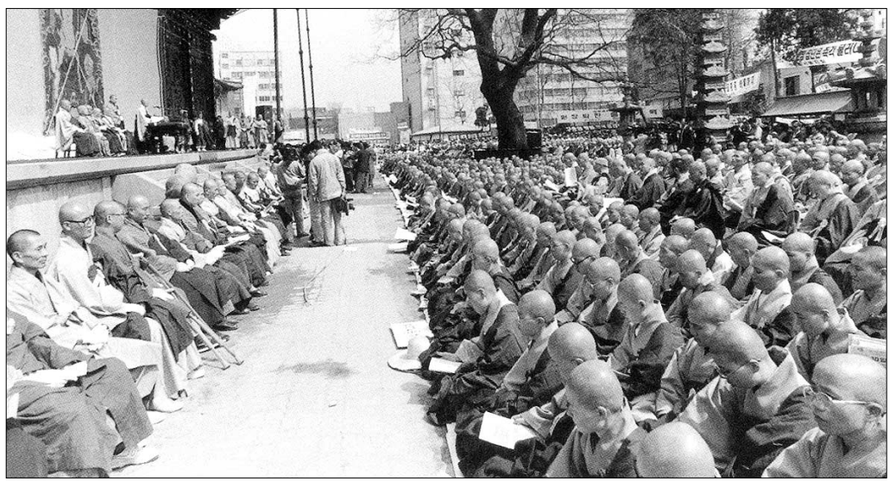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 대 설 법 연 구 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

조계종 '3·29개혁' 10주년
교계 오피니언 리더 50인의
개혁불사 10년 진단



불교계 지도자들이 조계종 개혁 10년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의외다. 이같은 평가는 변화가 상당 부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개혁 정신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단 구성원의 개혁의지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시대 흐름에 떠밀린 소극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

의지 부족… 변화 요구 못 담아



1994년 4월 10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조계종 승려대회. 승려대회 직후 조계종은 '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 자료집

선거·인사제도·사찰운영 등 사회적 신뢰 낮아
승가-출가정신 회복, 재가-실천적 신행 필요

● 개혁 5대 실천 이념에 대한 평가

이같은 평가는 조계종 개혁 5대 실천 이념에 대한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청정승단 구현'의 경우 '긍정적'(16%)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것은 과거와 비교해 오히려 '승가 정신' 실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과 돈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과거보다 더 심해졌고, 청정한 승가 풍토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정법 구현'이나 '종단 운영 민주화'의 경우는 선거 및 인사제도와 사찰 운영 등에 아직도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긍정적인 시각이 근소한 우위를 보였던 '불교 자주화'에 대해서도 대정부 관계에서의 자주성은 높이 평가한 반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사회적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는 각 NGO 단체들이나 복지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이같은 본지의 조사 결과는 중앙승가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2003년도에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중앙승가대 조사 결과 5개 항목별 '긍정적' 응답비율은 △정법구현 19.3% △불교자주화 18.8% △종단운영 민주화 21.1% △청정교단 구현 13.8% △대사회적 역할 확대 22.8%였다. 5개 항목 모두 부정적 평가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출·재가 개혁과제

응답자 대부분이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이들이 제시한 출·재가의 개혁과제를 종합하면 모두 20여 가지나 됐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의식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설문에 응했던 한 스님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 불교 집안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변한다"며 종단구성원의 의식 개혁을 강조했다.

출가 개혁과제로 '의식 개혁'(24%)이 가장 많이 꼽힌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출가 정신을 회복하여 청정승단 확립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의 반영인 셈이다.

재가 개혁과제로는 '소극적 신행활동'(26%)이 지적됐는데, 이는 기복적 신행 패턴에서 벗어나 수행과 신행을 병행하는 '실천적 신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응답자들은 설명했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설문 응답자

계성(전등사 주지)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동출(설법연구원장) 법등(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은해사 주지) 본각(중앙승가대 교수) 성광(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세영(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여연(조계종 기획실장) 우학(대구영남불교대학장) 원택(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의연(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지오(전 해인사 강주) 지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홍(조계사 주지) 청화(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해주(동국대 교수) 현각(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 현응(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현지(광주사암연합회장) 혜능(해인사 해인율원장) 혜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혜총(불국토 이사장) 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강지혜(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공병수(부산불교거사림회장) 김광식(부천대 교수)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 김진관(불교산악인연합회 총재) 남지심(소설가) 명호근(대불련 총동문회 명예회장)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백창기(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성태용(건국대 교수) 송도근(건교부 불자회장) 양성홍(조계종 포교사단장) 윤창화(민족사 대표) 윤천수(불교아카데미 이사장) 이근우(청담정보통신고 교장) 이만(동국대불교문화대학장) 이인자(불교여성개발원장) 임완숙(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장영효(MBC 불교연구회장) 전창열(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정병조(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정상옥(대한불교청년회장) 최명준(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홍기삼(동국대 총장) 황진수(교수불자연합회 부회장)

승·재가, 가나다 순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출범 전후

범종추 발족-3선 반대-청사 점거-승려대회

1994년 3월 23일 송산·청화·도법 스님 등 500여명은 중앙승가대학 정진관 대강당에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이하 범종추)'를 발족시켰다. 이는 3월 30일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서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범종추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참여하는 종단, 주인의식을 갖는 종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종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종단개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의 본원적 과제이며 어길 수 없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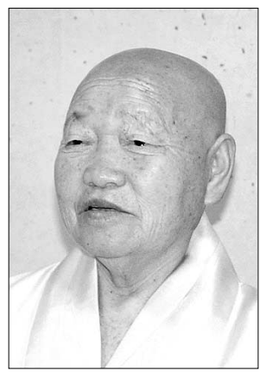
또 '불교도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는 대다수 승려들이 교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길이 봉쇄돼 있고, 극소수 정치승려들이 종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종추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선우도량,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전승련), 중앙승가대학학생회 및 동문회, 동국대석림회 및 동문회, 동국대 동림동문회 등 승가단체와 불교바로세우기 재가불자연합, 우리는 선우, 경제정의구현불교시민연합 등 불교시민단체가 동참했다.

범종추 관계자들은 26일 농성에 돌입했고,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총무원 청사 점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개혁회의'를 출범, 새로운 종단개혁의 틀을 짰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 <9> 성연 스님

'이뭣고' 화두 들며 대중외호



"인생살이 꿈같이 생각하고 부처님 믿고 살라는 거지…무슨 얘길 하라고…?"

대구 팔공산 남쪽기슭, 동화사에서 서북쪽으로 800미터쯤 들어간 곳에 위치한 산내암자 양진암. 73년간 대중외호와 함께 수행 외길을 걸어온 한 비구니 스님을 만날 수 있다. 세수 85세 법랍 73세의 성연 스님이다. 자그마한 체구에 인자한 모습,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불교정화까지 파란만장한 시대를 몸소 겪은 수행외길의 깊이가 숨겨져 있다. 한사코 할 말이 없다는 스님은 색(色)으로 보여줘야 알아듣는 범부를 위해 하나하나 수행의 뒷이야기를 풀어냈다.

먹거리 귀하던 시절 20년 동안 탁발로 선방수좌 뒷받침

스님은 12세에 해인사 약수암에서 쾌유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7세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젊은 시절 제방선방 곳곳을 거침없이 다니며 수행했던 스님은 정화 후 3년만인 58년에 동화사 양진암에 들어와 비구니 선방을 열었다. 이때 스님을 따라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스님이 성타 스님, 현묵 스님, 쾌승 스님, 육문 스님 등 7명이다.

살기가 힘든 시절, 스님은 이때부터 20년을 탁발로 선방 수좌들의 공부를 뒷받침했다. 스님의 탁발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힘겨운 수행길이었으나 돌아오는 길에 하는 염불소리는 온 산을 울리며, 호랑이도 산짐승도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했다.

오늘날 양진암은 관음전과 법보전, 미소실 등을 갖추고 36명의 수좌가 공부하는 유서깊은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할 정도니 여기에는 성연 스님 45년 대중외호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고성 상문수암에서 성철 스님, 청담 스님과 함께 지냈던 한달간의 시절을 소중히 회고했다. 총알과 폭탄을 피해 모두가 나락사이를 기어 다니던 시절, 15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법문을 듣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사장삼을 수하고 대로(大路)에 당당히 나섰던 일. 밤새 날아온 폭탄과 총탄 속에 하룻밤을 지냈던 일 등.

"밤새 콩볶는 소리가 들렸는데 도량에는 총알 하나 없었지요. 담너머 대밭에 총알이 새까맣게 떨어져 있었을 뿐이었어." 신장의 옹호아래 거침없고 당당한 수행자의 발걸음에는 총알도 폭탄도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다.

"나는 난리를 몰랐어요. 죽는다 산다는 생각 없이 오직 '이뭣고'만 찾았지요."

스님의 말에서 화택에 있으나 근본자리에 들어 항상 고요한 수행자의 면모를 감히 살짝 짐작해 본다.

"스님은 지금도 토끼잠으로 잠깐 눈을 붙일 뿐 포행과 참선, 큰스님 법문청취로 하루를 바쁘게 보냅니다." 25년간을 스님 옆에서 지켜봤다는 상좌 정묵 스님은 이렇게 스님의 일상을 일러줬다.

"일체 안되는게 없다. 모든 것은 물 흘러가듯 저절로 다 된다"고 늘 말씀하시는 성연 스님은 큰소리 한번 치는 법이 없다. 어느 누가 오든 공양을 주고 거둔다. 오늘도 울산에서 오셨다는 노보살이 나물을 캐며 성연 스님의 넉넉한 품에서 부처님의 대자비를 느끼고 있었다.

대구=배지선 기자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꿈★이 이루어지는 한마당 참가자 모집

1. 취지

외국인 노동자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간의 상호우위를 돈독히 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 일 시 : 1회 - 2004. 3. 28 (일) 10:00 ~ 18:00 2회 - 2004. 4. 25 (일) 10:00 ~ 18:00
★ 장 소 : 1회 - 강화문예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39번지 032-933-8016)
2회 - 가산문화센타 (경기도 광명시, 예정)
★ 참가대상 : 외국인 노동자 및 자녀, 청소년 선착순 230명
★ 찾아오는 길 : 버스 대절 완비 (접수자만 해당) 및 직접 방문 가능
★ 주 최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 접수 및 문의 : 2004년 3월 26일(금) 18:00까지 선착순접수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110-13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 삼영빌딩 402호
TEL : (02) 735-8165, 733-5138, 737-9260 / FAX : (02)722-6623
홈페이지 : www.yeba.or.kr / E-mail : yeba@chollian.net ※ 자원봉사확인증 발급 (8시간)

3. 행사 내용

주 제	순 서	내 용
체험마당1 (만들기)	추억을 담아 (놀이감 제작)	제기, 팽이, 종이가방, 딱지접기
	희망을 담아 (볏짚 공예)	달걀바구니, 금줄, 짚뱀, 인형, 안경 만들기
	신비를 담아 (염 색)	손수건 염색, 봉숭아 물 들이기 등
	꿈을 담아 (소원 성취)	연등, 염주, 무지개모래, 비눗방울 등
체험마당2	놀 이	추억의 재미난 놀이 체험
	먹거리 장터	뽑기, 달고나, 떡볶이/꼬치, 김밥, 솜사탕 등
	청소년 공연	풍물놀이, 가야금연주, 선무도
	다도 강좌	스님 또는 전문 강사분의 강좌
	사진 촬영	폴라로이드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 동구 직지불교대학 직지선원

개원법회 및 봉불식

직지사 주지스님이신 **자광스님**을 모시고 **직지사 대구 동구 직지불교대학 직지선원**을 열게 되었사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소서.

식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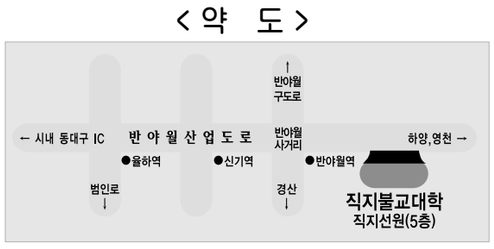
◎ 법 어 : 직지사 주지 자광 큰스님
◎ 축 사 : 직지사 전주지 정혜창 큰스님
◎ 격려사 : 직지사 전주지 유법성 큰스님
◎ 격려사 : 직지사 전부주지 김법등 큰스님

■ 부처님 점안시간 : 오전 9시
■ 개원법회 및 봉불식 : 2004년 4월 2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주 관 : 수성구 직지불교대학 황룡사 / 달서구 직지불교대학 와룡정사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대구 동구지원 (지하철 반야월역 앞)
■ 전 화 : 053)961-8620 ■ 팩 스 : 053)961-8621(대구 동구 직지선원)
■ 전 화 : 053)784-8620 (수성구 지산동 황룡사)

◎ 2부 기념공연 :
직지불교대학 황룡사 합창단과 통기타로 노래하는 도일스님
(청산은 깊어 좋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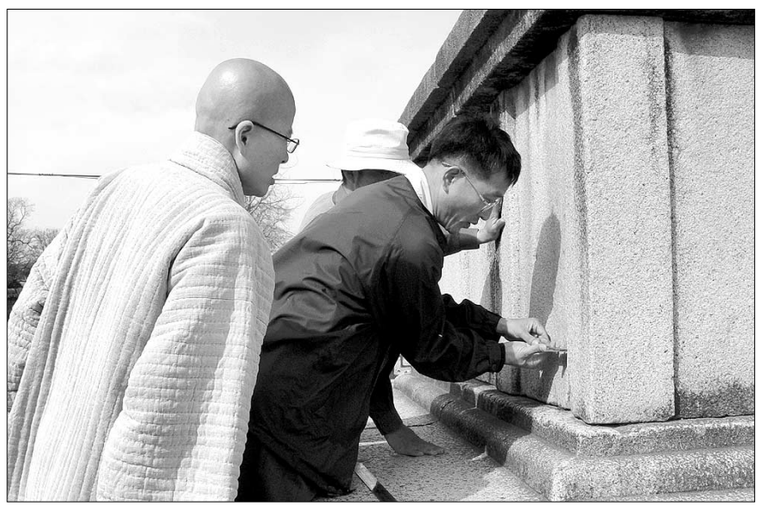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2-2 (5층)
(지하철 반야월역 3번 출구)

< 약 도 >



● 버스노선 : 일반 980번, 좌석 719번 ● 범안로 출발시 1. 2 번 요금소를 지나 지하철 율하역에서 우회전하여 직진하세요

국보 34호 술정리 동탑 '기우뚱'



혜일 스님과 김량관, 윤광수 씨가 술정리 동탑의 벌어진 틈을 자로 재고 있다.

7년째 창녕읍 술정리에 위치한 국보 34호 술정리 동탑을 지키고 있는 혜일 스님. 스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을 주민들의 놀이터로 방치돼 있던 동탑의 주변 정비사업이 한창이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재청 예산 3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동탑 보호에만 매달려 온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에 기쁨이 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포크레인을 동원해 진행된 철거작업으로 동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발견돼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탑에서 10m 떨어진 가옥 철거작업이 진행된 후 탑이 기울어진 것 같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탑 전문가를 불러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3월 16일 동탑을 찾은 창녕향토사학회 김량관 연구간사와 동탑 속의 유물 14점을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윤광수 씨는 "면석부분에 1.8㎝ 가량의 틈이 생겼고, 상단부 갑석부분에도 1.2㎝ 정도가 벌어져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탑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옮겨갈 때 생기며 탑 기울기는 가속도를 받아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면석 1.8㎝, 갑석부분 1.2㎝ 틈
> 군청의 '탑보호' 주변정비사업 영향
> 인근 공원 · 관광지화로 훼손 우려

특히 김 연구간사는 "국보 주위의 정비사업인 만큼 지표조사를 토대로 귀중한 자료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해당관청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탑의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탑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일 스님의 또 한가지 걱정은 동탑 주변 정비사업이 동탑을 공원화하거나 관광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오히려 동탑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청이 탑에서 30m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다 문화재청에 의해 반려된 예를 들면서 인식 부족을 꼬집었다.

2002년 동아대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 동탑이 인양사라는 대규모 사적지의 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마땅히 사적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주장. 뿐만 아니라 지표조사를 토대로 한 발굴조사, 그에 따른 복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변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창녕군청 관계자는 "그 정도 진동에 탑이 기울어졌을 리 없다"며 스님의 과민반응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사적지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주변 토지 매입과 철거 작업을 우선 시행한 후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3월 16일 문화유적답사회 김환대 회장과 동탑에 인근한 보물 520호 술정리 서탑을 찾은 혜일 스님은 또 한번 놀랐다. 서탑 역시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 인양사지의 쌍탑으로 인양사의 규모를 가늠케하는 서탑 역시 지표석이 뿌리째 뽑혀있고 상층 기단이 눈에 띌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스님은 곧바로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관계자들에게 눈물로 탑 보호를 호소하고 나섰다.

창녕=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화방동산' 겹경사

신축건물 불사, 자활후견센터 선정



화방동산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해군 향토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노인무료 요양시설인 화방복지원 화방동산(원장 효천)에 기쁜 소식이 줄을 이었다.

3월 10일 남해지역 자활후견센터 선정에서 총 23개 기관 중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화방동산이 지정된데다 22일에는 프로그램실, 강당 등을 갖춘 건물 한 동에 대한 신축 불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이다.

화방동산은 4월 1일부터 간병, 집수리, 청소용역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알선하는 자활후견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특히 간병을 특화사업으로 선정,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화방동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장학금을 모아 남해군 향토장학회에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 자비원 노인요양원 기공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대표이사 현문)은 18일 '전문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대표이사 현문 스님, 통도사자비원 원장 오심 스님을 비롯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공식에서 현문 스님은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통해 자유롭게 개방, 지역 노인복지의 중추적 역할과 자비 실천 도량의 기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올 11월에 완공될 통도사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은 2002년 국고 보조사업으로 확정, 대지면적 760평, 연면적 665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현대식 건물에 총 15개의 병실에 70여 병상이 들어선다. 특히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등이 소외 계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천미희 기자

지율 스님 포크레인 앞에 가부좌



지율 스님이 천성산 구간의 공사를 막기 위해 포크레인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강한 반발에 공사 중단
식목일 퍼포먼스 예정

3월 15일, 천성산 자락 개곡 마을의 벌목 공사 현장에 포크레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사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10일 "벌목 공사를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공사현장에 들어갔던 지율 스님 때문에 멈춰있던 공사를 다시 재개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지율 스님이 포크레인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서 상황은 긴박해졌다. 스님은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데 왜 공사를 강행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공사는 다시 중단됐다.

벌목 현장으로 들어가 공사 강행을 몸으로 맞서고 있는 지율 스님은 공사 강행과 관련 16일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스님은 도롱뇽 만나러 가기 행사로 천성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벌목현장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천인 수호대 결성을 서두르는 한편, 현장지지 방문단을 구성, 매주 일요일마다 지율 스님에게 힘을 보태게 된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온 몸으로 부처님을 부릅니다"



임희규 씨와 그의 딸 수진 양이 함께 수화로 '나눔의 기쁨'이란 노래를 부르고 있다.

부산농아불자회 하루찻집
수화찬불가 등 행사 다채

부산농아인불자회와 수화봉사모임 심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하루찻집이 열린 14일, 전통찻집 산머루. 찻집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이 모두 주방 옆에 마련된 임시 무대에 고정됐다. 무대 위에서 농아 불자인 임희규 씨의 수화 노래가 한창이었기 때문.

단순한 수화가 아닌 온 몸으로 그가 소리 없이 부르는 노래는 때론 춤인 듯 때론 절규하는 몸짓인 듯 강렬했다.

"한때는 세상이 싫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을 알고부터 세상이 밝아졌어요. 한때는 나마저도 싫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을 알고부터 모두를 사랑하게 됐어요". 소리가 되진 못한 노래가 임희규 씨의 손끝을 따라 관객들에게 전해졌다.

"부처님을 사랑한다"는 마지막 가사를 표현하는 임희규 불자의 몸짓이 끝나자 많은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무대는 임희규 불자의 딸 수진이와 함께 한 무대. 아빠를 따라 고사리손으로 '나누는 기쁨'이라는 수화 노래를 부른 수진이는 농아가 아니다. 아빠는 딸 수진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호흡을 맞췄다.

이날 하루 찻집을 성황리에 마친 농아불자회와 심여회 회원, 이들을 뒷바라지 해온 도원스님은 내년에 찬불가 수화발표회를 개최할 용기를 얻었다고 털어놨다.

또 하루찻집 수익금 전액을 불우 농아인에게 전달하는 회향법회를 열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대구텍(주) 석불회
9주년 기념 법회

텅스텐 공급 주식회사 대구텍 불자들의 모임인 석불회(회장 이동락)가 창립 9주년을 맞아 3월 13일 대구 삼보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기념법회에서 등운 스님(삼보사 주지)은 "일을 일로 보면 일꾼이고 일을 수행으로 보면 수행자가 될 것"이라며 "팔정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여 발 한발 딛고 팔 한번 드는 것이 수행이 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고 법문했다. **배지선 기자**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
창립 8주년 총회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협회장 김석조) 3월 17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봉행했다.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총재 대성 스님과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김석조 협회장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청소년 단체 지도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중등부 지회장으로 금정중학교 최주석 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두자 씨를 비롯한 5명의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천미희 기자**

불교TV 대구지사
선불교대학 입학식

3월 12일 불교 TV 대구지사 무상사는 철우 스님(영산율원장), 입학생 50명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불교대학장 철우 스님은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비구 5명에게 하고 가섭 3형제를 만나 1,200명의 제자에게 전했듯이 무상사 선불교대학도 수많은 불교대학중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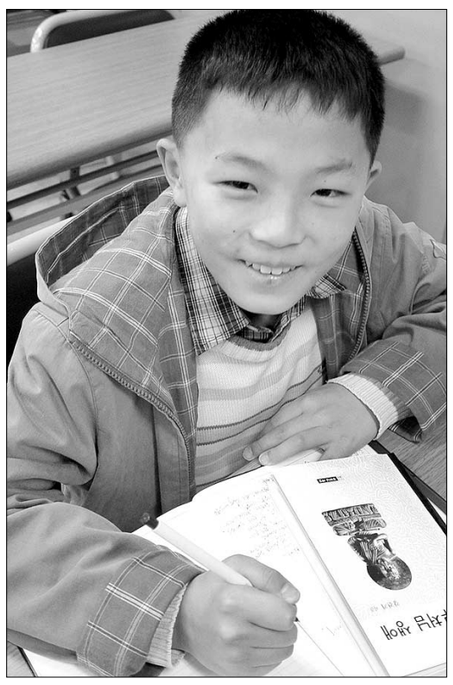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예수재법회

칠재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 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사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화산산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용큰스님사리친견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회	우리절
막재	4.18	일	봉송법요식	우리절

제 3재 태화산산신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 제 8권을 나누어 드리고 제 6재 관정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역시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옮긴 <<지장경>>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제4재 점안법요식에서는 예수재용품을 비롯하여 금강경탑다라니와 광명진언탑다라니를 점안합니다.
예수재용품은 회향 때 살라드리지만 이번 윤달에 우리절에서 점안한 탑다라니는 종이가 아닌 비단 위에 그려진 것으로써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다시없는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류지헌 군이 3월12일 전북불교대에서 첫 강의를 들으면서 활짝 웃고 있다.

불교대학에 초등학생 입학

13살 류지헌 군 전북불교대에
"교재 재미있어 공부하고 싶었어요"
아빠 류주영씨도 졸업…부자가 동문

불교대학에 초등학교 학생이 입학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북불교대학 제17회 불교학과에 입학한 류지헌(13 · 군산 개정초등 6년) 군.

3월 12일 불교대학 첫 강의(강건기 학장의 '부처님 생애')를 들은 류 군은 "어려운 말이 있기는 하지만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다"며 강의소감을 밝혔다.

류 군은 "아빠가 보던 불교대학 교재와 책이 재미있어 공부하고 싶었다"며 "불교대학에 입학시켜준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 군의 부친 류주영씨도 전북불교대 14회 졸업동문. 처음엔 너무 빨리 불교공부를 하면 '건너짚지 않을까' 걱정되어 입학을 망설였다.

"인연인가 봅니다. 위로 형 누나가 있는데 유독 막내 지헌이가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일찍 불교를 배우면 사춘기뿐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만나는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침착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류 군은 초등학교 친구들도 항상 앞에서 이끄는 편이다.

"우리반 26명 가운데 25명이 교회에 나가고 저 혼자 불교예요. 그렇다고 종교로 친구들과 문제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불교대학 입학에 앞서 지난 1월, 동계 수련회에 동참했던 류 군은 수계식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계사로 혜명(慧明)이란 법명을 받았다.

"큰 스님이 반야심경 마지막 구절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깨달음의 길로 가라는 것인데 나쁜 마음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남을 배려하는 부처님 마음으로 살래요."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신심과 열정으로 절 외호

서울 본원정사 혜명화·수덕화 보살



혜명화 보살(맨 오른쪽)과 수덕화 보살이 주지 대련 스님과 사찰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닮았다. '말뚝' 같은 신심도, 절을 아끼는 마음도, 공부에 대한 열정도 그렇다.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샘이 날 정도로 두텁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도반다운 도반이다.

혜명화 보살(김영주 · 46)과 수덕화 보살(박명애 · 50). 서울 종로 무악동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본원정사의 두 보살은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인정하는 보배 같은 존재다.

혜명화 보살 신도들 애경사 챙겨
수덕화 보살 4대가 불자 집안

혜명화 보살은 신도들 애경사를 일일이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잡다한 절 일을 모두 도맡고 있다. 활발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혜명화 보살의 에너지 원천은 따로 있다.

어머니를 따라 어릴 적부터 절에 다녔던 혜명화 보살은 30대 초반, 5살 난 딸과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 본원정사에 오게 되면서 맺은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곳에서 스님과 신도들과 함께 기거하며 절을 일구는데 한 몫을 했다.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서예요." 이런 굳은 신심이 바로 혜명화 보살의 '힘'이다.

수덕화 보살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줍은 모습과는 달리 강단이 있다. 2002년 3월에 1000일 기도를 입재해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에 나와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다.

"매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수덕화 보살이 본원정사 신도가 된 지는 7년.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곳의 신도였고, 큰딸 김현지(18) 양도 본원정사 신도니 4대의 불심이 본원정사에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셈. 이렇게 보면 수덕화 보살이 본원정사 신행단체인 보현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두 보살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사와 신도교육에 몸을 아끼지 않는 주지 대련 스님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질 않다. 그래서 스님 몫까지 해보자며 두 보살은 손을 꼭 잡는다.

한명우 기자



추천의 말

대련스님 본원정사 주지

우리 절 신도들 모두가 훌륭하지만 두 보살은 헌신적으로 절 일을 살피며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불자입니다. 신도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와 돕습니다.

적극적인 삶 신도들 귀감

우리 본원정사는 서울시 민속자료인 선바위가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이 두 보살을 포함해 여러 신도들이 절을 복원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지만 우리 두 보살과 같은 훌륭한 신도들이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밀랍주조 대형범종 탄생

전통 밀랍주조방식을 통해 11톤에 달하는 대형범종이 탄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성종사(대표이사 원광식)는 조선시대 이후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밀랍주조공법으로 3m17cm 높이의 범종을 제작, 3월 13일 공개했다. 강릉시의 요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여에 걸쳐 제작된 이 종은 '강릉시민의 종'으로 명명됐다. '강릉 시민의 종'은 강릉시청 앞 공원에 조성되는 종각에 6월경 설치된다.

원광식 사장 10년 연구
한국만의 전통주조법 활용
'강릉 시민의 종'으로 명명



6월경 강릉시청 앞 공원에 설치될 '강릉시민의 종'

범종 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형주조법과 달리 '강릉 시민의 종'에 사용된 밀랍주조법은 고열에 흙을 구워 만든 틀에 쇳물을 부어 종을 만드는 방법으로, 중국과 한국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공법이 사라졌고, 중국도 문화혁명 이후 대가 끊겼다.

다시 밀랍주조법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1997년, 성종사 사장 원광식 씨에 의해 이뤄졌다. 원 사장은 10년여의 연구 끝에 밀랍주조법을 재현해 냈고, 이 기술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됐다.

성종사에 따르면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된 종은 수분이 적어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맑은 소리를 낸다. 또 흙으로 된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고 조각이 섬세한 종을 얻을 수 있다. '강릉 시민의 종'도 이같은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

원광식 사장은 "97년 밀랍제조법 재현 이후 소형종을 제작해 왔으나 이번 범종은 대형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전통 종에 버금가는 범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옥천사암련 새회장 지원스님
군정발전 기원법회 봉행



충북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최근 옥천 대성사에서 연합회 회의를 열고 지원스님(옥천 대림선원 주지)을 사암연합회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원 스님은 회장에 선출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2년 임기동안 연합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임원진뿐만 아니라 회원 사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지원 스님 등 지역 사찰 스님들과 유봉열 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옥천군정발전기원법회(사진)를 봉행하고 지역 화합과 무사태평을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사암연합회와 군청은 매년 열리는 영규대사 추모제에 불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급 기관과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광주 BBS 개국 9주년
범능 스님 초청 공개방송

광주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이 개국 9주년을 맞아 범능 스님 초청 공개방송을 3월 14일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했다.

'범능 스님의 노래이야기'로 펼쳐진 이날 공연에서 스님은 '언젠가 봄날에' '섬진강' '산사문답' 등 서정성 있는 노래를 불러 광주시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초대된 범능 스님은 1980년대 대표적 운동가요 '광주 출정가'를 부른 민중가수(속명 정세현)로 광주노래패 '친구'를 이끌기도 했다.

스님은 89년 전남대 국악과에서 피리를 전공했고 중요무형문화재 51호 조공례 선생에게 민요를 사사 받았다.

이준엽 기자

충주시 템플스테이 운영

충북 충주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템플스테이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충주시는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템플스테이'와 '팜스테이(Farm-stay)' '홈스테이(Home-stay)'를 상설화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사찰이나 가정 등을 모집한다. 충주시는 템플스테이 유치 사찰이 확정되면 관광정보사이트와 연계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각종 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운명적 영혼적 현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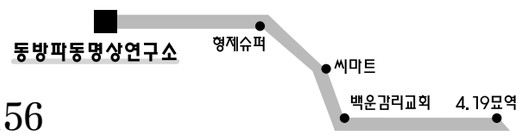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다수의 영통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 연구소 약도



강북구 수유동
☎ 02)996-6156

「파동명상 요법」을 수련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또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운명을 읽어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말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대***이다. 현생의 삶은 자신의 전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파동명상요법을 통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적 사건과 영혼적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3월 둘째주, 넷째주 (화 ~ 금) ◈ **강의장소 :** 서울,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수려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전문반을 수료한 자로서 본원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지도자 자격증 수여함.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三善?… "삼선짬뽕!" 하하하


수업은 언제나 '삼귀의'로 시작된다.


35명의 학생들과 '불교 기초 교리' 수업중인 김광호 교장. 엄한 호랑이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에게 적절한 쉬운 예화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한번이라도 싸우면 맞거나 때린 아이 모두 무조건 퇴학, 결석을 세 번해도 퇴학.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수업은 들을 엄두도 못 내고 밖에서 벌을 서야 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을 쓰는 형식으로 4시간동안 치르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수업을 빠지면 반드시 보충수업을 들어야 한다.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회의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학부모들의 108배, 사적지 탐방 등 신행 생활도 필수조건이다. 그만큼 부모의 참여를 중요시하지만 간섭은 허용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것, 학부모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규칙이다. 또한 잘못을 하면 죽비를 맞아야 하는 규칙에 항의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퇴교 조치된다.

"대체 어떤 학교이기에 이렇게 까다롭지?"하는 의구심이 절로 일어나는 이 학교는 부산 금화사(주지 대안) 신도회장인 김광호(53 · 법명 현묵) 법사가 설립해 교장을 맡고 있는 금화사 초등불교학교다.

영화·성지순례·국악·체육 등 다양
108배, 사적 탐방 등 신행생활 필수
'달라졌다' '왕따 웬 말' 반응 대단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정식 학교도 아닌데 이리 까다로운 교칙을 가진 학교에 입학 희망자가 있을까 싶지만 예상을 뒤엎는다.

입학을 앞두고 3개월 전부터 입학원서를 받고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할 정도로 희망자가 줄을 섰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 통사정을 하고 미리 서류를 접수시키는 학부모가 많다. 자매나 형제가 함께 다니는 경우는 물론이고, 멀리 양산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까다롭게 선발된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인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35명과 이향화 국악교사, 최미선, 정옥숙 찬불가 교사, 한영순 다도 교사 그리고 교장인 김광호 법사 등 모두 40명이다.

3월 14일 일요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휴일의 늦잠에 빠져있을 시간,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학생들은 종종걸음을 치며 금화사로 들어서고 있었다.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입학의 행운을 누린 아이들이다. 교복인 생활한복을 입고 걸망을 짊어진 아이들은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고 곧바로 식당으로 모여 수업 준비를 시작했다. 첫 시간은 찬불가 배우기. 금화사 천광합창단 정옥숙 단장의 지도로 발성이 시작됐다.

"♪ 아-아-아아~ ♬"

타잔처럼 목을 길게 빼고 생소리를 지르는 아이, 허리를 쭈욱 펴고 제법 목청을 다듬는 아이, 보는 것만으로도 빙그레 웃음이 나온다. 엄한 교칙에도 아이들의 천진함을 숨길 수는 없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김 교장은 '호랑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아이들 등뒤를 어슬렁거리다 장난기가 발동하는 아이에게 어김없이 죽비를 친다. 따악! 요란한 죽비소리가 번쩍 아이들의 마음을 깨워 놓는다.

죽비를 맞은 후 웃음이 나올 듯 말 듯 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 김 교장과 아이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된다. 모든 아이들의 법명을 외우고, 가정형편, 학교 생활, 습관, 특징까지 꿰뚫고 있으니 눈맞춤 한번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다.

'호랑이'라고 무서워하면서도 김 교장과 e-메일을 주고받으며 시시콜콜 학교 얘기를 털어놓는 아이들. 입학 후 3개월이 지나면, 학부모 사이에선 "아이들이 달라졌다"라는 말이 쏟아져 나온다.

정은향 보살은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재덕, 재원 형제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일반 학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아이가 반장을 할 정도로 달라지기도 했다.

"잠재력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이 엄마가 울면서 인사를 왔어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불성을 일깨워주면 저절로 빛을 내는 보석 같은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따악' 마음 깨우는 죽비소리 요란
'톡톡' 튀는 수업방식 머리에 '쑥쑥'
아낌없는 사랑 포교열정 인기 비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인기 비결은 바로 김 교장의 톡톡 튀는 수업방식과 학생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 어린이 포교에 대한 열정이었다. 김 교장은 세 번 결석하면 퇴학이라는 엄격한 교칙을 만든 장본인이면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결코 수업은 빠지지 않은 교칙 준수자 이기도 하다.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비결은 알찬 교과 과정이다. 찬불가, 기초불교예절 등의 기본 과정 외에도 다도, 통도사 참배, 영화 연극 관람, 체육대회, 국악교실 연수교육 등 여느 학교 교육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 올해는 중국 성지 순례도 들어 있다. 이쯤 되고 보니 "학교에서도 해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 재미있다"는 반응과 함께 출석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은 놀라울 것도 없다.

두 번째 시간은 김 교장의 불교교리 시간.

"삼학(三學)은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인데 그러면 삼악(三惡)은? 또 삼선(三善)은?"

"세 가지 나쁜 것과 세 가지 착한 것이요." 대답이 끝나자 다시 질문이 이어진다.

"또 다른 삼선이 있는데 뭔지 아는 사람!"

아이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 김 교장은 재빨리 말했다.

"삼선자장하고 삼선짬뽕!"

교실이 웃음바다가 된다. 삼학(三學)과 어린이오계를 배우는 시간, 김 교장의 알아듣기 쉬운 예화가 아이들의 두 귀를 쫑긋 세워놓는다. 자칫 지루하기 쉬운 불교 교리가 얘기로 술술 풀려 나왔다. 때론 웃어가며 때론 죽비 세례를 맞아 가며 아이들은 부처님 가르침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부산= 천미희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김광호 교장

김 교장이 금화사 초등불교학교를 시작한 것은 1997년.

95년 금화사 천자문 어린이 교실의 교사가 매주 바뀌는 것을 보고 교사를 자청한 것이 인연이 됐다.

700명의 군인을 휘어잡았던 육군소령 출신인 김 교장은 의욕만 앞서 140명의 어린이를 모집했다. 그러나 아이들 간식비, 강의실 임대료 등으로 사재(私財) 1천만원을 쏟아 붓고는 6개월 만에 손을 들었다. 참담한 실패였다.

"잘 된다는 어린이 법회는 모조리 참관했고, 어린이 상담, 불교 교리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 끝에 97년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 교장은 1999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받았다.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그런 김 교장은 불교의 어린이 포교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 포교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불교의 미래는 없어요. 돈 안 된다고 어린이 법회 외면하는 스님들, 각성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가 생활에 접목된 아이들은 다른 종교로 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갑니다. 우리 금화사 아이들은 평생 불제자로 삽니다."

신심 하나로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김 교장은 금화사 불교초등학교가 입주할 수 있는 어린이 포교 전용 건물 건립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실패후 어린이 법회 철저히 분석, 97년 개교
'돈 안된다' 인식 바꿔야 불교 미래 밝아



불교 강의 삼매경에 빠져버린 한 학생(사진 왼쪽). 다도 수업은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


김광호 교장(사진 오른쪽)과 부인인 이향화 국악교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AMS 불교 기업으로 육성

태고종 이달말 주식 공모…불자 10주 갖기로 '생산불교' 실현

사업분야, 납골·복지·영상·식품제조 등 확대

태고종이 지난 1월 인수한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에이엠에스(회장 운산, AMS)가 생산불교를 실현하는 불교기업으로 거듭난다.

태고종은 AMS 운영과 관련,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AMS 회장으로 추대된 제16기 주주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태고종에 뿌리를 둔 불교기업으로 육성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태고종의 자립기반을 닦는 '생산불교 실현'에 운영목표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월 29~31일 진행되는 주식공모를 시작으로 'AMS 주식 1종도 10주 갖기 운동'을 벌여 경영활성화를 꾀해 나간다. 이와 함께 AMS를 불교의 대표적인 성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불교종단과 협조체제를 구축, '2천만 불자 AMS 주식 10주 갖기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AMS는 불교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영전략을 내놓았다. AMS는 3월 8일 열린 제16기 주주총회에서 불교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기존에 펼쳐왔던 스마트카드 제조·유통 외에도 △사찰건립 및 유통사업 △추모공원 건립 및 납골사업 △영상포교를 위한 영화제작 △사찰부지를 활용한 주말농장 및 펜션사업 △노인복지사업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AMS는 또 모든 소액주주들을 하나의 대주주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주식 담당자로 정해 매주 두 차례 유선상의 공식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이사들의 E-mail을 공개해 수시로 E-mail과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소액주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

AMS 최대주주와 임직원도 경영정상화와 불교기업화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최대주주인 지병규 녹색장묘문화원 이사가 자신의 주식을 태고종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증여할 뜻을 밝혔고, 임원진도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직원들도 '우리 사주 100주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경영진의 투명한 회사경영을 통해 신뢰와 도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회사운영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지현진 AMS 부회장은 "AMS의 불교기업 육성은 불교이념을 실물경제에 접목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며 "신도와 사찰의 시주금에 의지해왔던 종단 운영의 패턴을 바꾸고, 태고종이 건전한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21세기 불교가 나아가야할 생산불교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국태민안 기원 만등 밝힌다

삼론종, 25일 충주 중앙탑서 법회

삼론종(총무원장 혜광)은 3월 25일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만등불사 대법회를 연다.

충주시 가금면 가금리 중앙탑과 충주호 인근에서 열리는 이날 법회는 '국운융창 국태민안' 기원연등 점화, 영산재, 축원,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삼론종 소속 전국 200여 사찰에서 스님과 신도 4천여명이 법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 이날 법회에서는 지난 1월 새로 선임된 총무원장 혜광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대안 스님, 재정원장 청봉 스님, 사정원장 정봉 스님, 수선원장 오봉 스님 등 주요 기관장에게 종정 석봉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이 수여된다.

총무원장 혜광 스님은 "이번 법회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운이 융창하기를 발원하고, 모든 국민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삼론종 종도와 불자들이 모여 만등을 밝히는 대작불사"라며 "자비, 지혜, 광명의 등불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밝혀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 지은 모든 업장을 불사르고 '밝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불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불교학 연구 소모임 지원합니다"

진각종 교육원, 불교학·밀교 논문도 공모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불교 및 밀교 관련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모임을 공개 모집한다. 소모임은 대학원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진각종 외부 2팀과 내부 2팀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진각종 교육원은 선정된 소모임에 1년간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4월 22일까지 교육원 종학연구실로 접수해야 하며, 5월 21일 진각종 홈페이지(www.jingak.or.kr)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종학연구실은 불교학과 밀교학 발전을 위해 불교 3편, 밀교 3편, 진각종학과 회당사상 관련 교학부문의 2편의 논문을 각각 공모한다. 수상작에는 각 200만원의 논문집필을 위한 연구비가 주어진다. 응모와 접수는 연구소모임 공모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02)913-0133

박봉영 기자

진각·총지종 49일 불공 회향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3월 14일 서울 총인원 탑주심인당을 비롯한 국·내외 모든 심인당에서 진기 58년도 새해 49일 불공 회향불사를 일제히 봉행했다.

1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49일 동안 진행된 이번 불사에서는 나라의 안녕과 경제발전 및 남북평화통일 성취, 가정 화평 등을 서원했다.

총지종(통리원장 우승)도 2월 20일 입재한 올해 상반기 49일 불공을 4월 8일 회향한다.

박봉영 기자

템플 스테이 운영사찰 선정 조계종, 4월 6일까지 접수

조계종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은 템플 스테이를 보다 전문화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찰을 선정한다. 선정 방식은 산사체험과 수련회를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운영 역량이 있는 사찰을 대상으로 공모로 이뤄진다.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해 운영사찰로 선정되면 전통문화체험사업단으로부터 참가자 모집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템플 스테이 관련자료 제공, 운영인력 연수, 홍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마감은 4월 6일까지.

전통문화체험사업단은 템플 스테이의 확대를 통해 한국불교 이미지 제고와 체험관광문화 활성화,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내외국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역량 구축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지종 인사

재무부장 시정 정사
재단사무국장 법경 정사




총지종은 통리원 재무부장에 성남 법천사 주교 시정 정사(사진왼쪽)를 3월 12일 선임했다. 또 유지재단 사무국장에는 법장원 연구원 법경 정사를 임명했다.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은 "현재 종단의 주요 불사인 49일 불공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사를 늦추고 있는 것"이라며 "49일 불공이 끝나는 4월 8일 이후 일부 승직자 인사 이동과 각 부 부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승 통리원장은 "진취적인 성향을 지닌 젊은 세대로 부장을 임명해 종단 개혁과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금강대 총장 26일 취임식

천태종 종립 금강대 제2대 김유혁 총장 취임식이 3월 26일 오전 11시 금강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취임식에는 설립재단인 금강불교학원 이사장 도용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각대 제14회 졸업식 개최

진각종은 3월 16일 서울 탑주심인당 무진설법전에서 진각대 제14회 졸업식 및 16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학인 정사(보덕심인당 주교) 등 11명의 정사와 전수, 처무가 학위를 받았으며, 현해 처무(통리원 전산실) 등 5명이 새로 입학했다. 진각대학장 혜정 정사는 "진각종의 발전을 자신의 역사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자기 수행은 물론 종단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대구지역 불교대학 개교

천태종은 3월 13일 대구지역 불자소양 교육과 포교인력 양성을 위한 대성불교대학을 개교했다. 첫 입학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을 비롯해 교육부장 용암 스님, 김수현 학장, 신입생 85명 등이 참석했다. 운덕 스님은 "들어올 때의 마음은 모두가 다르지만 나갈 때는 보살도를 향해가는 한 문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대성불교대학은 최첨단 멀티미디어시설 등을 갖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종단소식

지장암서 생전예수재

법륜종(총무원장 창법)은 3월 24일 논산 지장암에서 생전예수재 및 수륙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불사에는 전국 3백여 사찰에서 스님과 신도 3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법륜종은 운영이 일시중단된 인터넷 홈페이지(www.yumjoo.net)를 다시 개통했다. 새로 단장된 홈페이지에는 종단 소개 및 새소식, 불교 교리, 사찰 예절, 참여마당 등이 구비됐다.

창종 24주년 기념법회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창종 24주년을 맞아 3월 26일 서울 구로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종정 일공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법륜 스님 등 종단 간부와 중진 스님, 종도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도 간담회를 열어 향후 종단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회에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식도 열릴 예정이다.

태허 대종사 기념회 구성

관음종은 10월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개산조 태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할 기념사업회를 최근 구성하고, 집행위원장에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추대했다. 또 추진위원장에는 총무원 부원장 지섭 스님을 선임했으며, 포교원장 법성 스님, 교육원장 동영 스님 등 15명의 추진위원을 확정했다.

부모·미술 교육 강좌

진각복지재단 경산지부는 부모교육과 미술교육을 주제로 2004년도 교양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신교도 및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실용적인 여가선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다.

부모교육은 봄과 가을 학기로 나누어 실시된다. 봄학기에는 '현대의 적극적 부모역할훈련(Active Parenting Today : A.P.T.)'이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되며,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가을 학기에는 '자녀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지도법'(Myers Briggs Type Indicator : M.B.T.I.)이라는 주제로 시행된다. 강의는 영남대학교 교학대학원 강사이자 경산심인당 신교도인 정미숙씨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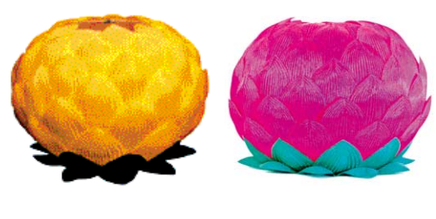
미술교육은 미술학 석사이자 바다아동미술학원장인 윤재원씨의 지도로 수채화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기간은 3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된다.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을 밝힙시다

마하몰에서 빠르고 편하게 연등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주문 전화 : 02)732-1520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월등 ▶ 사이즈 : 32cm X 32cm ▶ 색 상 : 노랑,연두,분홍,빨강,오렌지,흰색(영가),오색등



공단등 ▶ 지 름 : 23Cm(大)18cm(中)15cm(小) ▶ 색 상 : 황금,연분홍,진분홍,빨강,흰색(영가등)



종등&장등 ▶ 사이즈 : 39cm X 27cm, 높이 47cm 폭 25cm (장등-오색)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팔각조립등 ▶ 사이즈 : 높이26cm 폭28cm 입구11cm ▶ 색 상 : 핑크, 봉축노랑,오렌지,성도일 노랑, 봉축빨강, 성도일 빨강, 초록, 파랑

비단팔모접등 ▶ 사이즈 : 높이28cm 폭24cm 입구11cm ▶ 색 상 : 연분홍, 노랑, 연초록

비닐팔모접등 ▶ 사이즈 : 높이28cm폭 24cm입구11cm ▶ 색 상 : 핑크, 노랑, 연녹, 파랑



육각등 ▶ 사이즈 : 47cm X 25cm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다양한 연등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부처님이 '월급쟁이'이라면? ■일터 불자들의 위기관리·인간관계 등 '노하우'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인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딜레마와 곤혹스러운 여러 문제들과 자주 만난다. 이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지혜로운 인간관계 형성하기, 일터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 잡기. 일터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에 불자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조언해 주신 분들= 안홍부(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사무국장), 이숙표(동두천시청 삼보회 총무), 나경륜(순천시청 불자회 총무), 김진홍(대한민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 심재창(서울시지하철공사 법우회 총무), 권혁운(경희의료원 불자회장), 임승종(국립의료원 법우회 총무), 장영효(MBC 불교연구회장), 여오숙(선재마을의료회 간사), 윤천수(감정평가사 불자회 수석부회장), 우희종(서울대 교직원 불자모임 불이회 총무), 이만덕(사법연수원 34기 다르마법우회장), 정진호(우리은행 서울불자회장), 박우락(서울 성북승무소 법우회장)(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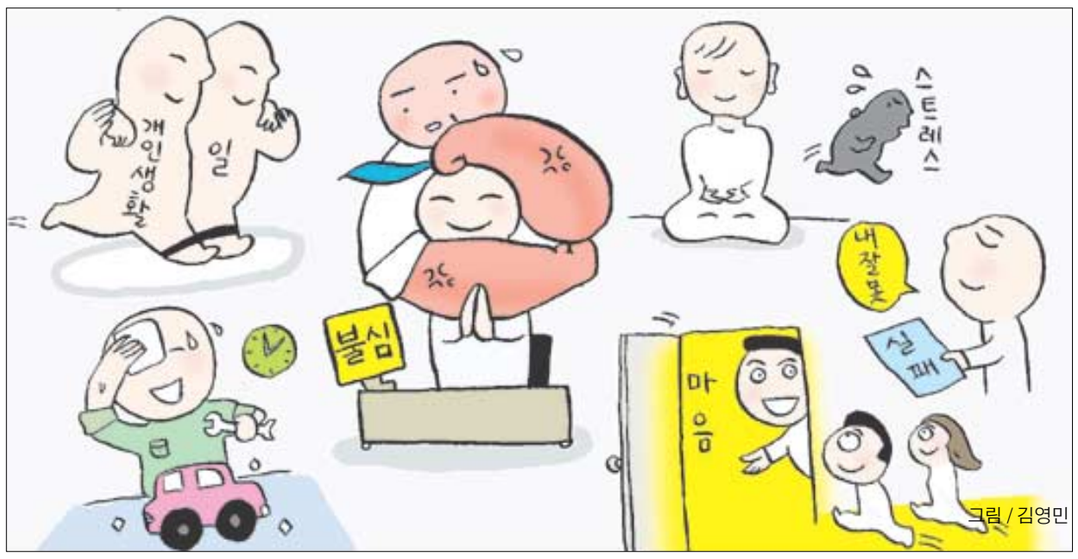


그림 / 김영민

이해·배려 그리고 최선… "즐거운 직장"

#좋은 인간관계, 하심(下心)에 있다= '비판은 보물지도'라는 말이 <법구경>에 나온다. 힘들고 깐깐한 상사를 운동선수의 '코치'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훌륭한 직원이 되고 싶으면, 엄격한 상사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 순천시청 불자회 나경륜 총무는 "상사의 지시에, 능력이 못 돼 호랑이 대신 고양이를 잡아올지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청 삼보회 이숙표 총무도 "상사의 말이 아무리 불만족스럽다 해도 일단 순종한다. 그러는 가운데 일의 순서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경희의료원 권혁운 회장은 "나름대로 경륜과 노하우를 가진 상사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기 생각에 허점은 없는지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직장에는 아무래도 '말' 때문에 겪는 고충이 크다. 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험담한다면?

국립의료원 법우회 임종승 총무는 "남이 자기를 나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혹시 내게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불자의 자세"라며 "화가 나겠지만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된 나의 태도에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 사람을 '선지식'으로 대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했다. MBC 불교연구회 장영효 회장은 "'무심(無心)'의 자세로 험담을 들어도 듣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또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서울대 교직원불자모임 불이회 총무 우희종 교수는 "말은 말을 낳는다. 묵빈 대처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다보면 흰 것은 흰대로, 검은 것은 검은 대로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가꿔가야 할까? '열린 마음' 하심(下心)에 길이 있었다. 나경륜 총무는 "'대화'를 통해 나 자신부터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했고, 사법연수원 34기 다르마법우회 이만덕 회장은 "임기응변식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독(毒)이다. 관계를 밝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원인은 바로 지나친 경쟁과 이기심"이라며 "남을 우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인간적 신뢰감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이 뜻대로 안될 때 '기도·정진'으로 극복
임기응변은 일도 사람도 못 얻어… 하심을
일과 사생활의 간격 중도정신으로 조율

#'인과법에는 한 치의 오차가 없다'=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과거의 내 행동의 결과이기에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이만덕 다르마법우회장),"덕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덕을 쌓는데 노력해야 한다"(심재창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총무),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할 것과 인연법에 순응하라"(여오숙 선재마을의료회 간사)고 주문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심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불자들은 스트레스와 변화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단연 '수행'에서 찾고 있다. 국립의료원 법우회 임종승 총무는 '기도와 정진'을 꼽았다. 나경륜 총무는 스트레스를 '마음의 병'으로 진단, 마음을 비우는 법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장영효 회장은 "스트레스는 욕망과 집착에서 생기는 만큼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불자들의 시간관리 비법도 공개됐다. '매사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이구동성이다. 감정평가사 불자회 윤천수 수석부회장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고, 정진호 우리은행 서울불자회장은 "매일매일 시간을 즐겁게 보람되게 쓰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밖에도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수행자처럼 일터와 가정에서 시간을 조율하는 불자가 돼야 한다"(김진홍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 "시간의 부림을 당하지 않고, 시간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권혁운 경희의료원 회장)는 조언도 있었다.

직장불자들이 임제 스님의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참되게 한다(隨處作主立處皆眞)'는 말씀을 일터에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일과 개인생활, '불교'에서 균형점을= 개인생활과 일과의 관계는 양 끝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하는 저울과도 같다. 하루 24시간을 일과 개인생활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는 일터불자들. 과연 이러한 생활에서 불교는 어떤 의미일까? 여오숙 간사는 "불교는 일과 개인생활 모두에게 자극제가 된다. 건강한 긴장감을 가져다준다"며 "중도의 가르침을 일터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홍부 사무국장도 "일터와 개인생활 모두는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실현하는 현장"이라며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중도의 지혜에서 깨달음을 찾으라"고 답했다.

감정평가사 불자회 윤천수 수석부회장은 "일과 개인생활은 바다와 물과 같은 관계다. 떼려야 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바다의 큰마음을 불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불이회 총무 우희종 교수도 "자리이타(自利利他)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일 할 때에는 일을, 개인생활에는 개인생활에 그저 충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서울 아산병원 법우회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는 불제자들입니다. 친목을 도모하고, 부처님의 감로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립은 지난 89년, 서울아산병원이 문을 열기 전에 했습니다. 당시 12명의 회원들이 모여 불자회 첫 닻을 올렸습니다.

초창기 때는 참으로 힘겨웠지요. 불교가 좋아 회원들이 뭉쳤지만, 불교에 대한 의문 덩어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신행생활이 계속 될수록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 우리 법우회는 서울 암사동 정향사 주지 지홍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면서 의문들이 조목조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법우회원들은 매주 한 차례 모여 법문도 들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총 10회에 걸쳐 반야심경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매월 두 차례 열린 강좌에서는 홍성복전 동방불교대 교수가 강의를 맡아. 회원은 물론 환자, 보호자 등이 불법의 정수인 반야심경을 배웠습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봉축법요식과 환자쾌유를 기원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홍 스님과 함께 짬이 날 때 마다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회원만 80여 명이 넘는 직장신행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법우회의 자랑거리는 뭐니뭐니 해도 직장 특성을 살린 무의촌 무료진료봉사 활동입니다. 올해로 벌써 6년째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병원 내 안내센터 및 인공신장실 등에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어 병원 교직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에 자원봉사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회원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병실 방문·음악회 개최로 환자 아픔 나눠
무의촌 무료진료봉사 신행의 최고 보람


서울 아산병원 법우회원들이 지난해 4월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에서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우리 불자회는 환자들을 위해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수행 중인 스님들을 진료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기 사찰순례를 계획해 회원들의 단합을 이루는 것은 물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 무료 순회진료 봉사 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올해도 병원불자연합회의 무료진료 행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며 신행활동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불제자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고, 아픈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의료인불자가 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식 총무(후생사업팀 과장)

AMS 2천만 불자의 대표 브랜드

2천만 불자 (주)AMS 주식 10주 갖기 운동

한국불교 태고종의 법인인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에서 금년 1월에 인수한 스마트카드 제조 및 숭모사업 업체인 코스닥 등록기업 ㈜AMS(www.ams.co.kr / 회장 이운산 총무원장, 대표이사 부회장 지현진, 대표이사 사장 정호윤)의 주식 10주 갖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태고원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AMS는 제16기 주주총회에서 전 임원진의 급여 20%를 자진 반납키로 결정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명실상부한 불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 최대주주인 지병규氏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당사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으며 임직원의 '우리사주 100주 갖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대주주 중심의 회사 경영을 막고 소액주주 중심의 투명한 회사 경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액주주들을 하나의 큰 대주주 개념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주식 담당자로 정하여 직접 매주 두 차례 유선상의 공식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대표이사들의 E-mail을 공개하여 수시로 이메일과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소액주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진 내부의 투명경영 실천과 함께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에서도 불교종단들과 협조하여 명실상부한 불교의 대표적 성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천만불자들에게 10주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남과 나를 함께 이롭게 한다'는 불교의 자리이타정신을 실물경제에 접목하여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남과 나를 함께 이롭게 하는 불교 기업
AMS™ www.ams.co.kr

1. 참여대상 : 전국 2천만 불교 신도
2. 참여방법 : 1) 코스닥시장 내 직접매입 2) AMS 유상증자 기간(3/29~31)내 청약 신청
3. 문 의 : 에이엠에스 업무지원팀 (02-780-2031)
4. 참 조 : 에이엠에스 홈페이지 (www.ams.co.kr)



겨울 월출산 소나무(54×19cm) 2004년.

자연의 경외감, 선현들의 기상 가득

■ 이호신 화백의 '소나무야 소나무야' 展 (3월 36일~4월 6일, 금호미술관)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애국가 2절의 가사중 일부다. 사계절 한결같은 모습의 '소나무'는 이 땅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산천과 주요경관의 표상이 돼왔다. 또 '소나무'는 우리민족의 씩씩한 기상과 곧은 절개, 지조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의 생활속에 정서적으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호신 화백이 10여년동안 '소나무'를 화두삼아 화첩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리는 '소나무야 소나무야' 展에 가면 우리 산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나무의 기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장흥 태고송', '금강산 금강송' ,'월송정의 밤' '다산초당 소나무' 등 51점이 벽에 걸린다.

인간 군상과 마찬가지로 이 화백의 화첩에 등장하는 '소나무'의 모습 또한 천차만별이다. 곧게 쭉 뻗은 소나무가 있는가하면, 칠순 노인의 등처럼 굽은 소나무, 모세혈관의 실핏줄처럼 얽히고 설킨 소나무도 있다.

대관령 휴양림의 솔숲에서 시작해 홍성, 안면도, 예천, 포항, 진주, 통영, 강진, 보성 등 소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 이 화백의 열정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소나무를 찾아내게 했다. 다소 거칠지만 대상의 본질을 직설적으로 포착하는 방식으로 소나무의 형상에 '우리 것'을 담아냈다.



화엄-소나무 속(27.1×19cm) 2003년.

10년 전국 돌며 작업, 형태 천태만상
'화엄-소나무 속' 등 51점 전시
대담하고 간결, 대상 직설적 포착
염색한지에 수묵 절묘한 색채 대비

이번 소나무 화첩기행을 위해 이 화백은 유난히 발품을 많이 팔았다. 바로 눈(雪) 때문이다. 특히 태풍 '매미'가 할퀴고 간 울진 소광리의 솔숲을 다시 찾았을 때는 폭설때문에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을 헤매기도 했다. 눈과의 악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월출산 도갑사 소나무를 찾았을 때도 비슷한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이 덕분에 눈꽃이 내려앉은 역동적인 '월출산 소나무'를 화폭에 담을 수 있었다. 화폭이 오히려 비좁은 인상을 줄 정도로 옆으로 길게 뻗은 가지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마저 느끼게 한다. 달빛에 비친 청도 운문사의 고송(古松) 아래서 합장 기도하는 스님의 모습을 그린 '운문월송(雲門月松)'은 고즈넉한 산사의 미를 은은하게 표현했다. 이외에도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소나무 속에서 쳐다본 파란 하늘을 화엄세계로 표현한 '화엄-소나무 속'은 파란색과 검은 수묵의 절묘한 색채 대비를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화백의 이번 작품들에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은 여백의 색깔을 쪽물, 치자, 홍화 등으로 자연 염색한 한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호신 화백은 "단일 주제로 다양한 내용과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해서 염색한지 위에 수묵기법으로 소나무의 생태와 조형미를 재발견해보려 했다"며 "소나무의 기개와 기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선현들과 묵객들이 왜 그토록 소나무를 노래하고 예찬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화백은 "소수서원과 대관령, 청도 운문사를 동행하며 훼손돼가는 소나무의 실상을 함께 고민하며 소나무에 대한 애정을 펼친 '솔바람 모임' 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02)720-5114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이호신 화백



'놀자', '서울가자' 무엇이 다를까?

2001년 개봉해 전국적으로 4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달마야 놀자'. 산사로 도망쳐 온 건달들과 스님들의 한바탕 소동을 따뜻한 웃음과 불교적 화두로 그려내 화제가 됐었다. '달마야 놀자'의 속편에 해당하는 '달마야 서울 가자'가 7월 개봉을 앞두고 요즘 부산 대각사와 서울 일대에서 한창 촬영 중이다.

'달마야 서울 가자'와 전편과의 차이점은 스님들과 건달들의 주무대가 바뀌었다는데 있다. 전편에서 건달들이 절로 찾아왔다면 이번에는 스님들이 빚에 넘어간 절을 지키기 위해 도시로 하산한다.

아름다운 산사가 배경이었던 1편과는 달리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그 속에 담긴 도시의 탐욕까지 드러내게 된다. 산속에 묻혀 지내던 소박한 스님들이 휴대폰, 지하철, 로또, 버스카드 등 속세의 물건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애를 먹는 해프닝들이 벌어진다.

달마야 서울가자 7월 개봉…촬영 한창
빚더미 절 지키려…지나친 상업성 우려



7월 개봉예정인 '달마야 서울가자'의 한 장면.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스님과 건달들 간의 각종 내기도 이번 '달마야…'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369 게임'을 비롯해 노래대결, 차력시범 등을 통해 청명(정진영) · 현각(이원종) · 대봉(이문식) 스님 캐릭터의 개성도 한껏 강화된다.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들도 영화의 감칠맛을 더한다. 영화 '황산벌'에서 관창역을 맡았던 양진우 씨가 꽃미남 스님인 무진 스님으로, 건달의 우두머리인 범식 역을 신현준 씨가 맡아 새롭게 등장한다.

하지만 '달마야…'에 대해 불교계 일각에서는 "스님들이 빚더미에 앉은 절을 지키려고 건달과 싸우다니 지나치게 상업적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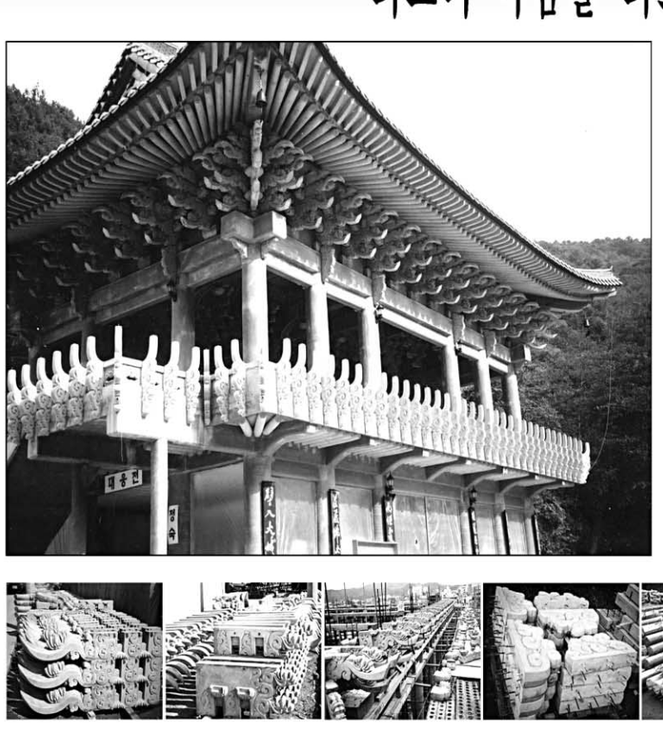
이에 대해 배급사 씨네월드의 마케팅실 김지나 씨는 "제작진들도 이런 불교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계종 총무원과 스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편 못지않게 불교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시멘트

법당, 요사채, 고건축자재 판매단행

최고의 작품을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법당건축 스님께서 직접 직영하실수 있습니다.



서가래에서 포작까지

자재일체판매
설계에서 회사 시공까지
기술지원 완공까지







고건축설계 : 예반그룹

생산품목 : 서가래, 부연, 초익공, 이익공, 계각자, 외삼포작, 외삼포/ 내오포작, 외오포/내칠포작 등 법당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특징
- 시공에서 완공까지 책임기술지원
- 화재 벗어날수 있습니다.
- 건축에 필요한 부수자재 대여
- 최고의 작품으로 간단한 조립시공

한국불교건축자재종합전시관

본사및공장 : 충남 천안시 안서동 178-1
대표전화 : 041)554-8009, FAX: 041)567-2600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일람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 화청, 바라, 나비무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입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귀 휴양할분

- 공기맑고 물 좋은 산간벽지
- 경북 八公山 북쪽 명당길지
- 향토 온돌방 1인 1실
- 불사에 도움주실분 환영
- 공양주 급구(보수 50만원)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 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4. 5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명리학 강좌

기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용신, 운세,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4. 7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2004. 4. 9 (주 · 야간반 : 1개월 완성, 개인지도 가능)

정통풍수지리 강좌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개강 : 2004. 4. 9 (주 · 야간반 : 2개월 완성)

특전 (1) 월요일~ 일요일까지 중복수강이 가능(재수강시 수강료 없음) (2) 저자 직강으로 책임지도 (3) 교재무료제공 (4) 주말반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암·중풍 기적의치료

견성한 스님이 중국의 고대치료술인 포기회생술과 천도의식으로 **말기암, 중풍** 환자에게 새생명을 드립니다

무료상담환영
031)674-8880 청룡사
017-217-2219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탄우 합장
02)939-3327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대구, 부산권
염불해 드립니다
011-9596-4338
무유스님

토굴이나 기도정진 할 수 있는 촌집구합니다
▷부산, 경남권
010-9944-8777

사찰 버스기사와 자가용 기사를 모십니다
▷ 안양, 안산
018-219-4230

50이 넘은 독신(미혼)입니다
사찰에서 궂은일이나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종 면허 소지
011-262-6861

기도스님(비구니)을 모십니다
▷ 경기도내(시내산)
010-9829-3939

부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7-260-3310

비구니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 서울 진관내동
02)387-3216
011-9782-3216

남자 행자모집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동해사
033)672-2900

자연치유 의학 연구센터
백초대체의학 수기연구소

"지장보살 원력입은"

※ 佛心의氣로
신비의 원력 함께 나누는 삶의 원력!!

※ 「당신도 건강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분
· 불면증, 우울증
· 생리통, 생리불순
· 늘 피곤하면서 의욕이 없는 분
· 허리, 목DISK로 고생하는 분 (초기디스크)
· 만성 변비, 요실금, 소화장애
· 좌골신경통, 중풍 예방관리
· 어린이 스트레스 특별관리

신비의氣

※ 수강상담
스님이나 불자님들 특별지도 함
법연거사 합장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예약 02-733-0550
상담 011-237-0550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광주
031)719-0408~9

비구니 기도 스님 구합니다
▷ 연령 20~40세
051)804-1164
018-801-2586

통영시 사량면 사찰 불사 동참할 인연을 찾습니다
인수도 가능함 상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하십시요
017-229-8652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경북 칠곡군
011-529-0008
054)975-0008

"불사에 도움주실 신심 돈독한 불자님 모심.
소승은 4대가 스님집안의 스님으로서 5살에 동진출가한 승입니다.
이제 진정한 불국토를 위해 전력을 쏟고져합니다.
평생 절집에 사시면서 불사에 도움을 주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소승의수행이력 : 선방15안거,미얀마의윗빠사나선원4년수행,선체조,선요가, 불가무슬30년 수행.
※현직 중의 한의사이며 각종난치병치료경험이 17년입니다.
중풍,암,무릎관절염,오십견,디스크,각종신병등 어떤 병도 현장에서 환자가 바로 영험를 경험하게 합니다.
※35년의 기공수련으로 어떤 사람도 생년월일 없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예언함.
중풍, 암, 각종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불교수행자 분들께 무보시로 치료해드립니다.

도법합장 011-883-2299

종무원 구함

▷유명기도처
▷숙식가능한 남,여
▷급료 50만원 이상
▷기도, 염불스님 모심
▷八公山갓바위 약사암 총무
011-537-5012

보살행을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1.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혼자사시는 보살님
2. 정법수행으로 신심이 돈독하고
3. 나머지 인생을 보살행 원력을 가지고 계신분
4. 본인(소암)의 공무원 연금과 양평의 조그만 농장과 내가 가진 모든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분
011)9458-4024

모 집

부전스님 1분, 처사 1분
법당화주보살 1분
매점(기념품)보살 1분
공양주 1분
▷나이 : 30~50세
054)383-8032

종무소직원을 구합니다
▷숙식제공
▷천안아산부근은출퇴근가능함
▷컴퓨터와 운전에능숙한분
▷월일백만원
▷25~50세까지 가능함
041)567-2841

거미줄 처럼 얼키고 짜여진 인과응보의 중생삶을 어찌알고 청정히 수행하지 않으리오 깊은골 홀로 청정 수행하시는 노스님 시봉할 **행자승** 원합니다 또는 산골 빈집이나 조용한 외딴 **촌집** 구함
055)573-9772

토굴 작은암자 외딴촌집
(경남지역)
보시해 주실분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1-9416-2261

포교당 하실분 모십니다
● 서울 상계동
011-236-0899
02)952-7347

헌 목재 (법당 재목) 구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당 해체한 재목이나 불사 준비해 두셨던 재목 구합니다
● 약 30평 불사예정
011-234-4801

탈 종 공 고

● 사찰명: 염창사 ● 주지: 원공
● 주소: 전북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214-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용운사 ● 주지: 원도
● 주소: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524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눈

http://www.eye88.com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 안구건조, 충혈, 피로, 눈꼽, 눈물
-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이상
- 당뇨 등 다른질병으로 시력저하
- 눈 수술전후, 눈의 모든 불편증세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32714
KIST KDAR03G-3K 식약청 2106909099



눈밝은 세상 (02)2237-8004

運睛谷堂 목당易학연구원

작궁윤통 명합세변
(개인지도)
☎ 969-3169 (청량리 우체국)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2201-3333

계룡산 정통좌경 법사 수강생 모집

지도과목
■ 기초반 : 고장(장단), 중급반 : 경문, 청
■ 고급반 : 설경, 장구, 민요, 판소리 및 불가의식 등
■ 오전반 및 오후반 00명(3개월과정 월회비 30만원)

◎ 주최: 대한불교 법화종 선명사 055)287-5500
경남창원시 내동 456-16 공단상가 4층 FAX 055-286-6365
◎ 주관: 지산국악예술학당(창원수련장) 055)264-8269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운세(1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 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유료노인전문요양원 '호암마을' 입소안내

치매 중풍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셔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천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서성운

Tel.02)385-8205 / Fax.02)385-8207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H · P 011-741-0867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반복

보장 받고 보시하고 '기쁨 두배'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동참하세요"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로고.



조계종 자비의보험금 나눔운동 본부장인 보정스님(총무원 재무부장 · 사진 맨오른쪽)과 사무총장 각원스님(재무국장)이 효과적인 캠페인 추진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동참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보장 받고 교계의 숙원인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위한 보시금으로 기부되니까요"

교계 모 회사의 K부장은 조계종이 노스님 기거센터 건립을 위해 펼치고 있는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동참했다.

K부장은 계약이 만료된 자동차 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자동차 보험과 새로 종신보험을 들면서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의 10%를 종단에 기부하는 약정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K부장은 사망시 부인과 자녀들이 90%를 수령하고 10%는 종단에 자동으로 기부된다. 그동안 승려노후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교계에서 여러번 스님들의 금융사고를 목격해온 K부장은 보험금중 일부가 사후에 종단의 승려노후복지 및 불교복지단체 후원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보시하는 참 불자의 길을 갈 것 같아 마음이 흡족하다.

현재 스님들의 노후복지 수준은 다른 종교 성직자들과 비교해 매우 낮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센터 이용하 부연구위원이

사망 보험금 일부 기부
스님 노후복지기금 활용

<연금포럼 제12호>에 기고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정책방향'에서 성직자의 노후 준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불교의 경우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9%였다. 특히 각 종교의 종파 및 교파별 응답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체계적인 노후보장제도가 없는 조계종이 오히려 61.4%로 가장 높았다.

1만2천명의 조계종 스님중 9백여명이 원로스님인 상황에서 승려노후복지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이 항상 걸림돌로 작용해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에 법장 스님이 취임하면서 임기중 중점사업으로 승려노후복지제도 구현을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법장 스님은 "조계종 원로스님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종단안정과 화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근 발족한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본부장 보정 스님, 조계종 재무부장)는 그런만큼 교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는 △의식주 및 건강 노후자금을 지원하는 승려노후복지제도 마련 △노스님 기거센터 건립 △스님 수발보험 보급 △불교사회단체 현실적 지원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와 포교차원에서 추진되는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은 2005년부터 노스님 기거센터가 2개 교구본사에 시범적으로 건립된다. 이후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전국 교구본사에 노스님 기거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노스님 기거센터에는 법당과 요사체, 진료실, 식당, 체력실, 목욕탕등의 제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실손보상과 제반 의료지원이 가능한 스님 전용 보험을 개발해 2005년부터 스님들의 의무가입을 실시한 뒤 65세 이후 매월 활동 보시금을 지급하고, 공적기금을 조성해 2007년부터 종합수발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스님들과 불자들이 조계종 자비의 보험나눔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스님들은 의료, 노후자금이 제공되는 승려수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화재발생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찰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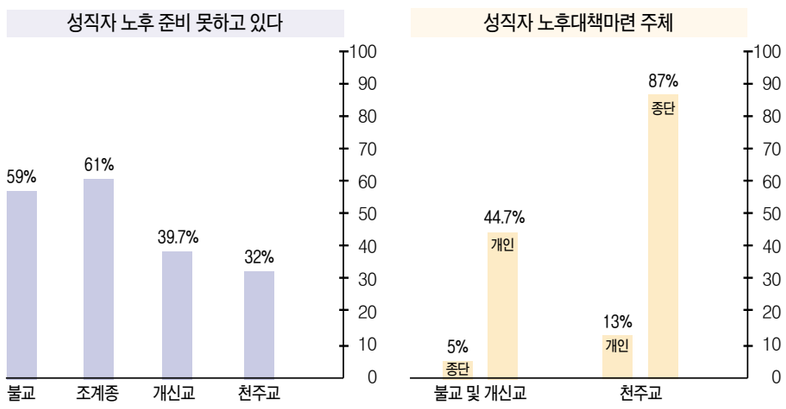
불자들도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가입시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에 가입하면 별도의 부담없이 자비실천이 가능해진다.

또 스님과 신도들이 공히 사망보험금 보시운동에도 동참이 가능하다. 종신보험, 스님 수발보험, 정기보험, 보시보험등에 사망보험금이 가능하도록 컨설팅하여 사망보험금의 일정액을 종단에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망보험금의 보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금조성이 가능해 사회복지를 위한 운영비로 활용된다.

이같은 보험금 기부운동은 최근 각종교를 비롯해 사회복지단체의 새로운 기부운동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의 경우 2년간 6천명이 1% 기부로 2800억의 재원을 마련했다.

조계종 김영주 재무과장은 "스님들의 노후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복지기금 마련이 시급하다. 종단이 분담금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창출이 필요하다"며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찰의 경우 종무소에 부스를 상설 운영하고, 신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 사찰의 홍보를 통한 종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02) 2011-1750. 2003-5793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국민연금 연구센터 발표 자료, 2004>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이렇게 운영됩니다

♥ 누가 진행하나

조계종은 총무원 내에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 사무실을 개설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보정 스님을 본부장으로 재무국장 각원 스님을 사무총장, 재무과장 김영주씨가 실무와 재정, 기획홍보는 케이비엘피 김원용이사, 사회복지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과장이 담당하고 있다.

또 전국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신도회장을 자문단으로 구성한 뒤, 중앙신도회, 사회복지단체, 언론사, 신행단체, 불교계 기업을 후원기관으로 선정중이다.

보험업무는 (주)케이비엘피가 맡아 보험개발과 판매, 스님 신도들에 대한 복지증진, 자금관리서비스를 한다.

♥ 어떻게 동참하나

승려수발 건강보험=스님들의 수행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 노후자금, 주거환경을 제공. 건강보험 가입시 노스님 기거센터 입주권도 제공된다.

사찰종합보험=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화재발생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현재 1억원이 보상되면서도 고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존 화재보험과 차별화된다. 조계종 소속 본말사와 조계종 사회복지시설 및 종립학교가 가입대상이다.

자동차보험=자비실천의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보험사와 제휴하여 불교계 종무기관과 산하기관 협력기관 임직원과 일반신도들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사망보험금 보시운동=신도들의 경우 종신보험, 스님 수발보험, 정기보험, 보시 보험등에 사망보험금이 가능하도록 컨설팅하여 사망보험금을 종단에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보험금의 보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금조성이 가능해 사회복지를 위한 운영비로 활용된다.

♥ 조계종 총무원의 정책지원은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은 우수 참여 본사를 대상으로 업무평가를 실시한 뒤, 우선순위로 노스님 기거센터를 건립해줄 방침이다. 또 사망보험금중 일부에 대해 불사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참여 스님들에게는 노스님 기거센터 입주권을 부여하고, 우수 참여스님에게는 종단차원의 행정적 혜택이 부여된다.

▌도와줄께요

기업은행 노조, 나눔의 집 지원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3월 18일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 약정식을 맺고, 이번달 25일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의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할 후원금은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올 3월부터 노동조합회원들이 용돈을 절약해 조성된 것이다.

▌도와주세요

'사랑의 후원물품 기다립니다'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후원물품 나누기' 행사를 벌인다. 후원 내용은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경로식당에 사용될 주방용품, 장애아동 맑은소리터 교실에서 이용될 동화책 등이다. (051)264-9033

▌결연신청

'보고난 불서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서울 서초2동 한동로씨가 불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실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불서를 보고싶으나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02)3473-1364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동참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이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다음은 안양 본원을 비롯한 각 지역 한마음선원 1차 동참내역이다.

경기도 안양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원스님) 저금통- 300개 스티커- 700장

부산광역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주지 혜도스님) 저금통- 170개 스티커- 200장

광주광역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주지 혜월스님) 저금통- 175개 스티커- 200장

대구광역시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주지 혜계스님) 저금통- 100개 스티커- 100장

경북 문경시 한마음선원 문경지원(주지 청해스님) 저금통-50개 스티커-100개

● 나눔의 가게

서울 충정로 음식점
우물뚝배기 02-312-6636
부산 범일동 승복양장지 전문도매상
대양상회 051-646-5757
전주 효자동 각종 불서 도소매점
책읽는 마을 063-231-7722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23만여명의 저소득 장애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합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 '우리이웃' 캠페인과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반복

협찬 : (주)KBLP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PCA생명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전남	● 위치 : 경북
● 법당 : 18평	● 법당 : 20평	● 법당 : 60평
● 요사 : 20평	● 요사 : 45평	● 요사 : 150평
● 부지 : 500평	● 부지 : 100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5천(전세)	● 가액 : 3억	● 가액 : 5억(융자가능)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배운사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10만원
● 가액 : 2억
033)766-005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불로동
● 평수: 60평
● 보증금 : 2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 1800만원
054)372-8734
011-9382-4782
011-9586-5727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1동은 건물등기 돼있음
● 즉시 법회 가능
033)644-5797

도심속 최고 사찰 급 안내

● 위치 : 전주시 전주역 전북대병원 전북대부근
●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대지 8×6미터 코너절 116평 건평 120평 대웅전 21평
● 후불순금탱화조성입체 120평 신중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칠성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 부처님순금 4자반 삼신불 부처님 법단 3단 홍송조각 연꽃 16자
● 자신있게 갖춘도량 매매금 총 4억8천중 준비금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좋은조건
● 매월 일백만원나옴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최고도량
● 절앞 4월초파일행사등 90% 자세한 이야기는 답사후 의논 주인직거래
010-3166-8483 ※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소도시 산아래	● 철학최고자리
● 대지 : 130평	● 서울면적 35평
● 법당 : 15평	● 2천만원에 월세 50만
● 요사 : 20평	● 경북 소도시 사찰
● 가액 : 1억3천(급매)	● 가액 : 1억 3천만원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특별조건: 납골탑(100기) 시설 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415-6831

포교당 최적지 안내

● 위치: 서울 종로구 교북동 3층 40평 독립문역에서 1분거리, 버스정류장 앞
● 법당1, 종무소1, 방1, 주방1, 화장실
● 삼존불, 후불, 신중단, 관음, 단군탱화, 영단
● 가액: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시설비는 차후 수개월 후 지불하여도 됨)
011-9124-6651
전덕수 02)2236-47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서울 1시간 거리
● 대지 527평, 건평 총 113평
● 법당 27평, 사무실, 요사 , 주방, 고시원 운영 방17개
● 정남향, 교통편리, 발전전망 좋음
● 가액: 2억9500만원
031)643-9051
019-375-9051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중앙동 대도로변
● 4층 건물중 5층, 38평
● 법당, 친견실, 스님방
● 몸만 오시면 됨, 명리에 능한신분, 역학가능하신 분 유리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일신상 (급)안내
031)795-7579
011)663-2754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20분거리
● 대지 임야 포함 611평
건물 법당 27평, 신신각 2.7평, 요사채 17.9평, 창고 3동
● 특징: 기도영험도량 특히 아기임신
2~3년생 과일나무, 오가피, 산초, 감 등 17종류 260두
● 절마당까지 차량진입
● 타지역 이사관계로 처분
● 가액: 6500만원
011-522-939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 위치 : 경기도 양평 용문
● 부지 : 500평	● 부지 : 500평
● 법당 : 20평	● 법당 : 15평
● 요사 : 40평	● 요사 : 25평
● 양도가 : 7천만원	● 양도가 : 6,500만원
	● 산세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산내면 감산리
● 법당 20평, 요사채 10평 주방 10평
● 미륵석불
● 가액: 1억3천만원
054)751-5530
018-523-9900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1천만원 (융자 4천포함)
010-6633-5670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55평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 가액: 5억3천만원(대출가능)
016-367-211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죽장 하옥
● 경내에 300~400년 묵은 고목나무와 앞에는 깨끗한 냇물이 잘어울림
● 대지 205평, 통나무 요사 35평
● 절 10평, 전 500평 대지붙어 있음, 신축건물
● 가액 1억 5천만원
054)262-6673
011-9302-0343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 10km
● 대지: 150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 산신각 5평, 요사채 28평
● 시설 완벽하게 갖췄음
● 가액: 1억3천만원(답사후절충)
043)733-8186
011-9405-8186

사찰(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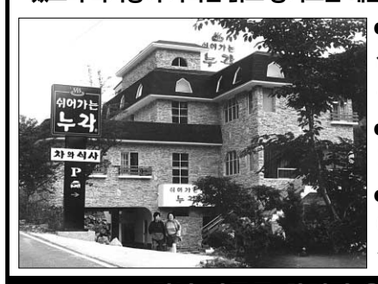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250평 등기, 임야 100평
● 건물 : 법당 25평, 요사채 스라브 30평, 스라브 20평(등기필), 산신각, 용왕당(천연약수)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 정남향으로 사찰뒤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마을 어귀에 있음)
● 몸만 오시면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보시하고저 함
● 가액 : 1억3천3백만원(은행 2천 2백)
011-9017-544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최고요지
● 평수 : 50평
● 가액 : 7천만원(시설비포함) 월 50만원
● 특징 : 50평 전체 국내최초로 게르늄과 맥반석 온돌방으로 이루어져 원적외선의 기를 받을 수 있음
051)248-2477

모텔 "쉬어가는 누각"
해외 이주 관계로 매매 원합니다.

● 지리산 자락 화개장터 쌍계사 부근에 위치한 "쉬어가는 누각"은 4계절 영업하는 아름다운 계곡 화개천변에 있습니다.
● 쌍계사, 칠불사, 보리암, 화엄사, 송광사가 5분 ~ 1시간 거리에 있으며 녹차향이 가득한 맑고 향기로운 예쁜집 입니다.



● 사찰의 복지시설이나 신행단체의 수련회장소로도 적합합니다.
● 신행회 모임이나 가족여행 예약 받습니다.
● 화개 자연산 녹차(관아 수제차) 생산 판매 합니다.

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22
전화 : 055)884-0151~2

사찰안내

● 위치 : 천안 논산 고속도로 탄천 IC 10분거리
● 부지 : 1800(대지478평)
● 법당 : 25평(관세음보살, 지장보살,아미타불)
● 황토방 : 32평 ● 산수수려함
● 가액 : 3억원
041)855-1802
011)9643-7897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38-7번지 (용인마트 옆) 대로변 옆 용인마트 옆 건물 최요적지
● 평수 42평(방3개, 거실, 법당)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200만원(시설완벽)
● 스님 건강상 급하게 양도
031)336-9149
011-482-9149

좋은인연을 찾습니다

1. 백두대간 남단 산넘어 남해바다가 보이는 곳
2. 앞산 천왕봉, 장군봉, 천황산 자락 봉황이 알을 품은 300만평 가운데 여의주 명당
3. 겨울에 하늘의 왕자가 머물며 아침 노을이 좋은 남향터
4. 대지 300여평(종교부지) 도로전답 1000여평
5. 태백산 적송으로 지은 대웅전 30평 요사채 30여평 기타
6. 참선 수행처 내지 휴양지로 최적
7. 가액: 자신 있는분 (10) 절충가능
8. 연락처: 055-674-2202
010-8019-4862 / 010-3913-4863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마장동 하늘이 열린 동내
● 전: 326평
● 마을하고 떨어져 있고 산에있는 밭
● 앞산이 일자봉 전망수려
● 토굴터로 최적합
● 가액: 3500만원
055)934-0155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5층건물중 2층 25평
● 가액: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837-4546

사찰터 최적지

● 위치 : 국도 7호선과 위덕대학교(진각종) 캠퍼스 사이에 위치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43번지)
● 자연 녹지 9,000평
● 가액 : 평당 10만원(절충 가능)
011)9366-021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교통요지 마을인접 포교당으로 최적
● 대지: 약 100평 사용부지 200평이상
● 목조 임법당, 방2개, 입실주방, 욕실, 창고
● 불사가능도량, 집기일체포함
● 가액 8500만원
011-879-479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영
● 대지: 150평
● 법당: 12평
● 요사채: 25평
● 가액: 9천5백만원
016-652-7547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아파트 밀집지역
● 대로변. 주차시설 최고
● 30평. 1층.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시설 A급
● 왕쑥뜸시설. 닥트완비. 마당도 있음
011-817-402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9848-3178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전기. 전화 유)
● 전 1991평 (불사가능 터로 터 정리됨)
● 가액 5800만원
054)672-7619

사찰안내

● 위치: 충남 공주 탄천면 국동리
● 부지: 1800평 대지: 478평 ● 황토방: 32평
● 법당: 25평(관세음보살, 지장불, 아미타불)
● 특징: 산수 수려함, 천안-논산고속도로 탄천 IC 10분거리
● 가액: 3억원
041)855-1802
011-9643-7897

토 굴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내현마을
● 대지 135평
● 시골집 방2칸, 불때는 부엌
● 가액: 1200만원
054)437-0150

토굴안내 (사찰로도 가능)

● 위치: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옥계계곡 상류
● 대지 : 400평 ● 건평 : 30평
● 전 : 1400평
● 가액: 1억원(절충가능)
054)734-5190
011-9581-9608

사찰 안내

● 위치: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시설완비 (상담 후 결정)
031)826-0376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 평수 : 약2900평 (전답 및 대지)
● 납골터 및 사찰요지
● 가액: 3억5000만원 (절충가능)
054)276-3851
011-415-565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유가면 4km 산속 2층건물
● 2층 법당 23평, 종무실 7평,
● 요사채 1층 큰방1, 방2개 식당1, 황토방 1동 2칸짜리 사용가능
● 가액: 1억2천5백만원
053)616-0004
011-9394-1215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식물원 입구
● 평수 : 40평, 방2개,
● 주방, 화장실
● 전세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598-8673

사찰터안내

● 위치: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 부지: 1500평(대지 600평, 전 200평, 임야 550평, 도로 150평)
● 현재 건물 3동(창고1, 주택1, 근린생활시설사용1)
● 모든시설 완벽히 되어 있음
● 좌청룡, 우백호로 배면임수의 전형적인 명당자리 ● 가액 5억
055)573-7525/011-858-8747
직접 오셔서 보시고 결정바랍니다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온천시장내
● 총 65평(3층 건물중 1,2층) 1층 공양실 2층 법당 45평(종무실, 주지실)
● 호불 500불, 인등 500, 닷집 단청필
●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4500만원 (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 부지 : 약 600평 건물 : 90평(1층70평 법당 20평 포함, 2층 20평)
● 가액: 2억3천만원(절충가능) 덕산온천 옆 포교요지 교통편리
041)337-634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대로변 버스정류소 앞
● 4층건물중 4층(45평)
● 임법당, 방3개, 욕실2개,
● 화장실 2개, 배란다, 옥상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상담후결정
011-9342-979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구산전철역 3분거리
● 평수 : 37평
● 청동 삼존불 새로 조성, 후불탱화 신중탱화 새로 조성
● 방2, 욕실1, 주차장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1-9763-2160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오거리
● 평수: 50평, 빌딩 3층
● 후원 1동, 방 2개, 화장실, 엘리베어터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6-787-940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읍 중심에서 5분내거리
● 법당 15평, 산신각 1.5평,
● 칠성각 4평, 요사채 2동 대지 116평
●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찰비품일체를 같이 양도함 몸만오면 운영할 수 있음
● 가액: 7500만원(절충가)
011-9227-438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시내10분거리
● 평수 : 30평
● 큰방2, 주방1, 독채
● 전세 1천300만원, 월 40만원
● 시설완벽 즉시입주가능
055)386-2376
017-563-4602

암 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성군내
● 대지: 258mm²
● 건물 2동 청정하고 깊은 산속 초가상간 암자
● 전기 없음
● 가액: 상담 후 결정
053)611-9875~6
017-208-555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망미2동, 약천사 포교원
● 보증금 6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900만원
016-614-8730
051)754-1055
0130-274-8730

사찰 및 부지안내

● 충청권 요지에 있는 전통양식사찰
● 경부, 중부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사정원활
●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명당자리임
● 투자적요소를 동시 만족시킬 수 있는 충청권요지
● 가액: 10억원
●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016-9558-030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대로변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23평, 법당, 방1, 시설A급
● 3층건물에 3층
● 철학관으로도 적합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천7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최요지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3층 약30평 삼존불 후불 지장단 신중단
● 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2000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철학관으로도 적합
● 사정상 '급' 양도 (인연되는 스님께는 최저렴양도)
011-202-2205

사찰부지안내

● 위치: 서산시 해미 IC 5분거리
● 부지: 1천6백평중 6백평 허가득 토목공사 완료, 조경 완료
● 특징: 가야산 좌청룡 우백호 터에 산세수려
● 수도권 전체로 학교버스 운행되어 신도분들 언제나 차없이도 왕복가능
● 가까운 거리에 덕산 온천 소재
● 가액: 평당 14만원
017-341-9967
017-341-6969

일주문



도선사 국태민안법회서 법문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은 3월 30일 서울 도선사가 주최한 '국태민안 기원 대법회'에 초청돼 법문을 한다. (02)993-3161



정기학술발표회 개최

한국선학회장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3월 20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덕암세미나실에서 '3월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봉축위 26일 결성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성오 스님은 3월 26일 오후 6시 30분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불기2548년도 부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결성 법회를 봉행한다.



광주불교대학 6대 학장에 취임

광주 향림사 주지 혜향 스님은 3월 13일 향림사 불교회관에서 열린 제14기 입학식에서 제6대 광주불교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삼성각 탱화 봉안 법회

나주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은 3월 30일 최근 불사를 회향한 미륵사 삼성각 탱화 봉안을 기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한다. (061)331-3436



양산사암련 3대 회장에

양산 광천사 주지 무호 스님은 3월 10일 양산시 통도관광호텔에서 양산불교사암연합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일전통문화비교론' 출판기념회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홍윤식 교장은 3월 19일 서울 타워호텔 신관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고희 기념 <한일전통문화비교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국민훈장 석류장 서훈

부산 범어사 박수관 신도회장은 청소년 육성 및 교육부분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3월 18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창립 18주년 기념법회 봉행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 정법회 신상용 회장은 3월 18일 수성구 운불련 법당에서 창립 18주년 및 호출개시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립 5주년 기념법회

우리은행 서울불자회 이탁수 회장(전 국금융단불자연합회장)은 3월 20일 종로 회현동 은행본점 대강당에서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전법 서원 되살려 재도약 할 것"

부산불교실업인회 8대 회장 김윤환 씨

"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님들의 신심을 더욱 높이는 한편 불교실업인회의 대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월 17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부산불교실업인회 제 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윤환(55 · 현암 · 사진) 영광도서 대표는 '창립 정신 되살리기'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김회장은 "불법 홍포를 서원하며 창립 초창기 부산불교방송 유치, 불교병원 건립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창립 정신을 되살려 불자 실업인들이 재도약하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 선결 요건을 내실 다지기로 보고, 활동이 없는 초창기 회원들의 참여를 다시 이끌어내는 한편, 신규 회원 배가 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또 "숙원사업이었던 '부산불교실업인회관' 건립이 성사되었으니 회관을 주춧돌로 삼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서점 경영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경영자로서의 자질도 인정받아 온 김회장은 "150여명의 회원과 회원 부인으로 구성된 마야부인회와 함께 수행와 포교의 두 바퀴를 여법하게 굴리기 위해 정기법회, 사찰 순례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스승의 뜻이어 '큰불교' 이끌자"

탄허불교문화재단 취임 · 승진 축하법회



(앞줄 왼쪽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주)쌍용양회 명호근 대표이사 부회장,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국민대 김문환 총장, 김정옥 명성여고 교장 내정자,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 사진=고영배 기자

"한암, 탄허 스님 등으로 이어지는 오대산의 큰 기운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3월 15일 서울 진관사, 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창열 · 법조불교인회장)이 연이은 탄허 문도회 스님과 재단 이사진의 승진과 취임을 축하하는 법회에서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주인공들은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현해 스님(탄허대종사 문도회주)을 비롯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국민대학교 총장에 선임된 김문환 교수(탄허재단 감사),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서초반야회장), (주)쌍용양회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한 명호근 이사(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명예회장), 명성여고 교장에 내정된 김정옥 이사 등 6명. 축하차 참석한 탄허문도회 스님 및 재단 인사 60여 명은 "탄허문중에 겹경사가 났다"며 뿌듯해하며 "'큰불교'를 이끄는 불제자가 되자"고 입을 모았다. **김철우 기자**

"학교발전 · 자기수행이 공동 화두"

금강대 교직원불자회 권탄준 초대회장



"천태종 종립학교 교직원으로 있으면서도 바쁜 업무에 쫓기다보면 각종 신행, 수행, 봉사활동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한 불자가 되기 위한 자기 수행이 필요합니다. 금강대 교직원불자회의 향후 활동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천태종립 금강대 교직원불자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권탄준 교수(사진)는 3월 17일 열린 창립법회에서 교직원들의 발심이 불자회 활동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종립학교이기는 하지만 불자회 가입을 의무조항으로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교수 4명을 제외한 전 직원 54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회원들이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교직원불자회 활동이 학교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천태종 종립대학인 금강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라는 자긍심을 키우고 '소수 정예 일류' 대학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체 교직원을 대신해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금강대 교직원불자회는 회원들의 신행과 수행 지도를 담당할 지도법사로 세운 스님(금강대 총무처장)을 추대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교보생명 환경문화상 선정

수경 스님 · 문규현 신부





새만금 방조제 건설 반대를 위해 지난해 65일간 '삼보일배(三步一拜)'를 벌인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사진 왼쪽)과 문규현 신부가 3월 16일,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제6회 교보생명 환경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3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무료법률상담 강화로 보살행 실천

사법연수원 35기 다르마법우회 이성규 회장

"올 7 · 8월에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펼칩니다. 현재 조계사와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2곳에만 제한된 봉사기관을 올해부터는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법연수원 35기 다르마 법우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성규(39 · 공덕 · 사진) 씨는 3월 17일 일산 정혜사에서 봉행한 첫 법회에서 향후 법우회 운영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봉사활동 기관을 다양화하고 활동시간도 늘려, 보살행을 몸으로 실천하는 예비 법조인 불자회로 만들겠습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불교기초교리 공부, 참선 실수 등 회원들의 불교 관심에 따라 소모임 결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문화재청장에 노태섭 씨 승진 임명



정부는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문화재청 청장에 노태섭 현 청장(사진)을 재임용, 3월 15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노태섭 청장은 행시 16회 출신으로 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 · 예술국장 등을 두루 거치고, 2001년 4월 문화재청장에 임명됐다.

오유진 기자

홍성흔 · 이은경 · 이세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홍성흔



이은경



이세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는 신임 홍보대사에 탤런트 이세은(골수기증 부문)과 프로야구 선수 홍성흔(헌혈 부문), 전 국가대표 양궁선수 이은경(헌혈 부문) 등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의 위촉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김운회 주교,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31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02)734-8050 **김철우 기자**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누구든지 생사해탈에 이르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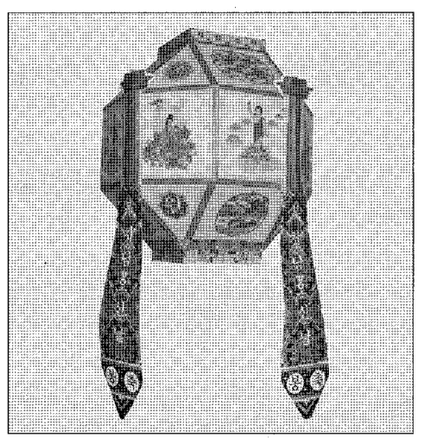
견성하기는 계란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쉽다.
밑을 깨트려 세우는데 서지않을 까닭이 있는가
제방을 돌며 이뭐꼬를 삼십년을 불러도 이뭐꼬 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그 이뭐꼬 찾는 놈이 자성임을 퍼뜩 간파하여 눈치를 채면 공부를 마치는 것이다.
중생심과 보리심은 둘이 아니어서 내려놓거나 버릴것이 없다.
다만 평상심인 중심에 줄을 서느냐 생각에 기울어진 변두리에 줄을 서느냐일 뿐이다.

그러니 6일이면 과하고 3일이면 못할 것도 없다.

무아에 줄을선 수행자여!
생사해탈과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직도 무아체득을 못했기 때문이고 무아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감정과 욕망에 끌려다니기때문이다.
감정과 욕망 분별심은 자성청정심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
평상심이 기울면 감정과 분별심이요 감정과 분별도 바로서면 평상심이다.
그러니 머리핀을 하나사도 결정을 해야되듯 번뇌와 욕망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정해야 마음이 스스로 말을 들어주어 내려놓아지게된다.
따라서 밥먹고 잠자고 똥사고 앉고 서고 보고 듣는 이놈이 자성 법신임을 퍼득 간파하면 자타가 무너진다.
대상이 무너지고 내가없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존재가 있으니 **이것이 자성법신임을 확인하고 인정하면 견성이다.**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다시 무명으로 떨어지고 인정이 되면 심장에 구멍이 뚤려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덮어 증험의 도장을 찍는다.
그러니 누구나 다하는 보고 듣는 마음을 법신이라 인정하는데 6일이면 과하다고 하는 것이다.

※ 왜 공부가 잘안되는지 꼭 꼭 꼭 찝어서 분석하여 쉽고 빠른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해줍니다.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053)471-0433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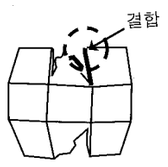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아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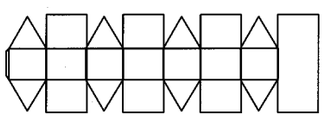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종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탄핵정국의 해법

<문제>다음 중 탄핵 정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답을 고르시오.

1. 시저 – 루비콘 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2. 마키아벨리 – 나는 내 영혼보다 조국 피렌체 공화국을 더 사랑한다.
3. 예수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거든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4. 수타니파타 – 사람은 태어날 때에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시저는 오랜 기간에 걸친 갈리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다. 정치가로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감한 사회개혁을 추진한 민중파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과의 갈등으로 브루투스, 카시우스 등 심복에 의해 살해되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가슴에 박힌 칼을 부여잡고 시저가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현명한 지배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 아니라 자기가 조성할 수 있는 두려움에 의존해야 한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기에 대한 증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한 여인을 둘러싼 군중들이 광장에 모여 있다. 양손에 주먹만한 돌덩이를 들고 분노의 표정으로 씩씩거리고 있다. 군중들에게 에워싸인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적발된 죄인이다. 예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인민재판이다. 예수가 위의 보기와 같이 말하자 분노와 호기심으로 들끓던 군중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떴다.

부처님이 시자 아난다를 데리고 아지타바티 강으로 나가 목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라문 탐미카의 집을 방문했다. 그의 집에서는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이는 중이었다. 부처님은 논쟁이 끝날 때까지 문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갔다.

"너희들은 여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저희들은 법을 말했으며 그 법을 듣고 그것의 진위와 우열을 판별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 앉으면 마땅히 두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하나는 참된 법(진여)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일이다."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에서는 하나를 골라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정답을 콱 찍어서 시대를 평정하는 영웅이 되는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하나의 정답으로는 역부족이다. 득점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감수하고라도 위의 보기 모두를 통합해야 정답이라고 우겨야겠다.

점수를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나 지혜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일이다. 선택은 고통이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한다. 상생의 지혜는 이분법과 객관식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문제를 출제한 무능한 출제자는 심히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출제자 명단에는 국민이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탄핵 정국에 연루된 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침묵이다. 입은 다물되 성찰의 동력은 활활 타게 하라.

탄핵정국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되돌려 생각해보면 진정한 민주주의, 상생의 정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대결과 갈등을 접고 상생과 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의 지혜에 달려 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개혁 지금도 '진행형'

올해는 조계종이 개혁의 닻을 올린 지 꼭 10년째가 된다. 1994년 3월 23일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가 발족하고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개혁회의'가 출범하면서 조계종은 '종단 개혁 5대 실천 이념'을 중심으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조계종은 3원 체제를 확립하여 출가자의 수행과 교육은 물론 불법홍포와 대중 교화를 위한 기본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복지의 활성화와 시민운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 위상을 높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법구현, 불교자주화, 종단운영 민주화, 청정승단 구현, 대사회적 역할 확대 등 5대 개혁 과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혁을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혁은 항상 '진행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한다.

최근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이 종단의 제도개혁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지만 의식 개혁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자로서의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여법한 생활 태도를 확립함으로써 불자의 정체성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둘째, 이제 기복불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실천불교, 참여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간의 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생태계파괴는 더욱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으로 심각한 대립 속에 휩싸여 있다. 이 모든 상황의 극복을 위해 불교계는 지혜와 자비, 중도와 원융의 정신에 입각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을 펴 나가야 한다.

셋째, 스님들은 물론 재가불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을 높여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스님들은 안거와 자자, 포살 등의 전통적 의식 등에 반드시 동참하고, 재가자들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신행지침을 마련하여 규칙적으로 점검하면서 공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세계 각국의 불교도들이 연대하여 지구적 문제와 시대적 도전에 함께 대처해 가는데 한국불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 박경준(동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두번째 화살

아직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괴로운 느낌을 받으면 비탄에 잠기면서 혼미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첫 번째 화살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두 번째 화살을 받는것과 같다. <상응부 경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연일 친노 반노, 개혁 보수로 나뉘어 정국이 혼란스럽다. 정치권은 이판에 사생결단을 내려는 듯 두 눈이 벌개져 있다. 더구나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득하여 지켜보는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곤 한다.

모두들 입만 열면 '국민'과 '민주'를 내세운다. 그러면서 혼미한 정국의 책임은 남의 탓으로 돌린다. 정치전문가들조차 원인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지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았기 때문이다.

세간에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는 말이 유행이다. 어느 개그맨의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하여 고소(苦笑)를 금치 못한다.

이처럼 두 번 죽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는 부처님의 교훈이 바로 '화살' 법문이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제자가 "세상사 괴로움(人生八苦)에서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다. 이때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받지 말라"고 하셨다.

혼란한 탄핵정국은 첫 번째 화살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받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방패는 '더불어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일 듯 싶다.

두 번째 화살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지 곰곰이 되씹어 보아야 할 때이다.

■ 이준엽(취재부장·호남 주재)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찰 어린이집 더 많아야

6살 딸과 4살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다. 최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입학하면서 어린이집을 고르느라 고민이 많았다.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규모도 작고, 시설도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매일 차를 타고 다니게 할 수 없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결정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절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지만, 아이들이 매일 차에서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라도 보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식단이나 교육커리큘럼, 시설, 거리 등에서 꽤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자이면서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도 종종 만날 수 있다. 교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절에 가기를 꺼리고, 불교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걱정스런 얘기도 들린다.

어린이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근 기사를 읽었다.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집도 많이 운영해주길 바란다. 이는 개인적인 바람인 동시에 불교 포교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은미(창원시 가음정동)

나눔 문화 확산되길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앞장서 도와야 한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그 실천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현대불교신문사가 주관하는 '나눔의 운동' 소식을 듣고 반가움을 넘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나눔이란 큰 것이 아니다.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내 사랑을 나눈 것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 떼어 나눈다면 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호 신문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눔의 저금통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용돈을 모아 이웃을 돕겠다는 아이들의 손길이 어느 큰 성금보다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또한 부끄럽게 다가왔다. 아이들에게 떳떳할 수 없는 어른인 나의 모습이 너무 작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 어른들이 나눔의 운동에 적극 동참해 이렇게 착하고 이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밝고 환하게 자랄 수 있는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김연주(군포시 산본2동)

독자 사진



'대통령 노무현 나라평안 발원'

'대통령 탄핵'에 온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요즘, 관음재일이었던 3월 14일 조계사 대웅전 상단에 '대통령 노무현 나라평안 발원'이란 문구가 적힌 공양물이 눈길을 끌었다.

박민수(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불자님을 모십니다



Size : 67 X 54 (Cm)

Size : 54 X 82 (Cm)

날로 변해가는 세파 속에서 바쁘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저희 효산에서는 인등 심지위에 모양을 그려 아름답게 핀 꽃에 불경을 실어 디지털인화지로 실크코팅 처리하여 작품화 하였으며 부처님은 정근기도문을 실어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지혜로워지며, 사업이 번창하고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희 효산에 작품구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판매를 원하시는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을 기다립니다.

작품종류
지장보살,관세음보살,약사여래불,윤회의등불
벚꽃3송이,나비,NS꽃,왕관꽃,왕관,제비꽃,진달래,
토끼풀,봉선화,매화

효산

구입문의 및 상 담 Tel 02)422-5335 / 02)422-0110
Fax 02)422-1144 / H·P 011-352-5097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패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한글에너지 전문점 및 사원모집

한글에너지를 만난 당신은 건강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차원 높게 생각하면 살충제, 중금속 등 유해성분과 공해로 인한 유해공간에서 간단하게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등산 낚시 등 야외, 가정에서 영원히 휴대해야 할 현대인의 필수품, 가정에서 살충제 해방!! 간편하게 카드 한장으로 발 냄새 제거, 벌레퇴치

21C 새로운 에너지
color neutralize wave(중화파장)
color dry wave(건조파장)
수맥방어, 혈압, 혈당, 체중조절

특명1 : 발 냄새를 잡아라
특명2 : 수맥파장을 잡아라
특명3 : 음식 유해성분을 잡아라
특명4 : 피부(아토피성) 당뇨, 고혈압을 잡아라
특명5 : 바퀴, 개미를 몰아내라



(발 냄새 제거 카드)
(곤충퇴치, 수맥방어)
의장출원 : 30-2003-15116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환영(매일11시, 14시 사업설명) 주부사원, 공사직 퇴직자 환영 기본급 + 수당
약국, 미용실, 피부관리실, 24시 매점, 화장품코너, 지물포, 문방구, 식당, 카페, 호텔매점, 등 특약점 모집
공해로 긴장된 공기입자를 부드럽게.....
음식영양성분(입자)중금속 - 유해파장 중화, 수맥파장방어 띠벽지, 인테리어용품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옆 수성빌딩 4층
지방은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특약점 및 사원모집 상담 02)924-5380, 924-5382

한글음파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한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책자 - "한글은 하늘소리 불치는 없다"
이름만 들어도 병을 검검할 수 있는....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음파 성명의학
혈당, 혈압조절, 탈모, 피부 아토피성, 환경개선

아~ 내 이름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니...

공개강좌 매일 오전 11시
제 3기 전수자 및 전국 지회 수련원장 모집

전국 시도 총판모집 한글에너지 본사 상담 02)927-3372

전수내용
한글기초에너지, 한글음파 성명의학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 성명학
한를 자음과 모음을 연구한 이름소리의 비밀!!



저자 황성현 직강
Color wave 개발자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옆 수성빌딩 3층

한글에너지 대한운공연구회 www.smile77.wo.to 상담 02)927-3372~3

화제의 신발

윤달이 낀 갑신년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 부터 120년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든 해로 정변의 기운이 넘치는 해다. 120년만에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역학적으로 숲의해라 하고 정치적으로는 격동기를 맞을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혼란스러우나 경제는 서방의 氣와 金이 동방으로 몰려오므로 대단히 좋아질 것이다.
또한 윤달이 낀 갑신년은 없는자의 지갑은 채워진다하여 지갑과 신발을 바꾸면 부자가 되고 건강장수하며 부처님 공양구를 집안에 들이면 삼재를 물리치고 만사형통한다 했다.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남여공용 성불화

120년 만에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 金의 해!
윤달이 낀 갑신년에 신발을 선물하면 건강장수합니다.

룸비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명품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두원 K씨는 광고를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던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쩌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개신도 권사도 절에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다 종교를 떠나 사신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과학적인 설계 개발기간 2년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메카인 (주)스타필드 신발공학센타에서 2년의 연구기간과 수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 만든 성불화룸비니가 출시 1년만에 국내시장을 석권하며 젊은층은 물론 골퍼들까지도 필드에서 감탄과 찬사를 하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기죽 뉴벅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룸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했으며 밑창은 골프화 같이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접지력과 마도력을 강화했고 눈, 비올때에 디끄럼 방지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디자인면에서는 평상복 또는 케주얼복에도 잘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불자님들의 사찰불공시, 또는 성지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소원성취 연꽃과 화를 쫓는 금강저 넣어
성불화룸비니는 신는순간 부터 소원이 성취되게 부처님 꽃이며 소원성취 꽃인 연꽃과 길 떠날때에 화를 쫓고 악귀를 물리 친다는 금강저 까지 넣어 자신감을 갖게한 것이 돋보인다. 120년만에 맞는 윤달이 낀 갑신년은 건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해다. 역학적으로 서방의 기가 동방으로 쏠리면서 전염병과 풍토병 또는 괴질이 만연하여 특히 노약자들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윤달이 낀 갑신년으로 생신 또는 회갑을 맞을때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신발을 선물하는 풍습이 지금도 있다. 성불화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 080-755-0003
농협944-12-417900 고덕림

갑신년 스님께 선물은 만행화
신발보시로 무명업장을 녹이고 좋은 과보 받는 갑신년!



스님을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다. 눈을 돌려 절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보면 너무나 어려운 스님, 노후에 거처가 편치 않는 스님, 병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스님 등, 가슴 아픈 분들이 절 주변에는 많이 있다. 영하의 추운 산속에서 정정고무신 하나로 겨울을 보내는 스님께서 동상이 걸려 고통 받는 스님도 계시고 그것이 고행이라 생각하고 수행하는 스님도 있다. 불자라면 꼭 자기가 모시는 스님이 아니라도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뜻한 자비의 신발을 보시 한다면 전생에 지은 무명업장을 녹이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복중에 지입기는 복이 인연복"이라 했다. "작은 불씨라도 마음을 열면 무량대복"된다고 했다. 120년만이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에 스님전용 신발인 만행화를 보시 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무량대복을 받을 것이며 스님께는 건강장수하여 원대한 포교 원력을 가지고 중생구제에 힘쓸 것이다. 스님전용 신발 만행화 룸비니는 (주)룸비니에서 스님의 승복 색상에 맞춰 품위있게 제작된 최고급 신발로 다단히 가볍고 편하며 장시간 만행여도 피곤함을 극소화 시킨 신발과학의 결정체라고 회사 관계자는 자부한다.
만행화신발은 스님의 건강을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이 김력하게 발산되며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 93%의 원적외선을 발산시키고 추운겨울에는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땀을 배출하는 기능과 눈비올때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게 제작된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다.
가격88,000원
보시 또는 문의전화 : 080-755-0003
농협944-12-417900 고덕림





부처님 福 지갑

東西南北의 福을 모으는 靈驗!

남여공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 케이스에 담겨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신분은 꼭 사용하세요.

영험의 룸비니 福 지갑

120년 만에 맞는 갑신년 金의 해. 룸비니 福지갑으로 부자되세요

갑신년 선물로 최고!
생일선물! 개업선물! 이사선물! 결혼선물!
합격선물! 승진선물! 취업선물! 사랑의 선물!

왜! 윤달이 낀 갑신년에 지갑을 바꿔야 하는가?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격동의해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역학적으로 윤달이 낀 해는 언제든지 누구나 삼재를 맞는 것과 같은 해로 환란을 소멸 하고자 윤달이 낀 해에 따라, 부모님의 수의를 장만하면 좋은 해가 있고, 가구를 바꾸면 좋은 해와, 적색내의를 입으면 좋은 해, 등 해에 따라 다르며 2004년 갑신년은 120년전 갑신년과 같이 서방의 氣와 金이 동방으로 몰리면서 지갑과 신발을 바꾸면 좋은해 입니다. 특히 윤달이 낀 갑신년에는 돈이 집을 떠나 방황하는 해라 하여 金의 해라하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지갑으로 바꾸면 방황하는 돈이 새지갑으로 들어오는 해로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입니다.
부처님지갑인 룸비니 복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성구 卐자를 지갑정면에 넣고 윤달이 낀 갑신년 의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순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성취꽃인 백연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은 명산인 소백산에서 부처님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경험의 지갑입니다. 브랜드를 룸비니라 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 이름 입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지갑은 안과 밖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가죽으로 내부도 기존지갑과는 비교가 곱수 없게 대단히 잘 꾸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룸비니지갑은 부처님지갑으로 지갑을 받으시면 사용할 분의 신분증등을 넣고 깨끗한 상위에 놓은 다음 서쪽을 보면서 3배하시고 사용하시면 윤달이 낀 갑신년에 삼재도 물리치고 소원성취 하십니다.

이런분은 꼭 사용해 보세요.

- 사업을 하면서 어려우신 분
- 장사를 하고 있으나 안돼는 분
- 항상 하는 일이 안돼시는 분
- 취업을 준비중인 분
-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
- 개업을 준비중인 분
-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
- 결혼을 앞둔 분
-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신 분
- 점포를 팔려고 내놓은신 분

신청 및 문의전화:080-755-0003

전화로 룸비니복지갑을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택배로 전국어디나 정성껏 보내드립니다.
남여공용반지갑5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은 신용카드 분할 또는 하기구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944-12-417900 고덕림

성불화 umbini 성불화 룸비니

마음 열면 劍이 보입니다

심검도

숭산스님 초청 도미 30년간 심검도 전파
몸으로 익히고 아집 떨쳐버려야 '劍道'
심신 바르고 일치할때 '활인검(活人劍)'
正行의 정수 330가지 검법으로 표현
존케리 상원의원, 하인즈 가문 등이 수련




외국인 제자들의 수련 모습.

"물 뜨는 그릇이 달라도 그 물맛은 같아요. 깨우침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문이 다르지만 깨우침의 내용은 같죠. 바른 깨우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검도(心劍道)'입니다."

검법(33단), 신법(10단), 호신술(10단), 장봉술(5단), 단봉술(5단), 쌍검(5단)으로 구성된 종합 불교 무술 심검도. 심검도의 창시자인 김창식(60?법명 원광) 세계심검도협회 총재는 1974년 숭산 스님(화계사 조실)의 초청으로 도미한 이래 30년간 전 세계에 심검도를 전파해온 무술인이다.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김 총재와의 인연으로 "한국 전통사찰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더욱 유명진 김 총재. 그는 케리 상원의원의 아들인 존 하인즈 5세를 보스턴 유니버시티 시절 심검도에 입문시켜 현재 8단의 고수로 키워냈다.

아직 쌀쌀한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보스턴 심광사로 김창식 총재를 찾아간 것은 3월 13일 오후. 심광사는 세계심검도협회 본부로서 81년 이후 2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심검도 수행자을 배출해 낸 곳이다. 자그만 체구지만 마중 나온 김 총재의 몸에서 무술인 특유의 예리한 시선과 탄탄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심검도의 기본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총재는 바른 검법을 배우려면 몸의 고집에 따라 자기 편한대로 생각하려는 아집을 떨쳐버릴 것을 강조했다. 검법을 반복해서 익히다보면 몸의 고집이 떨어져 나감은 물론 스스로 바른 길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검의 길, 즉 '검도(劍道)'가 된다는 말이다. 심검도에서는 마음 수련도 중요하다. "심검도의 특징은 몸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흩어져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한데 모아 올바로 집중하면 행동이 일어나게 돼죠. 바르면 검은 '활인검(活人劍)'이 되고, 잘못되면 바로 '살인검(殺人劍)'이죠."

김 총재의 이야기는 깨우침이란 주제로 옮겨갔다. 김 총재에게 깨우침이란 '평상심이 도'란 말과 통하는 것이다.

"검으로 통했던, 밥 먹다 통했던, 참선으로 깨달았든 도를 통한 것은 하나예요. 도를 통한 것은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면 나타나요. 금방 사용한 수건을 아무렇게나 버려 두는 것, 남에게 틀린 말을 했다면 도를 통했다는 것은 거짓이 돼죠. 행동이야말로 진리가 드러난 것이고 바른 행동의 정수가 심검도의 330가지 검법이 된 거죠."

김 총재가 이처럼 평상심을 강조하는 무술인이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한국 불교의 고승인 숭산 스님(화계사 조실)을 은사로 모시고 8년간 공부했던 지중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열 다섯 살 때 화계사에 갔어요. 친구들과 노는데 한 스님이 나한테 배우면 훌륭한 무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무술을 잘 하시냐고 물었죠. 스님은 딱,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배우고 싶었어요. 뭐에 홀린 것 같았죠." 김 총재는 그 자리에서 무술도 모르는 스승에게 무술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다.

심검도를 창시한 것은 행자 생활을 마친 65년 삼각산 토굴에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다. 김 총재는 기도를 점검하던 숭산 스님의 '벽에 걸린 검을 잘라 보라'는 가르침을 화두 삼아 수행했다. "쇠로 철검을 어떻게 자를까 고민했죠." 김 총재는 기도 중에 답을 구했다. "악! 이 소리를 자를 수 있습니까? 소리를 자른다면 빛과 시간도 자르겠죠. 철검 정도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검법과 신법, 쌍검술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김 총재는 자신을 검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검법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검이 마음이고 마음이 검이죠. 마음을 잘못 쓰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칼인 거죠. 남을 이쁘게 봐주고 도움을 주어야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되는 거죠."

김 총재는 70년 처음 심검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해동검도 총재로 유명한 탤런트 나한일 씨 등이 김 총재의 제자이다. 71년에는 제1 홍법원을 열어 포교하던 숭산 스님을 따라 일본에서 심검도를 알리기 시작했고 74년 미국에 불교 무예을 전파하기 위해 건너왔다.

현재 김 총재가 총 33단으로 심검도 최고 고수이고 그 다음 고수는 심광사 주지 메리 스탁하우스이다. 켑찹으로 유명한 식료품 회사 하인즈 가문의 상속자인 하인즈 씨는 심검도협회 비서실장으로 활약하면서 현재 심검도를 전파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에 불교 고등학교인 티니컴(Tinicum Art and Science)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지회로 구성된 세계심검도협회는 전세계에 50여 개의 도장을 두고 있다. 김 총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불교 무술인 심검도를 알리고 싶다"며 "불교와 무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특히 한국인 불자 학생이 많이 찾아와서 심검도를 배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617-787-1506 www.shimgwangsa.org.

미국 보스턴=강유신 특파원



"무술도 모르는 숭산 스님으로부터 '마음 쓰는 검법'을 배웠다"는 김창식 총재.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SUMMER CAMP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썸머 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네시안 및 미국 현지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를 배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 간 : 7월 28일 ~ 8월 17일(20박 21일)
□ 참 가 비 : 25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 원 :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 3월 15일 ~ 5월 10일까지(※미국 비자신청은 별도문의 바람)
□ 장 소 : 하와이 한인문화원
□ 주 최 : 현대불교신문 · 하와이 무량사
□ 주 관 : 하와이 싯다르타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 후 원 : 조계종포교원 진각종통리원 (재)보덕학회
□ 문 의 :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6-2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준 비 물 : 여권, 미국 비자, 학생증, 필기도구, 카메라와 필름, 속옷 3~4벌, 셔츠와 바지 2~3벌, 모자와 선글래스, 수영복과 샌들, 비옷, 수건과 비누, 자외선 차단크림, 작은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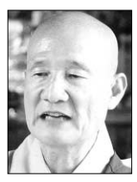

◇하와이 한인문화원 전경

※ 참가학생 부모님의 경우 하와이 사찰에서 공동생활을 전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관광비용 포함해 1주 180만원, 2주 200만원, 3주 220만원입니다.

□ 프로그램 일정표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7월 28일(수)	오전 8시	영어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전용)
7월 29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7월 30일(금)	09시~16시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자연박물관 관람
7월 31일(토)	10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1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2일(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3일(화)	09시~16시	카할리만다린호텔 돌고래쇼 및 코닥 홀라쇼 체험
8월 4일(수)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5일(목)	09시~16시	하와이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8월 6일(금)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7일(토)	09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8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9일(월)	09시~16시	진주만 방문,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8월 10일(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1일(수)	09시~16시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및 퍼레이드 관람
8월 12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3일(금)	09시~16시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에서 수영
8월 14일(토)	09시~16시	영어학교 졸업식, 휴식
8월 15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8월 16일(월)	09시~18시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8월 17일(화)	10시~	출발

자재만현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끝>



염불할때 잡념 끊는 방법

경에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어찌하여 어떤 놈이 나의 옷을 입고, 중인 체하면서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짓을 하느냐"하셨습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가듯 인간도 수명을 다 살면 이 거짓 몸뚱이라는 허물을 벗고 나가는 놈(부처님은 영체라 하심)이 있습니다. 그 영체는 지은 업을 따라 가는 곳이 있지요. 지은 죄가 지중하면 지옥에 떨어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몸뚱이가 받는 고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결코 방편설이 아닙니다. 실지로 윤회는 사실이며 불교의 중심신앙입니다. 연기법에 기초한 엄연한 사건들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말은 부처님과 법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대 망어죄로서 삼중고(눈, 귀, 입의 기능이 죽음), 사중고(삼중고에 코를 더 포함)로 미래제가 다하도록 이 과보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실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당히 부처님에 대한 부분만을 두어달 남짓, 불교역사 앞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400년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외쳤듯, 나는 붓다의 무량광, 청정법신비로자나불을 석명(釋明)하는 삼신설(三身說)을 설했습니다. 조만간 나의 미증유의 법설에 동의하는 날이 올 겁니다.

도올 김용옥씨가 모 TV 방송매체를 통해 사정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매도 폄훼하는 망어를 했어도 누구 하나 단칼에 절복시키는 큰스님이 없다 합니다. 그의 변재와 학문을 당해낼 수 없어서도 그러하겠지만, 수행의 깊이가 적어도 대보살지에 올라, 중생이 육도에 전생윤회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없다면 도올을 항복시킬 수 없습니다.

삼봉 정도전의 <불씨 잡변>이 나올 때처럼, 사자후하는 이가 없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 불교는 서럽게도 억압당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동안 지면을 통해 불교의 몸통 중에 겨우 머리 부분만을 대강 소개했다고 봅니다. 약 1년간 연재해서 왜곡된 부처님 말씀을 살펴볼까 했으나, 이제 인연이 다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염불선을 간략히 소개만 해 드리겠습니다.

염불시에는 아미타불을 칭명함이 좋으나 관세음보살도 좋습니다. 석가모니불은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아미타불만 가지고 말씀하지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외치고 마음으로 아미타불께 귀의·참회

정토삼부경 중 가장 짧은 <아미타경>을 일독한 후 '아미타불 무량겁 멸진진언'(108편)을 한 후, '나무아미타불'을 간단없이 부르십시오. 일념이 안되고 잡념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면 어려운 법이어서 둘로 나눠야 합니다. 즉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하시고 생각으론 아미타불께 귀의하고 참회하며 발원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처음엔 이게 잘 안되나 노력하면 됩니다. 이 공부가 깊어지면 일념이 되어 염불삼매에 진실로 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욱 깊은 경지에 들게 되며, 드디어 극락 왕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죽을 때 대소변 가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은 결정코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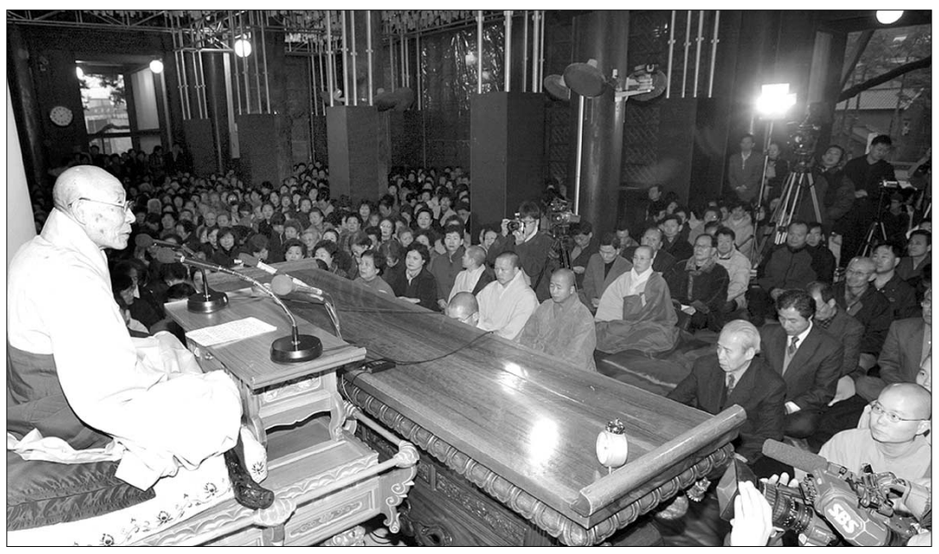
<춘천 현지사 회주>

■468호 부터는 양산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의 '염불수행'이 격주로 연재됩니다.

가장 쉽고 빠른 공부 '법문 듣기'

말끝에 단박 깨치기

매주 일요일 조계사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선원장 초청 법회'를 비롯 도선사, 봉은사, 보문사 등이 주최한 고승 초청법회에 불자들이 운집하고 있다. 법문은 어떻게 들어야 제대로 듣는 것일까. 스님들은, '법문 듣기' 그 자체도 선수행의 과정이라 진지한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문 듣기'는 발심의 계기가 됨은 물론 깨달음의 기연이 되는 중요한 공부법이다. 사진은 2월22일 조계사에서 열린 선원장 초청법회에서 축서사 주지 무여스님이 상당법문하는 모습.

"선지식들아, 나는 홍인 화상의 문하에서 한번 듣고 말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본성을 단박에 보았다. 그러므로 이 교법을 후대에 유행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 깨닫게 하여 각자가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의 성품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육조단경)

오조홍인 스님이 새벽에 혜능 스님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들여 <금강경>을 설해 주었는데, 혜능 스님이 한번 듣고 말끝에 바로 깨달았다는 견성체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접한 불자들은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 했을 것이다.

"한번 듣고 깨달았다고요?"

"그럼 오랫동안 수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선사와 대강백의 법문을 듣기위해 불원천리 전국의 산사로 선지식을 찾아가는 불자들은 다소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다. 하지만 옛부터 선사들은 '법문 듣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공부법'이라고 말해 왔다.

부처님 당시도 법문 듣고 깨쳐

조사선에서의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형태인데, 이 '직지인심'은 스승의 설법이나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문을 듣고 단박 깨치는 '언하변오(言下便悟)'는 혜능 스님의 돈오 체험에서 발단되어 조사선 선체험의 일반적인 방식이 된 것이다. '언하변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큰스님들의 사자후를 듣는 즉시 발심하거나 깨닫는 기연(機緣)을 만들어보자.

이러한 언하변오의 돈오견성은 좌선간심(坐禪看心)이라는 인도에서 전래된 혜능 이전의 선법을 극복하고 혜능이후의 중국 선을 새로운 선으로 열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선종에서 견성의 기연들은 대체로 말을 듣는 순간, 행위를 하거나 보는 순간, 자연물의 소리를 듣거나 움직임을 보는 순간에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선지식의 말(법문)을 듣고 깨닫는 경우가 가장 많음은 물론이다. 혜능 이후에 융성한 마조와 석두 문하의 중국 조사선 전통에서 깨달음의 거의 대부분이 설법과 문답을 통해 견성을 체험하는 '언하변오'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까닭은 언어가 사람사이의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지로 부처님 재세시에도 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청보리회 김재영 지도법사는 <붓다의 대중견성운동>(도피안사)에서 빨리어 <법구경>인 <Dhammapada-Commentry>를 통해 총 299건의 '대중 견성사건'을 확인했다. 부처님 재세시 총 1만2천975명 이상의 대중이 견성(수다원과 이상)했음을 경전을 통해 확인한 김 법사는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려는 초발심의 단계를 깨달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자세는 오늘날 깨달음을 특별하고 전문화된 사건으로 신비화하는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심지법문은 깨달음의 씨앗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스스로의 본성을 보아 성불케 하는 이심전심의 묘법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스승은 제자가 본래 가지고 있지만 잊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자극하고 촉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와 관련 남악회양 스님은 마조 스님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움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함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도 같다. 그대는 기연이 맞았기 때문에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깨달음에 필요한 요소는 마음 땅인 '심지(心地)'와 씨앗을 뿌리는 제자의 '발심', 물을 주는 스승의 '직지인심' 및 이 두 요소가 적절히 맞아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기연' 등이라 할 수 있다.

설법과 문답은 공부의 필요조건

선 공부의 필요조건인 상당설법과 문답을 통한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발심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또는 '청문(請問)' ▷선지식의 응답에 의문만 얻은 경우 제방 선원에서 참학하는 '참구(參究)'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서 선지식에게 해답을 확인하는 '감변'(勘辨) ▷깨달음이 옳다고 인정하는 '인가(認可)' ▷불잡은 본성을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며 과거의 습기를 떨어버리고 더욱 본성에 출실해 가는 '보임(保任)' 등으로 구분된다.

정통 조사선 공부법 회복해야

한국 불교는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일컫는 조사선의 간화선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에서는 '자기점검'이외에 선지식의 상당설법이나 '지도점검'이 일부 선방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거나 사라진 곳이 적지 않은 게 현실. 이에 따라 간화선 참구와 더불어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는 '언하변오'를 가능하게 하는 상당법문과 선문답, 지도점검 등 조사선의 공부과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설법·문답으로 공부하는 선원들

간화선 대중화 시도 호응 높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법문, 지도지침을 통해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시도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선원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안국선원, 현정선원, 보림선원, 제주 원명선원, 부산 무심선원 등은 법문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나 정진 과정에서 부딪친 경계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20여년전부터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열고 있는 제주 원명선원(064-755-3322)은 조사선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문답식 수행법을 지도한다. 좌선위주의 간화선을 강조하지 않고 '법문 듣기'와 문답을 통한 참구방법을 사용한다. 업장과 지혜의 유무에 관계없이 곧바로 자기 마음을 보고, 깨달음의 본래 그 자리를 이해하여 그 자리에서 생활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수행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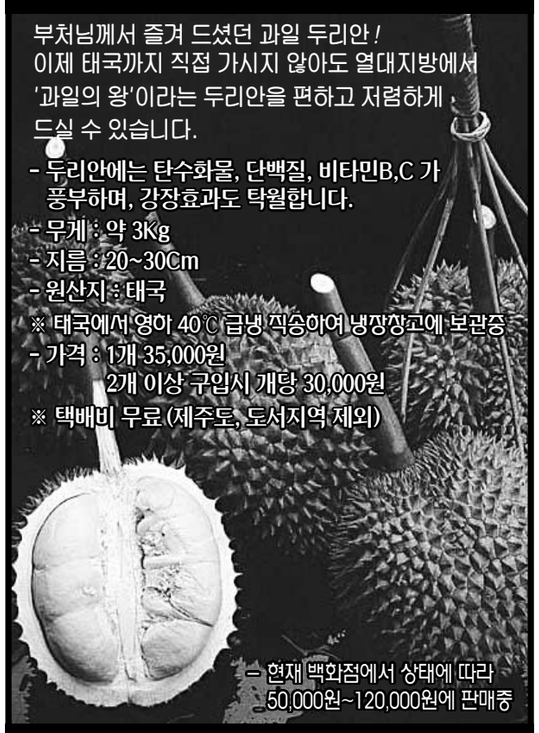
도심선원의 전형으로 조명받고 있는 서울(02-732-0772) 및 부산 안국선원은 선 법문을 통해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시킨 후, 선원장 수불 스님으로부터 활구 화두를 받아 1주일 용맹정진한 후 개별적인 점검을 받는다.

현정선원(02-582-9371)과 무심선원(051-515-7226)은 '법문'이 가장 중요한 수행 방편이다. 특히 무심선원은 일대일 입실지도, 소참법문, 대중법문이란 공부형식을 통해 작위적인 공부를 반대하는 '무위법(無爲法)'을 강조한다.

보림선원(02-914-6187)은 거사풍(居士風)의 설법과 좌선이 주요 공부법이다. 일상중에 공부할 수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등 새로운 화두라는 의미의 '새말귀'를 제시한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육임학(六壬學)교실
시간에 마술사 태산육임원에서 태산대전으로 시작합니다.
육임학(六壬學)은 이미 오천여년 전 현녀(玄女), 황제(黃帝) 시대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러렀는데, 이는 음행오행상생상극(陰陽五行相生相剋)의 법칙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보다 더 훌륭한 정단법(正斷法)은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도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나 흉재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전문가의 감정을 받고자 하니 여러분이 이 학문을 체득하여 처세상의 좋은 지침으로 삼는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초반	중급반	연구반	명리반
기초수업 9명 정원	人事세밀정단 9명 정원	사과삼전표 비전활용법	추명학

● 육임학을 처음 체득하시는 분!
● 기초를 체득하였으나 아직 활용을 못하시는 분!
● 비전, 필법부, 간법, 사과삼전을 연구에 입문하시고 싶은 분!

육임관련서적
10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길흉정단법(吉凶正斷法)
11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실천감정법(實踐鑑定法)
12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세밀감정극비전(細密鑑定極秘傳)
16권 천문역학(天文易學) 육임신과(六壬神課) 초학상해(初學詳解)
18,19,20권 육임천문역(六壬天文易) 감정비건(鑑定泌鍵) 上 中 下

추명학관련서적
1-1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입문(入門)
1-2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오의(奧儀)와 응용(應用)
3,4,5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오비전(奧秘傳) 上 中 下
6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조후용신대법(調候用神大法)
7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행운간법(行運看法)
8,9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실천법(實踐法) 上 下
13권 천문자미운명학(天文紫薇運命學)
14권 간명(看命) 원칙과 실천(實踐)
15,21,22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 적천수화해(滴天髓和解) 上 中 下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501-7번지 1층
자료구입 계좌 : 대구은행 093-08-247393 (예금주 : 손외경)
전화 053)627-0170 / 휴대폰 016-580-6654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겹누비면(먹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면(먹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 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모 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먹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하복지 - 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빼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명상음악에 빠져봐!

명상이 웰빙 시대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면서 '명상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명상센터는 물론이고 미술관이나 음식점 심지어 지하철 역사에 이르기까지 명상음악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명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 듯, 명상음악의 의미와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명상음악이라 일컫는 음악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막연하고 모호해 보이는 명상음악의 개념과 그 하위체계들을 새롭게 조명해 본다.

명상음악 개념·종류

독경·클래식·자연의 소리·원시축제 음악 등 '안정된 호흡' 느껴지는 리듬 모두 해당

명상음악의 정의

음반시장의 분류에 따르면, 좁게는 수행을 직접적으로 돕는 음악에서부터 넓게는 명상적인 분위기를 내는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명상음악이라 부르고 있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은 물론 클래식 바이올린 소품인 '타이스의 명상곡'까지 명상음악이 된다. 즉 '명상성'을 지닌 음악이라면 명상음악이 될 수 있다는 말. 그렇다면 이 '명상성'이란 무엇일까?

음악평론가들은 '안정된 호흡'을 명상성의 중요 요인으로 꼽는다. 모든 소리에는 각기 다른 파장이 있다. 이 파장의 연속성이 곧 음악의 호흡으로. 이는 시의 운율과 같은 것이다. 명상성을 지닌 음악에서는 이 같은 호흡이 비교적 안정돼 있다. 안정된 파장이 내부의 진아(眞我)를 자극해 각성을 불러일으킨다면 모두 명상음악이 될 수 있다.

명상음악의 종류

◇종교음악= '반야심경', '금강경', 예불음악 등 불교의식에 쓰이는 음악은 모두가 깊은 명상성을 지닌다. 이는 그 자체로도 명상음악이 되지만, 현대적 감각에 맞게 형태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불교 만트라를 소재로 한 음악도 마찬가지다. '옴 마니 반메훔', '부담 샤라남' 등 스님들이 집단으로 외는 만트라(진언)의 리듬을 변형시킨 명상음악이 많이 있다. 별다른 음악적 구성없이 만트라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끝이지만, 그 자체로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돕는다. 남성 수도사들이 저음으로 합창하는 단선율의 그레고리오 성가 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다.

◇오쇼 라즈니쉬 명상음악=오쇼 라즈니쉬의 다이나믹 · 쿤달리니 · 나다브라마 명상 등은 명상상태에 이르기 위해 음악을 사용한다. 명상 수행을 위한 음악이다. 또한 오쇼 아쉬람(명상센터)에서 음악인들이 작곡 · 연주한 음악도 명상음악으로 분류된다. '파초의 연못'이나 'GARDEN OF THE BELOVED', ' TEN THOUSAND BUDDHAS' 등의 앨범이 그 예다. 이밖에도 오쇼 아쉬람에서 일반화된 다양한 테라피(치료) 음악 또한 이 그룹에 속한다.

◇뉴에이지 · 수피음악 등=유키 구라모토, 앙드레 가뇽, 데이빗 란츠 등 뉴에이지 아티스트들의 음악은 대표적인 명상음악으로 꼽힌다. 명상 수행과는 무관하지만 '단순하고 명료한 선율과 정결한 음악적 색채'들이 강한 명상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의식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수피(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의 음악, 춤(초월무용)을 통해 영적인 엑스타시를 체험하는 원시부족의 축제음악, 파도 · 바람 · 비소리 등 자연의 소리도 명상음악으로 분류된다.

도움말= 김진묵(음악평론가)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음악과 명상'은 하나

수행하는 명상음악 대가들


나왕케촉


크레이그 푸루어스


데바프레말


테리올드필드

'나에게 음악과 명상은 불이(不二)'

명상음악의 대가들 중에는 오랫동안 명상수행에 매진해 온 이들이 많다. 깊은 삼매 체험이 전제돼야 마음의 안정과 각성을 돕는 음악의 바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달라이라마에게 헌정한 곡 'Rhythm of peace'로 널리 알려진 티벳 피리 연주자 '나왕케촉'은 대표적인 수행가이자 음악가다. 실제 11년간이나 스님으로 수행해왔던 그는 30여 년간 인도 등지를 방랑하며 구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크레이그 프루어스(Craig Pruess)는 수십 년간의 명상경험을 토대로 음반 <Sacred Chants of Buddha>를 만들었다. 영적인 지도자 '스리스리 라비샹카르'의 제자이자 인도철학에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그는 동서양의 다양한 전통음악을 결합시킨 퓨전음악 앨범도 제작했다.

신비한 음색과 명상적인 가사로 유명한 명상음악 보컬리스트 데바 프레말(Deva Premal)은 산야신(오쇼 라즈니쉬 제자)이다. 최근 국내에 출시된 앨범 <Love is space>는 오쇼 아쉬람에서 만난 음반 프로듀서 미텐과 함께 작업한 것으로, 명상의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 등이 조화된 명상음반의 역작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명상여행에서 얻은 영감을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를 통해 표현하는 구도명상가 까말(Kamal), 티벳의 전통과 선(禪)의 세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테리 올드필드(Terry Oldfield) 등 수행의 체험을 음악에 녹인 명상음악가들은 상당하다. 5월 3일 방한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인도의 월드 퓨전 그룹 '쌍깃프렌즈(sangeet friends)' 역시 이들 그룹에 속한다.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벨 훅스 (下)

"사회 위한 일은 나를 위한 일"

1975년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 틱낫한(Thich Nhat Hanh) 스님과 그의 제자인 찬콩(Chan Khong) 스님을 만난 벨 훅스(Bell Hooks)는 여성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는 나와 남을 동시에 사랑하는 자비심이 전제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와 관련 훅스는 불교 잡지 <샴발라 선>에서 틱낫한 스님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자비심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것은 미국 정부가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잃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은 매우 놀라운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틱낫한 스님 만나고 자비 중요성 깨달아

훅스가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흑인 여성과 페미니즘>을 저술한 기본 의도 역시 소외된 여성에 대한 자비였다. 공동체적 사랑을 전제로 한 그녀의 저술 작업과 일관된 문제의식은 바로 흑인여성의 사회적 지위에서 성차별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영향을 밝혀내고 그 고리를 끊는 것이었다. 그녀는 흑인 여성의 경험과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치학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성차별주의를 모두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 노예제 기간의 흑인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흑인 남성의 성차별주의, 최근의 페미니즘 내부의 인종차별주의까지 그녀의 탐구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훅스에게 미국은 계급에 기반을 둔 백인 우월주의적 가부장제 자본주의이다. 외조부모(그의 필명 벨 훅스는 외할머니 이름이다. 훅스는 자신의 이름을 소문자로 쓰기를 고집한다) 가계의 '탈법적인 문화'에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들은 중간계급 사회의 도덕적 관습 밖에 있는 전근대적인 남부의 흑인 농민들로 쉬지 않고 일했으나 항상 가난했다. 가난은 계급의 문제였으나 그것은 '돈', '돈이 없다'는 상투적인 말로 은폐되었다. 훅스가 계급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게 된 것은 고향을 떠나 장학생으로서 스탠포드로 옮겨온 후였다. '낯선 이방인'으로서 그녀는 혜택받은 '타자'인 특권층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훅스는 지배계급에게 그들의 규범이 있듯이, 그들이 노동계급의 처지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가난한 이들과의 결속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명제로 받아들인다.

훅스가 계급적 관점에서 성(性)과 인종의 문제를 바라본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녀는 여성운동에 참여했던 초기부터 백인 여성들이 인종과 성을 분리된 문제로 보는 주장에 혼란스러웠다. 흑인과 여성이란 삶의 경험에서 두 문제는 분리될 수 없으며, 흑인이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인식했다.

훅스는 백인 중심의 영문학계에서 토니 모리슨 등 흑인 여성작가를 재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페미니즘이 '성차별, 성적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기 위한 운동'임을 알리고, 해방을 위한 열정의 정치학을 실현하기 위해 '백인 우월주의적 자본주의 가부장제'라고 이름 붙인 사회체제의 보수회귀 움직임과 반페미니즘 역공'에 맞서자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호소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급진적 여성운동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훅스이지만 가슴 속에는 언제나 틱낫한 스님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고백이다. "자아와 무아(無我)를 둘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은 무엇이든 곧바로 사회를 위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위한 모든 일 역시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런 통찰력은 무아를 실천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샴발라 선' 중에서)

김재경 기자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영혼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최면 「전생, 빙의」 특별 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세계 유명 대학에서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할 수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최면아카데미에서 **전생, 빙의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영성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필수적인 **전생상담기법과 빙의된 영가와의 대화기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면을 통한 전생상담 교육과정은 **최면상태에서 떠올린 기억들이 실제전생이든 심리적 갈등의 상징이던 그 사실성 여부보다는 잠재의식속에 내재되어있는 전생의 기억속에서 내담자가 일상생활속에서 겪고있는 현재의 문제(부부간 및 고부간의 갈등, 대인관계, 사회생활 적응 등)를 해결 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법의 효과는 문제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감정속에서 방황하는 내담자에게 **최면전생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현재삶의 제반 문제들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줌으로로서 보다 폭넓은 인생관을 갖게 하여 지혜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한국전생빙의 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된 영가 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제주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 입니다. 최면 전생 체험후 참선할 때마다 밀려들던 번뇌, 망상이 살아지게 되었으며 또한 기도할때마다 더욱 깊은 선정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00사 00 합장

교육내용

1.최 면 이 론 : 최면개론, 최면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등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연령퇴행 기법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문제점삭제 및 통찰,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전생퇴행 기법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4.미래진행 기법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영가대화 기법 : 빙의된 영가와의 대화를 통한 핵심감정 및 문제파악, 해원과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법을 자문함.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大野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한국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부설 전생·빙의 연구소

[특 전] 한국최면아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교육기간] 2004년 4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7시 까지(5주간)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 접수후 입금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출장강의 가능)
[교 육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영암 스님(1907~1987): 경북 울진 生. 통도사로 출가. 백양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4대). 종회의장 동국학원 이사장 등을 거치며 이사 구별없는 수행자의 면모를 보였다.

네티즌 교리문답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까닭은?

문 부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일곱 발짝을 걸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게송을 외쳤다고 하는데, 이 게송은 무슨 뜻인가요? 부처님이 잘난 척 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요. (ID '무위자연')

답1: 마음은 본래 생함이 없는 것이며, 본래 무생(無生)인지라 멸함도 없다. 마음은 본래 무상(無相)인지라 생멸의 상을 떠나 있다. 바로 그러한 심성이 진여이고 법성이며 불성이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한 '아'는 무아(無我)의 '참나'이기에 마음이요 부처(佛), 공(空), 법(法)이기에 우주와 둘이 아닌 '일심(一心)'일 뿐이라고 선언한 것이다.(ID '김성우')

답2: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이 우주만물 중에서는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하는 말이며, 부처님의 탄생이 속세로부터 성스러운 세계로의 초탈임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ID '부천시민')

답3: 이 탄생게는 존재의 원리인 중도연기, 무아의 연기를 말한다. 불교의 존재원리는 나온 출처가 애초에 없음을 가리킨다. 바로 '유아독존'의 아(我)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불변하는 중도연기를 의미한다. (ID '이뭣고')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㊱

불립문자(不立文字)-9

앞의 글에서, 글이라는 시각적인 장치는 의식을 분절화시키고 타자화하는 속성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불이적(不二的)인, 즉 통합적인 세계관의 내면화를 강조하는 고전종교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표명하고 전달하고 달성하는 데에 글이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상 글뿐만 아니라 말도 그다지 마땅한 것은 아니다. 인간 정신의 내면적인 체험, 특히 세상만유의 궁극적인 통합성에 대한 의식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데에는 말 또한 기본적으로는 글이 지니는 한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선, 전에도 언급했듯이 말도 사상(事象)의 분별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려면 어법(語法) 즉 말을 의미 있게 하는 법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어떤 말이 듣는 이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려면 적절한 분별을 담아야 한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는 모든 명제는 분별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분별은 듣는 이도 동의할 수 있는 분별이어야 한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분별의 틀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지식의 세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별의 틀을 공유한다. 그것을 흔히 상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말이 듣는 이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려면 그 상식의 틀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면의 체험, 특히 일상적인 분별의 틀을 넘어서는 경지의 체험을 온전하게 말에 담아 전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말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유통
'독자성' 갖는 글보다 오해 덜해

그래도 모든 체험을 어떻게든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그것을 발설하지 못해서 병이 난 이발사 얘기도 있다. 그래서 도무지 말로는 적절하게 다 담아내지 못하는 내면의 체험도 어떻게든 말에 담아내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발설된 말은 이미 말한 사람의 바깥으로 달아나가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사상(事象)이 된다. 내면의 체험이 외면화해서 타자화(他者化), 객체화되는 것이다. 이것도 말과 글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다.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한 사람과는 별도인 또 하나의 독자적인 객체로서 그 말이 다가온다. 말한 사람의 의도나 내면의 체험과는 별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심지어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일도 생긴다.

하지만 그래도 말은 글에 비하면 부작용이 좀 덜하다. 말이 오가는 현장에는 사람과 사람이 있다. 그러나 글을 읽는 현장에는 글과 읽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글을 쓴 사람은 없다.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 아니라 글과 사람의 대면이다. 글은 그것을 쓴 사람의 밖에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객체이다. 그러나 말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떠나 별도의 독자성을 가지는 정도가 글보다 훨씬 덜하다. 말을 주고받는 현장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고전 사상과 종교의 태두들이 평생 말씀은 무척 많이 했으면서도 글은 남기지를 않은 것도 그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세간의 상식적인 틀에 가둘 수 없는 내면의 불이적인 체험이지만 어차피 표현하고 전달은 해야 하겠지만, 글은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기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2>

변우동자사와 선지중예동자의 법문

'변우' 중생의 친구이자 스승으로 정법교화
예술적 재능 통달해 지혜 실현하는 '선지중예'

가비라성에 있는 변우(遍友)라고 하는 동자의 스승(童子師)을 찾아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천주광녀(天主光女)의 가르침을 받고, 선재동자는 천궁에서 내려와 가비라성을 찾아갔다. 변우가 있는 곳에 나아가 그에게 예배하고 나서 법을 청하자, 변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여기에 한 동자가 있으니 이름이 선지중예(善知衆藝)이다. 보살의 문자에 관한 지식(菩薩字智)을 배웠으니, 그대가 물으면 말하여 줄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우는 자신의 법문을 하지 않고 법을 청하는 선재동자에게 곧바로 '선지중예'라고 하는 동자를 찾아가라고 지시한다. 변우동자사는 이와 같이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선지식이다. 변우라고 하는 명칭은 두루 모든 중생에 대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 때문인데, 변우는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어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우는 순수한 구도자인 동자의 스승(童子師)으로서 훌륭한 선지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중생의 훌륭한 친구가 되고, 좋은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되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변우동자사가 일러준대로 선지중예동자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자, 선지중예동자는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그 이름은 '모든 예술을 잘 앎(善知衆藝)'이다. 나는 항상 이 자모(字母)를 독송한다. 아(a, 阿)자 음(音)을 소리낼 때는 반야바라밀다문에 들어가나니 그 이름은 '보살의 위력(威力)으로 차별이 없는 경계에 들어감'이다. 다(ta, 多)자 음(音)을 소리낼 때는 반야바라밀다문에 들어가니 그 이름은 '그지없는 차별한 문'이다. … 라(ra, 陀)자 음(音)을 소리낼 때는 반야바라밀다문에 들어가나니 그 이름은 '모든 법륜의 차별한 광'이다. 선남자여, 내가 이런 자모를 부를 때에 이 사십이(四十二) 반야바라밀다문을 으뜸으로 삼아 한량없고 수없는 반야바라밀다문에 들어간다."

지금 선지중예동자가 설하고 있는 선지중예해탈의 법문은 알고 이해해야 할 세간의 온갖 재능과 기술 중에서 특히 문자(文字)에 관한 것이다. 그는 지혜를 발휘하여 세속의 언어와 문자를 이용해서 세속을 벗어난 출세간의 반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언어와 문자가 비록 허망(空)하다고는 하지만,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얼마던지 진실한 경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인간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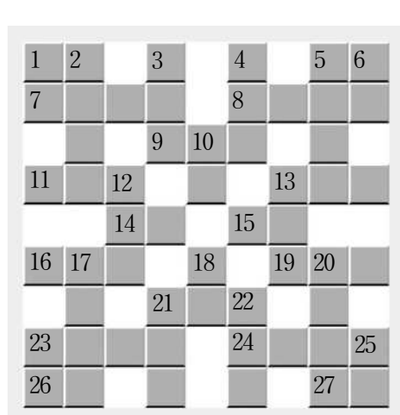
세속의 여러가지 재능과 기술을 통달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 보살의 깨달음의 경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이 밖에도 무수하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선지중예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모든 예술을 잘 아는 보살의 해탈을 알 뿐이다. 저 보살마하살들이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교묘한 법을 지혜로 통달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다른 지방의 이상한 예술을 모두 종합하여 다 알고, 글과 산수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의학과 술법으로 여러가지 병을 잘 치료하며, 어떤 중생들이 귀신들리었거나 원수에게 저주를 받았거나 나쁜 별의 변괴를 입었거나 송장에게 달라붙는 악귀에 쫓기거나 간질 · 조갈 따위의 병에 걸린 것을 모두 구원하여 쾌차하게 하는 일과 또한 금 · 옥 · 진주 · 보패 · 산호 · 유리 · 마니 등의 보배가 나는 처소와 종류가 같지 않음과 값이 얼마나 가는지를 잘 분별하여 알며, 마을이나 시골이나 성시나 크고 작은 도시들과 궁전 · 공원 · 바위 · 샘물 · 숲 · 진펄 등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데를 보살이 모두 다 지방을 따라 거두어 보호하는 일과 또한 천문 · 지리와 사람의 상(相)의 길흉과 새 · 짐승의 음성을 잘 관찰하며, 구름 · 안개의 기후로 시절의 흉년 · 풍년과 국토의 태평하고 나쁜 것을 짐작하는 일과 이러한 세간의 모든 기술을 모두 잘 알아 근원까지 통달하는 일과, 또한 세간에서 뛰어나는 법을 분별하며, 이름은 바로 알고 이치를 해석하며 본체와 모양을 관찰하고 따라 수행하며, 지혜로 속속들이 들어가 의심도 없고 걸림도 없고 어리석지도 않고 고집스럽지도 않고 근심과 침울함도 없이 현재에 증득하지 못함이 없는 일들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여기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세속적인 재능과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세속적인 여러가지 일들이 보살이 통달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속의 여러가지 중생의 삶과 관련되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여러가지로 이로움을 줌으로 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살의 지혜 광명의 묘한 작용은 이렇게 작용해서 중생세계에 구체적인 여래출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좌선을 주로 하는 도량 5. 말, 말씨 7. 정신이 한곳으로 쏠려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경지 8. 사찰이나 종단에서 보는 행정업무 9.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 안에 있는 사찰 11. A와 B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를 모두 갖는 집합 13. 일본에 국권을 강탈당한 치욕적인 날 14. 채광이나 통풍을 위하여 벽에 낸 작은 문 15. 자그마한 산 16. 사절로 외국에 가는 일단 19. 품질을 평가하는 모임 21. 작도나 구획 등의 작업에서 기준이 되는 점 23. 수효가 많은 종류라는 의미 24.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 26. 굵은 삼실로 짠 포대 27. 담당이나 담관에 생기는 결석.

세로 1. 먼저 해야 할 일 2.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 3. 모략이나 선전 따위로 상대편의 신경을 피로하게 만들어 혼란으로 몰아넣는 전법 4. 조계종에서 비구 법계의 1급을 이르는 말 5. 말과 행동이 똑같음 6. 그릇됨과 올바름 10. 등기우편의 준말 13.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 17. 토지의 생산력에 관계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지대를 말함 18. 사물의 가치 · 등급 · 품질 따위의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20.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협의하는 모임 21.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짓 22. 점유하고 있는 물건 23. 눈썹 위로부터 머리털이 난 부분까지의 사이 25. 사사로운 자리.

권력에 연연하면 富 날아간다



경주 최 부잣집 300년 富의 비밀

전진문 지음
황금가지 펴냄/9천9백원



■300년 만석꾼 집안의 12가지 비밀

1. 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만을 갖는다.
2. 함께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
3.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정한다.
4.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
5. 때를 가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다.
6. 지나치게 재산을 불리지 않는다.
7.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한다.
8. 이루기 힘든 일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다.
9.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한다.
10. 자신을 낮춰 상대가 경계하지 않도록 한다.
11. 덕을 베풀고 몸으로 실천한다.
12.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버린다.



최 부잣집의 안채 전경(사진 위)과 쌀 800석이 들어간다는 곡식 창고.

300년 동안 부와 명예 지킨 경주 최 부잣집의 처세 비결 · 숨겨진 노하우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다. 부(富)를 얻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10대를 이어온 부자가 있으니, 바로 경주 최 부잣집이 그 주인공이다.

<경주 최 부잣집 300년 富의 비밀>은 1600년대 초 경주에서 처음 가문을 일으킨 최진립에서부터 광복 직후 모든 재산을 바쳐 대학을 설립한 최준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거부(巨富)로 살아온 경주 최 부잣집의 숨겨진 노하우와 부의 비결을 파헤친 책이다.

경영학 박사인 저자는 경주 최 부잣집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만의 독특한 가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그 집안에는 정신적 기반과 경영 철학의 역할을 한 가훈(家訓)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훈은 총 여섯가지다.

첫째가 최소한의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되 절대 진사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덕에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정쟁에 휘말려 집안이 화를 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다.

둘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소작료를 낮춰주는 식으로 이웃에 돌려 결국 사회에 환원했다.

그리고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마라, 가문의 며느리들에게는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어 싼값으로 내놓을 게 뻔한 논밭을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늘릴 수도 있었겠지만 최 부잣집은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의 가난을 축재의 기회로 잡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미덕이다.

얼핏 들으면 최 부잣집의 가훈은 지금의 시대상황과 맞지 않아 보이지만 정도(正道)를 걷는 근본 정신만은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다. 최 부잣집은 바로 가훈에서 자손들에게 해서는 안될 것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최 부잣집이 300년에 걸쳐 모으고 지켜온 재산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자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최 부잣집의 마지막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최준의 행적을 쫓는다.

조선총독부로부터 여러 차례 관직을 제의받지만 "스스로 성질이 괴팍한데다 안하무인이어서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며 번번히 거절했던 최준은 백상상회를 설립해 모은 돈을 남몰래 광복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총독부도 이에 지지 않고 중추원 참의직을 다시 제안하자 집안 회의 끝에 동생인 최윤이 그 자리를 수락함으로써 자신은 친일의 오명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결국 최준은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세우는 데 전 재산을 바치고 1950년 일선에서 미련 없이 물러났다고 한다.

실제로 경주 최씨 가문을 일으킨 사람은 임진왜란때의 영웅인 정무공 최진립이었다. 그는 양반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 필요한 최소의 조건인 진사 벼슬만을 유지한 덕분에 혼란기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았다.

저자는 최진립 이후 10대에 걸친 300년동안 부와 명예를 지켜온 최씨 집안의 처세 비결과 숨겨진 노하우를 "어떤 정파와 결탁하여 특수한 관계가 되면 그 기업의 생명은 오래갈 수 없다"는 식의 경영학 논리로 풀어간다. 더구나 최진립은 6남 1녀의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했다.

이후에도 역시 이 가문이 부를 오래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관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문의 누군가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면 단언컨대 부의 전통은 끊기고 말았을 것이다. 당쟁이 그 관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화를 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말이다. 특히 이 대목은, 우리나라의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시대를 초월한 이 진리를 명심하고 실천했다면 비자금 파동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뇌리를 스치게 만든다.

어쨌든 이 책은 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 약간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정한 부를 모으고 유지하며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석(定石)으로 알려줘 신선하게 다가온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생 역전

전문가 서평



폭력과 패륜 일삼던 소년 모교 교단에 서기까지…

불량소년의 꿈
요시이에 히로유키 지음/남도현 옮김
양철북/8천원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에서는 학교내 폭력이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었다고 떠들어 댄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몸담고 있는 학교가 시골이어서 인지 체감온도가 별로 높질 않다. 그렇지만 교육의 현장에 있다보면 '학교 폭력'은 결코 남의 일처럼 간과할 수 없다.

이런점에서 최근에 읽은 <불량소년의 꿈>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준 내용들로 가득했다.

우선 이 책은 학교 내에 폭력서클을 만들고, 밤거리를 폭주하고, 심지어 선생님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불량소년이 교사가 된 이야기다. 수렁에서 빠져나와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된 드라마틱한 내용이어서 이 책이 처음 발간된 일본 내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이 책의 저자인 요시이에 히로유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1971년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불행한 어린시절을 겪으면서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폭력서클에 가입하지만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그는 '왕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한 사람'이 되고자 점점 난폭해져 갔다. 집에서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동생과 누나를 구타하고, 새엄마를 밀어버리고, 터클(격투할 때 손가락 관절에 끼는 쇳조각)을 손에 끼고 아버지를 때려 입원시키기까지 하는 패륜을 일삼게 된다. 결국 담임선생님의 머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사고를 일으켜 학교에서 퇴학당한다.

만신창이가 된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곳은 일종의 대안학교인 호쿠세이 고등학교 뿐이었다. 이 학교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다치 선생님을 만나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는 졸업 후 법대로 진학하지만 4학년 때 오토바이 사고로 중태에 빠진다. 역시 아다치 선생님은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홋카이도에서 요코하마까지 병문안을 와서 정성껏 간호한다. 그리고 말한다. "너는 결코 쓰러지면 안 된다. 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28세때 저자는 자신의 존재를 구원해 준 아다치 선생님처럼 마침내 모교에서 교사가 되는 꿈을 이룬다. '교육에 있어서 경험만큼 소중한 가르침은 없다'는 말처럼 요시이에는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불량소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가르치는 참 교사로 거듭난다. 자신의 스승인 아다치 선생님처럼….

이 책은 부모나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며, 한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지를 다시한 번 깨닫게 해 준다.

■**박선영** (정선 고한중학교 교사)

“절하며 마음의 살을 빼봐요”

‘삼천배 다이어트’ 펴낸 귀농작가 이선희 씨



겨울산사서 삼천배 정진
버림의 기쁨 등 느낌 메모



관세음보살님 한 번 외치고, 살려주세요 매달리면서 겨우겨우 일어난다. 천천히 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20~30대에는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삼천배를 통해 ‘버리는 것’에 대해 알게 됐지요. 자신을 알고 싶을 때,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들 때, 삼천배에 도전해 보세요. 호기심이든 진정한 발원이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잖아요?(웃음)”

“삼천배는 욕망으로 가득 찼던 몸과 마음의 살을 뺀 최고의 영혼 다이어트였다”는 이 씨는 “앞으로도 힘들 때면 부처님 만나러 가서 삼천배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기자가 사찰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수련회의 마지막 관문인 삼천배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일 때, 같은 수련생이었던 한 보살님이 말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언제 삼천배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삼천배를 시작하자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보살님과 달리 그저 숨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며 삼천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었다.

이선희 씨의 <삼천배, 내 인생 최고의 다이어트>를 읽은 후의 느낌도 이렇듯 자신의 경험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절 수행에 매진하는 불자들이 볼 때는 ‘왕초보’의 체험수기일 것이고, 기자처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독한 실천’으로 읽힐 것이다.

우선 이 책을 이야기할 때 이선희(42 · 사진) 씨에 대한 설명을 빼놓고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다. 이화여대 사회사업과를 졸업하고 91년부터 8년간 방송작가로 일하며 3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을 구성, 집필한 사람. 그러다 느닷없이 화려한 도시생활을 접고 고향 옥천으로 내려가 포도농사를 시작한 사람. ‘독특하다’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력의 소유자인 이 씨는, 정작 자신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 책에서 삼천배를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삼천배를 하고 난 후의 느낌을 솔직한 문체로 풀고 있다. 그는 ‘좀 더 그럴 듯 하게 포장할 재능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느낀 그대로를 글로 옮길 수 있는 것도 특별한 능력임에 틀림없다.

“저는 선천적으로 내 안의 진정한 나를 찾아감으로써 힘을 얻는 체질인 것 같아요. 삼천배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삼천배를 하는 과정에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방송작가’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솔직할 때 다른 사람의 삶도 바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삼천배를 했다고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육체를 정신에 굴복시켰다고 할까요. ‘절은 나를 내려놓는 수행’이라는 것을 알음알이로는 알 수 있지만 삼천배를 통해 몸으로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꾼인 그에게 농한기(農閑期)인 겨울만큼 삼천배에 도전하기 좋은 계절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눈 덮인 산사(山寺)에 올라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자처했다. 13시간의 고투 끝에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삼천배를 하며 기록한 그의 메모를 훔쳐본다.

“소원성취를 하려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지? 숫자를 세면서 ‘참회합니다’만 반복한다. 그러다가 숫자마저도 놓는다.”

“터져 나오는 한숨소리 막으려 입술을 악물고

쉽게 읽는 부처님 마지막 말씀



열반경 Ⅰ · Ⅱ

운허 스님 엮음
동국역경원 / 각권 1만5천원

운허 스님이 1965년 발간한 <열반경>이 새롭게 선보인다.

그동안 절판되어 볼 수 없었던 이 책은 60년대 고문(古文)투의 문장들을 가다듬고 새 단장했다. 평생 “불교를 널리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전이 쉽게 읽혀져야 한다”며 역경 사업에 매진한 스님은 1964년 동국역경원을 설립하고 <능엄경>을 비롯해 <무량수경>, <범망경>, <열반경> 등을 우리말로 옮겨 펴냈다. 이 때 발간된 <열반경>이 40년 만에 다시 출간된 것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이 담긴 <열반경>은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에서 열반에 들기 직전 하루 낮과 밤 동안에 설하신 최후의 설법을 담은 경전이다.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열반경>이지만 그동안 번역된 책은 10여 권 남짓에 불과했다.

운허 스님이 저본으로 삼은 것은 <대반열반경>이다. <열반경>은 크게 북본(北本)과 남본(南本)으로 나뉜다. <북본열반경>은 421년 북량의 담무참(曇無讖)이 한역한 것으로 40권 13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북량이 망하자 학자들은 강남으로 옮겨 <열반경> 연구를 계속했다. 이 때 북본 번역에 결함을 발견한 혜엄과 혜관 등이 <대반니원경>과 비교 대조해 36권 25품의 <대반열반경>을 번역한 것이다. 이를 남쪽에서 번역한 것이라 하여 <남본열반경>이라고 한다.

이 경전에서는 단순히 부처님의 ‘육체적 죽음’을 넘어 부처의 본질인 깨달음을 얻는 지혜인 반야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얻는 자유의 경지인 해탈을 설명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멸을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 것이다.

또한 <열반경>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一切衆生 皆有佛性)’고 강조한다. 계를 지키고 공(空)을 닦음으로써 불성을 볼 수 있으며 육바라밀과 팔정도에 의한 엄격한 수행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반경> Ⅰ권에서는 <대반열반경> 1권 ‘서품’에서 18권 ‘어린 아기 행’까지, Ⅱ권에서는 19권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에서 36권 ‘교진여품’까지가 담겨 있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 **<2004 신춘문예 당선동화집>**(김옥주 외 지음, 고후식 그림, 동쪽나라, 8천5백원)=초등학생 진수는 부처님과 함께 구슬치기를 하고 컴퓨터 게임도 즐긴다. 이런 즐거운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화가 아닐까. 국제일보와 문화일보를 비롯한 13개 신문사의 신춘문예 당선작인 ‘춤추는 부처님’과 ‘토끼풀꽃’ 등 13편의 동화가 실려있다.



■ **<제3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 작품집>**(불교만화연구소 엮음, 5천원)= ‘제3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 수상작을 모았다. 1천여 편에 달하는 응모작 중 연꽃특별대상을 수상한 애니메이션 ‘당신은…’을 비롯해 연꽃대상 수상작인 단편 ‘금동이의 달마이야기’, 애니메이션 ‘암자를 태워버린 보살님’ 등 40여 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 **<솟대문학 53호>**(솟대문학 편집부,)=창간 13주년 기념호. ‘희망특집-시인 구상 · 스승 구상’에서는 <솟대문학>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故 구상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대표 시선, 화보 등이 담겨 있다. <고스톱 공화국>의 저자 이호광 씨와의 대담도 담았다.



■ **<추억연필>**(권태성 글/그림, 화남, 8천원)=인터넷 홈페이지(http://overkwon.com)에 자신의 추억을 담은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권태성 씨의 글과 그림을 묶었다. 가족과 친구에 얽힌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연필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 림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3	대승입능가경 외	동국역경원 편집부	동국역경원
4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 경 각
6	아! 붓다	틱 낫 한	반디미디어
7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 녘
8	화엄의 바다	관응 스님	밀 알
9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10	불교의 이해와 신행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지혜 기르고 행복 나누면 삶 풍성



행복하게 사는 법 아름답게 죽는 법

정재 스님 지음
행복한 세상 / 8천원

이 책을 쓴 정재 스님의 약력은 무척이나 짧다.

“1964년 도봉산 석굴암으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제방 선방에서 수행 정진했으며 지금은 도봉산 석굴암에 주석하고 있다.”

스님의 간단명료한 약력만큼이나,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 또한 분명하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스님은 “진정으로 행복으로 누리려면 먼저 지혜로움을 기르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행복한 삶은 진정으로 그렇게 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에게만 주어진다”는 부처님 말씀에 기반한 삶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

노교수의 아름다운 인생찾기



고지식과 외골수의 대화

정희돈 지음
우리출판사 / 1만원

영남대 정희돈 교수의 수상집. <고지식과 외골수>라는 책 제목에서 노교수의 인생관과 철학이 물씬 묻어난다.

“앞뒤도 잴 줄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과 오직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외곬이 서로 대화한들 무슨 결론이 날 것인가. 그저 자기식대로 살아가게 두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생각이 순수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말처럼 그는 ‘직장과 집을 오가는 일’을 되풀이하는 ‘매우 단조로운 삶’을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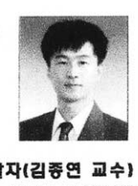
그런 그가 몇 년간 신문, 잡지, 회보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아 책으로 묶었다. 가족과 동료교수 등 자신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에게서 느낀 감상을 솔직하게 적어 내린 글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그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주 름

성형... 했니?
아직도 수술을 하세요?
"지금은 바르는 시대"
보톡스(Botox) 대안 화장품
미국 UCLA 피부과 피부테스트 완료
- 20대 ~ 70대 까지(남.여 공용)
- 눈가, 입가, 이마, 미간, 주름진 부위
※1994년 노밸의학상을 수상한 Dr.Martn Rodbell이 제시한 과학적 원리와 원칙에 따라 개발된 고품격 피부관리 제품
메디덤(주) 02)969-8080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 7시 ~ 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 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4년 3월 27일 토요일
군자전철역 4번출구 → 법왕정사 건너편 5번출구 능동주유소 앞 4시 30분 출발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김갑숙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온다 〈하〉


그림 · 김흥인

모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며 생활하겠노라고 원을 세워본다. 꼭 물질로만 주려하기 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보시라 믿기에, 부드러운 말과 웃는 모습을 보이는 '자안애어(慈顔愛語)'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는 불교에 귀의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됐다. 전에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녕을 비는 마음, 그리고 오직 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었다. 그런데 세월이 감에 따라 내 마음도 변하게 됐다.

일요일마다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스님들이 쓰신 서적을 탐독했다. 또한 방송을 듣고 현대불교신문을 정기구독했다. 스님들께서 지면을 통하여 법문해주신 주옥같

법문 듣고 불서 읽으며 이웃 위하는 마음 생겨

은 글을 읽은 덕분인지 나만을 위한 기도와 무엇을 받기만을 원하고 갈구하던 마음이 이제는 일체 중생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됐다.

항상 상대에게 주기보다는 받기만을 원했었고 조그마한 것을 줄 때에도 아까워서 몇 번을 생각한 다음 줬던 내 마음.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를 받아서 기뻐하는 마음보다 무엇인가를 건네는 마음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알게 된지 얼마되지는 않은 사람들이지만, 최근 이웃에 어렵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께서 이사를 오셨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몇 번을 뵌 다음에야 두 분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심을 알았다. 어느 날 우리 가게 앞에 힘겹게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 아이스크림 하나를 드렸다. 뜨거운 여름날이라

"왜 꽉꽉 채우려 했었나…나누면 이렇게 편한걸"

그냥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됐다며 손사레까지 치시면서 극구 사양하셨다. "할아버지 시원하니까 드세요"하며 걸봉지를 까 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게 그렇게 고마우셨는지 날 볼 때마다 말씀하신다. "애기 엄마 너무나 고마웠수"하고. 그 일이 있은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살 것이 있으면 항상 우리 가게를 찾으신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오셔서 또 말씀하신다.

"애기 엄마, 고맙수" 내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드린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렇게 고마우셨나 보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넘어서 내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다.

만날 때마다 "젊은이 고맙수" 하시는 할아버지 말씀이 나를 아직도 쑥스럽게 한다. 어느 때는 가게를 찾으셔서 내가 과일 한개라도 내어드리는 날이면 그렇게 고마워하실 수가 없다.

길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쳐 인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할아버지께서 꼭 '애기엄마'하고 부르신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올 때마다 조그마한 마음을 나누는 기쁨이 이렇게 큰 지 예전에 미처 몰랐었다.

지금에야 후회가 된다. 나누기보다 왜 그토록 꽉꽉 채우려고만 했는지…. 비우고 나누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앞으로도 내 욕심대로 꽉꽉 채우기보다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생활할 것, 그리고 불자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마음 갖기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전에 굳게 발원해 본다.

항상 측은지심을 가지고 상대를 보니 미워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어떤 행동이라도

내 마음이 편해지니 모든 인연에 감사할뿐

이해하게 되며 오히려 더욱더 잘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내게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도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항상 원망과 미움의 감정에 가득찼기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괴로워졌었다. 남에게 침을 뱉으려면 내 입에 먼저 침이 고여야 하듯이, 남을 미워하려면 내가 먼저 괴로움을 느껴야 하는 어리석음으로 내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미워하는 감정에 앞서 상대를 대할 때 측은지심의 마음을 먼저 가지니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가 없다.

상대가 바뀌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을 바꾸니 모든 게 화평하다. 이렇게 생활하니 우리 아들 딸도 바르게 성장한다. 정말 고맙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열심히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주신 은혜,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미흡한 저를 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돌봐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박선식
광명사 의료기 대표

나의 참선공부는 햇수로 8년째다. 입실(入室, 1대1 점검)을 지도해주는 스승은, 종달 노사의 뒤를 이은 선도회 제2대 지도법사인 서강대 박영재 교수다. 1996년 서강대 수도자 대학원(현재는 신학원)에 다닐 때의 일이다. 여러 신학과목 중 선불교라는 독특한 주제를 다루는 과목이 있어 수강을 신청했는데, 그때 박 교수님의 교과목은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내게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는 어김없이 견주굴(見主窟 : 선도회의 서강대 모임장소인 성당 옆 기도실)에서 도반들과 함께 모여 참선을 한 후 입실지도를 받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물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일들은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어서 잘못 되었을 경우 스스로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경우는 그 과정이나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만약 스

'선불교' 수강 인연으로 화두참선 자신감 평정심 축적…삶의 에너지원

승이 없다면 마치 사공이 없는 배를 타고 가는 경우와 같다. 배에 사공이 없다면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도 이를 알기 힘들고 방향수정 또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는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지표를 잃고 떠내려가기 쉽다. 그래서 '나'라는 배를 인도해주시는 스승과 함께 정진하는 도반들이 있기에 항상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참선수행 중 스승 앞에 제자가 마주앉아 자신의 경계를 내보이는 '입실'은 천주교에서 자신의 죄를 하느님과 사제께 고백하고 신앙의 지표를 구하는 '고해성사(告解聖事)'와 기능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입실지도는 스승 앞에 제자가 마주앉아 그간 닦은 경계를 나투면 스승은 듣고 있다가 그릇된 가지들은 가차없이 쳐내어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근기에 따라 이끌어 줄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어미 닭이 달걀 껍질을 쪼아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

어렵게 투과하는 화두는 그 만큼 소중하다. 매주 입실하지만 몇 주 또는 몇 개월 만에 간신히 투과하고, 어떤 경우는 투과한 화두에 대한 점검 화두가 뒤따르게 된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씩 관문을 투과해가면 그때마다 아랫배에는 자신감이 축적되고 마음은 평정을 되찾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일년에 두 차례 이상 실시하는 선도회의 철야용맹정진은 이러한 수행정진에 보다 큰 기둥이 되어 주고 있다.

일상사 거의 모든 과정을 선적(禪的) 마음가짐으로 투신해 본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주인공이며, 내 마음이 바로 존재와 일치하는 것이며, 불가에서 말하는 여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선업을 쌓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경계에서 활보하는 자가 되리라 확신한다.

민속의학자로서 자연건강을 연구하는 나의 직분에서도 참선은 매우 유용하다. 마음자세가 참선을 통해 단순해지며 깊어져 연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는 오히려 더욱 침착하고 대범하게 응대하여 상황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자주 경험하고 있다.

참선하는 크리스찬인 나는 천주교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靈)에 일치하는 좋은 방편으로 참선을 소개하고 있다. 불자들에게는 그리스도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들의 어록에 포함된 종지(宗旨)를 나름대로 성경에서 찾는 일에도 노력하고 있다. (계속)

33년 전통의 웅변 · 연설 · 설법의 도장

설법대학 제2기 학인모집

33년간 웅변, 연설, 설법, 대중스피치, 화술교육을 통하여 불국정토 구현과 대중화술 보급에 앞장서 온 대한불교웅변인협회에서는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을 설립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자님 및 일반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웅변인협회 회장 · 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 학장 표자원 합장

모집기간 및 개강일

◇모집기간 : 2004년 3월 12일 ~ 4월 12일
◇개 강 : 2004년 4월 15일(목) 오후 2시
◇강의일시 : 매주(목) 오후 2시 ~ 4시

모집대상

◇포교사 자격 희망자
◇설법을 요하는 스님
◇화술 스피치를 요하는 일반인 및 지도자
◇서예, 동양화, 사군자, 취미 및 전공 희망자
◇학원 설립 및 강사 희망자
◇대학진학 특기 장학생 희망자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 대학 소정양식 1통)
◇증명사진 3매

전국 웅변대회 개최

제34회 부처님 오신날 기념 웅변대회
◇일시 : 2548년 5월 16일 오후 1시

교 수 진

불교교리
◇표자원 스님 대한불교웅변인 협회회장. 광명사 주지, 서대문구 사암연합회회장.
◇무진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제2대 불교웅변인 협회회장.
◇표도철 스님 초대불교 웅변인 협회회장.

설법, 웅변, 연설, 화술
◇이종래 대한웅변인협회 전 회장, 국사원 원장.
◇손은봉 MSA스피치 아카데미 원장. 대통령상 수상(웅변부문)

성우, 방송
◇김계원 KBS 성우

서예, 동양화, 사군자
◇지촌허룡 단원전통 한국문인화, 한국미술, 현대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매창 안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회

건강의식
◇김기원 진주산업대 새생명광명회 대표.
◇이치란 세계불교도(WFB.WFBY)한국본부 사무총장, 해동불교대학 사무총장. 국제포교사
◇김삼경 박사 자연의학 연구가, 스리랑카 벨라나 국립대학 명예교수.

광명설법대학 전화 : 02)732-5509. 736-1895. 735-1896 팩스 : 02)723-4350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44-498 광 명 사 (3호선 무학재역 3번출구)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 3호)
TEL : 02)2266-9098,7550 FAX : 02)2266-7557 E-mail : kibosa@kornet.net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⑤

주제 :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중생 다 구제하겠다' 큰 마음 품어야


지상 백고좌

현산 스님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은 조계사를 가득 메운 3천여 불자들에게 "절대 많이 안다고 본래면목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며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깨닫는데 몰두하면 모든것 이룰수 있어

하늘의 해가 떠올랐다 지고, 또 계속 떴다지고 하면서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 사람은 금방 죽음 문에 당도합니다. 세월이 무상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이란 것도 역시 고달파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법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석자(三尺)도 못 되는 땅에 내 몸이 묻힐 것을. 요즘에는 납골당이라고 해서 화장해 버리면 금방 한 줌 재로 변해 버립니다. 금생에는 이 몸뚱이가 나(我)라고 생각했지만 한 줌 재가 되어버릴 것 같으면 과연 어떤 것이 나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이 몸뚱이를 '나'라 하고, 보이고 들리는 것, 냄새 맛 느낌 생각이 조건 지어지는 것들을 '마음'이라 잘못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은 말씀하시길, "이것이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하고, 혀에 있으면 맛을 알고 몸에 있으면 촉감을 느끼고, 손에 있으면 물건을 잡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고 아는 이는 이것을 '불성'이라 하지만 모르는 이는 '영혼'이라 부릅니다. 영혼과 불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둘 다 알맹이가 없는지라 모습 아닌 모습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바늘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처자권속이 많더라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올 적에도 혼자 왔지만 갈 적에도 이렇게 혼자만 가는 것이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삶이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바른 삶이라는 것은 가장 가깝게 있는 나를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나를 모를 것 같으면 바르게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은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중 여러분은 오직 이 순간에 가장 가깝게 있는 내 면목을 깨닫는, 그런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선(禪)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압니다. 컴퓨터다, 인터넷이다 해서 들어가 보면 갖가지 법문이 다 실려 있어요. 아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몸뚱이를 나로 잘못 인식

오조년래적학문(吾早年來積學問)하야 역증토소심경론(亦曾討疏尋經論)이로다.

분별명상(分別名相)을 부지휴(不知休)하니 입해산사도자곤(入海算沙徒自困)이로다.

이것은 영가현각(永嘉玄覺, 675~713) 스님의 <증도가(證道歌)>에 나오는 게송입니다. 영가 스님은 일찍부터 학문을 쌓아 공부를 많이 했고, 출가해서는 경론(經論)과 주소(註疏)에도 밝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인생 문제, 즉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명(名)과 상(相)을 분별하고 매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봤자 바다 속에 들어가 모래알을 세는 것과 같아서 그죌 날이 없구나. 아무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 많이 듣고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난 스님이 부처님 시봉을 40여 년을 했는데 부처님이 꾸짖기를 "네가 천 날 만 날 배우는 것이 한 날 참선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팔만 사천 대장경을 다 외우다시피 해도 결국엔 생사 문제를,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한다. 금생에 비록 네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렇게 부처님이 아난 스님을 꾸짖으신 바가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내 삶에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열반 후에 가섭 존자가 부처님 대를 이었는데, 고심하던 아난 스님이 가섭 존자에게 가서는 "사형님이시여, 금란가사 외에 어떠한 법을 부처님께 전해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난아." "예"하고 대답하니까 가섭 존자가 하는 말이 "절 문 밖의 찰간(刹竿)대를 꺾어버려라. 네 묻는 것이 분명하고 대단한 것이 진실하니 바로 이 법을 전수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여? 찰간대를 꺾어버리라는 소리, 묻고 답한 것이 분명한 그 자리, 그 정도는 여러분이 법문을 하도 많이 들었으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첫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이은 유명한 거사님이 인도에는 유마거사가 있고 중국에는 방거사라는 분이 있는데 방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있는 것을 비울지언정 비운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수많은 생각이 얽히고 설켜 한 찰나간에, 찰나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을 탁~ 튕기는 순간을 말하는데

분별 놓을때 번뇌 사라져

우리 중생들은 한 찰나에 생각이 900번이나 일어났다 죽었다 한다 그래요. 그러한 중생념을 다 지우고 비워야 되는데, 그걸 다 비울 것 같으면 본래 물질이라는 것이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어서, 물질과 마음이 없을 때 온전한 참 법계가 드러나고 내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남악회양(南嶽懷讓, 677~744) 스님께서 육조혜능 스님(六祖慧能, 638~713)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육조 스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다시 물으니까 딱 막혀. 그 딱 막혔을 때 알 수 없는 그것이 이 몸을 끌고 다니며 법을 배우러 왔다는, 그 자리를 그렇게 공부하기를 8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이라. 그 '이뭣꼬'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8년 만에 확철대오해서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아는 것 다 지워버려야지,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로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두를 들었을 적에 그것이 공부에 바로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닫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바른 길이 참선법이요, 부처님께서 역대 조사에게 전해준 법도 바로 이 법입니다. 화두 하나 잘 들어서 나 하나 바로 깨달을 것 같으면 더할 나위 없는 무한공덕, 무한 지혜가 드러나서 현실의 삶 속에서 신심이 저절로 실해지고, 현실을 바로 보니 욕망과 그 증애(憎愛)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되고, 지혜심성이라, 마음 편안해지고 깨끗해지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현실에서 자족을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가 아니에요. 시법(是法)이 주법위(住法位)하야 세간상(世間相)이 상주(常住)한다.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무나니 세간상 이대로가 상주불멸이라. 세간사 이대로가 법이라.

부처님 법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서로 싸우고, 부부간에 자식간에 불화하고. 이게 무슨 도 닦는 사람이에요. 그

현실에서 자비 행하자

건 바로 참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진실로 허망한 것을 느껴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법이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수행한 사람은 절대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다투는 일도 없고 항상 신심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지혜가 드러나서 삿된 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욕심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이에요.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느냐. 잘 들어요. 내 말이 아니라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선사 <유심결(唯心訣)>에 있는 말입니다. "무한한 지혜와 모든 공덕이 이 마음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마음공부라고 합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같이 증득한 것이 이 마음을 증득한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표현한 것이 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스님들이 찾아가는 것이 이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요 모든 역대의 조사가 전해준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전해준 것이로다. 천하의 총림에, 선원의 납자들이 참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참구하는 것이니 온갖 것이 이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산산 수수, 싸우는 소리, 계송 읊는 소리 모두 이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공덕과 능력이 넘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 어려운 점이 생기면 생각이 복잡하고 혼동이 와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걱정만 생기고 그럴 때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바로 인생의 모든 고뇌에서 해탈하는 법. 이 부처님의 법 만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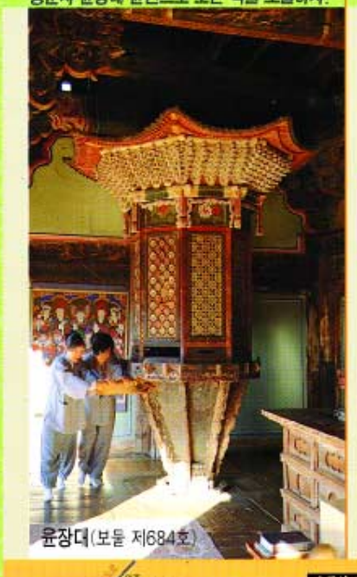


■ 현산 스님

1943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 화엄사 조실 도천 스님을 은사로 19살(61년) 때 출가, 64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6년 전부터 화엄사 선등선원장을 맡고 있는데 자상한 법문으로 이름이 높다. 노동을 통한 선 수행을 하고 있는 도천 스님의 '선농일치(禪農一致)'의 가르침을 받아 직접 목장갑을 끼고 절 살림살이를 돌보며 수행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응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대정전(보물 제145호) 목각판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영부전 지장보살 · 업경대 보광명전 삼존불 진영당 교지(보물 제725호) 자운루(문화재 자료 제143호) 영남제일강원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이어 왔으며, 의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천년고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윤장대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중생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우시며 영험한 부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올해 갑신년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풍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만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윤달에는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투어 모인다."고 합니다(<동국세시기>). 특히 윤달에 생전예수재를 행하기 전에 방생과 사찰순례를 먼저 하면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한층 더 할 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름있는 절들을 찾아 방생을 합니다.

용문사에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셔서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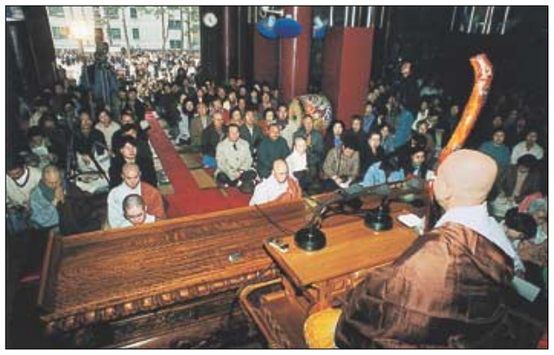


응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4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경천호수 (10분 소요) 용문저수지 (5분 소요)
대승사 10분 소요 김용사 30분 소요 용문사 50분 소요 부석사 30분 소요 청량사
40분 소요 봉정사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3월14일-조계사 대웅전)



자비를 현실에서 행하는 것이 빨리 부처가 되는 길임을 당부하는 현산 스님.

여러분도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시간 시간을 내 마음 깨닫는 데 전력할 것 같으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바로 깨끗하고 밝고 고요한 마음자리가 드러날 것 같으면 무엇 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배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항상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선하면 혜안 생겨

마음을 닦는 사람이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큰 서원을 가지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가짐,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전 중에 최고 가는 경전이 <화엄경>인데 <화엄경> 중에도 현실에서 바로 도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보현행원품'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처님은 자비심 덩어리입니다. 어떤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 당신 탓이고 다 내 몸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그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현실에서 쓸 때에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현실의 삶 속에서 바로 번뇌가 끊어지면서 도가 발현하는 마음가짐이 넉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미우면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게 인간이냐'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중생도 다 자비심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감싸 안아서 부모가 자식 생각하듯이 감싸 안아서 간절한 자비심으로 말할 때 그 사람도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현실에서 행할 적에 내가 편해지고 현실에서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밉고 독한 말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싸우고 뜯고 하면 그 사람은 공부가 잘 안됩니다. 서원을 세우고, 모든 중생을 다 내가 건져주리다. 모든 사람을, 지혜를 대신 받아서 해탈케 해 주겠다. 그런 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훨씬 빠릅니다.

오늘 이렇게 인연 있는 법회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한량없는 서원을 세우고 속마음으로 발원을 하면서 공부할 적에 공부가 더 빠르게 성취가 되고, 그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깃들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정리=권형진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기자가 만난 현산스님

시봉 안받고 서울 법문나들이 경전 배우고 너무 좋아 출가

"평생 걸망 지고 다녔는데 걸릴 게 뭐가 있나요. 아직 힘도 있고." 법회 시작 전 잠시 만난 현산 스님에게 "시봉하는 스님도 없이 혼자 올라오셨습니까?"하고 묻자 돌아온 답이었다. 스님은 '큰 차가 좋아' 법회 하루 전날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 도봉산 밑 절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했다. 15~16년전 은평구 수국사 이후 서울에서의 대중 법문은 처음이라는 스님은 "43년 3월 14일에 태어났으니까 세속적으로 치자면 오늘이 양력생일이네요"라며 봄 햇살처럼 수줍게 웃으셨다.

-출가는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였으니까 19살 때 했죠. 한문 선생님이 대흥사 스님이었는데, <능엄경> <반야심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때는 부정부패도 많고 깡패도 많을 때였는데, 깡패들이 시민들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무술을 배워봤자 총 한 방이면 끝이고, 대자대비한 부처님 가르침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출가했지요."

-수행담도 한 자락 들려주시지요.

"경봉 스님, 동산 스님을 모시고 수행했고, 그 뒤 전강 스님 밑에서도 한 3년 공부했어요. 24살 때 구산 스님 모시고 있을 때는 조계총림 유나 소임을 맡기도 했죠. 그리고…, 출가하자마자 일찍부터 선방에만 다녔지, 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스님을 꼽자면….

"동산 스님 열반할 때까지 모셨는데, 열반직전까지 계행이 청정하고 신심이 대단하셨어요. 모시고 살아보니 제일 소탈한 분은 전강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선방에서만 오래 계셔서 그런지 구김살도 없고…. 법문도 잘 해주시고,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은사이신)도천 스님은 천진불이시고 사심이 없는 분이에요. 세속 일은 관여를 안 하시고 공부하고 일밖에 모르죠. 낮에는 울력하고 저녁에는 참선하고…. 구산 스님도 원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죠."

법회 끝머리에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실 거냐고 묻자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법상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라고 말했다. "개인적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법에는 정치적 거래가 있어서는 안 돼. 잘 될 거야. 국민들이 깨어있고 다 알기 때문에."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2>



분노를 안고 사는 귀신

우리는 잘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다양한 이유로 화를 낸다. 자동차 운전을 들어보자. 자동차로 출퇴근 할 때마다 화를 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 힘겹게 비켜가야 할 때,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막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뒷차가 빨리 가라고 요란한 경적소리를 낼 때,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신호도 보내지 않고 갑자기 앞에 끼어들 때 입에서 욕설이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온다.

사실 화를 내보았자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를 분노케 하였던 차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어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을 해칠 뿐이다. 출퇴근 할 때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나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스승으로 생각하면 분노의 불꽃은 이전과 달리 오래 가지 않는다. 나 자신은 비록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어떤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 있으면 신호등을 제때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분노를 일으킨 사람에게 감사한다면 분노는 곧 사라지고 만다.

다음에 소개하는 경전도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상윳타 니카야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붓다가 사위성에 머무실 때 분노와 관련하여 말씀한 것이다.

"옛날에 흠측하게 생긴 야차가 신들의 왕인 제석천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것을 본 33천의 신들은 이 야차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였다.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못생긴 야차가 천신들의 왕인 제석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33천의 신들이 야차를 상대로 욕을 하면 할수록 야차는 점점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야차는 대체로 경전에서 살생을 일삼는 사악한 귀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제석천은 불법을 믿고 선행을 하며 거대한 힘을 가진 신이다. 사악한 야차가 33천의 신들이 모시고 있는 제석천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신들이 야차를 욕한 것이다. 그런데 거친 말을 하면 할 수록 그만큼 야차는 더 멋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야차를 도운 셈이 된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욕설을 받은 야차가 더 아름답게 되자 33천의 신들은 제석천을 찾아가 일어난 일을 보고했다. 제석천은 곧 분노를 먹고 사는 야차를 찾아갔다. 제석천은 야차에게 다가가서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손을 합장하여 존경의 예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 제석천은 야차에게 공손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사랑하는 이여! 저는 신들의 왕인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제석천이 이렇게 공손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야차는 점점 더 흉측해 지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제석천은 이것을 지켜본 33천의 신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마음은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분노를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다. 분노는 결코 끈질기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나는 화가 날 때 거친 욕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덕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 자신을 잘 제어한다."

상대방이 욕할 때 반사적인 욕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석천은 마음을 잘 단속하고 있는 사람에겐 분노는 일어날 기회를 찾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제석천이 분노에 대응하는 방식은 보통 우리가 하는 것과 판이하다. 자신을 무시하거나 욕하는 자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으로 분노를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알고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 윽박지르거나 맞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분노가 일어나면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도 새겨들어야 하겠다. 사람이 어울려 살다보면 화가 나지 않기란 힘들다. 그렇지만 일어난 화를 불잡아두면 홧병에 걸리고 자신을 해치게 되고 만다. 붓다는 화와 관련하여 세 종류의 사람을 들고 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돌에 분노를 새기는 사람이고 둘째는 분노를 모레에 새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분노를 물에 새기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분노를 돌에 새긴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하겠다.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면 분노 사라져 잘못한 자 스스로 허물 알게 하는 것이 최선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묻고 답하기' 현장

빙의 현상 나타나면 무심히 공부하세요

▲'능엄주'를 열심히 암송하는 보살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서옹 스님께서 열반하신 후 '능엄주' 구절 사이로 스님의 모습이 보이는 등 도무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길을 알려주세요.

"형상적으로 스승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맑고 깨끗한 본마음을 드러내 내 안의 선지식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보살님의 경우 영이 혼이 되어서 들어있습니다. 빙의 현상입니다. '능엄주'를 하는 사람 가운데 보살님과 같이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총기는 좋은데 현실에 끄달리다 보니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속세의 탐하는 마음도 작용한 것이고요. 그저 열심히 참회하면서 보시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본마음이 유지되도록 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 정 :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8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함하이웨이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 정 : 인천-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카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 4월 22일 149만원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쉐다곤대탑,까바예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4월 22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기리야 고대왕궁-담불라동굴사원-캔디의 불치사 (부처님치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4월 20일, 6월 6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사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추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빛이 윌등이 밝고 멀면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봄바람 살랑살랑 꽃비 내리는 벚꽃길

제주 이달 하순 만개
서울 4월 셋째주 절정

■ **제주 왕벚꽃-** 제주는 우리나라의 자생꽃 왕벚꽃의 군락지가 있는 곳이다.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은 3월 하순이면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수목원 안까지 왕벚꽃이 화사하게 피어 벚꽃터널으로 불린다. 이밖에 벚꽃 축제가 열리는 종합경기장 일대와 서귀포 시내, 외돌개, 북제주 중산간도로도 벚꽃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곳이다. 제주시청(064)750-7413

■ **부산 광안리-** 남천동 벚꽃길과 민락동 회촌을 연결하는 부산의 벚꽃은 주변의 볼거리 먹거리와 어울려 찾는 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3월말 어방축제로 불리는 부산 광안리의 벚꽃축제를 즐긴 후, 해운대 뒤편의 달맞이 고개를 올라가 보자.

바다를 낀 산길의 벚꽃과 달맞이 고개 중간 중간에 위치한 갤러리 작품들을 감상한다면, 향긋한 봄내음과 함께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다. 부산시청 (051)610-4071

■ **경남 하동 쌍계사-** 섬진강을 따라 화계장터부터 쌍계사에 이르는 10리 벚꽃길은 너무나 유명한 곳. 연인들이 이 길을 거닐면 백년해로 한다고 해 '혼례길목'이라 불리기도 한다. 벚꽃터널 옆에는 구불구불한 화개천이 흐르고 주변에는 보리밭이 초록빛으로 반짝거려 그 아름다움을 더 한다. 화개군청 (055)880-2371

■ **전북 군산-** 전주에서 군산으로 향하는 약 40km의 벚꽃도로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1975년도에 전주와 군산 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며 조성한 6천 4백여 그루의 벚나무들이 도로 양옆으로 쭉 늘어져 벚꽃의 향연을 벌이기 때문. 4월 초 만개하며, 이 기간동안 마라톤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펼쳐진다. 군산시청 (063)450-4225

■ **전북 진안 마이산-** 수많은 돌탑이 쌓여있는 진안 마이산에는 봄이면 어김없이 꽃비가 내려앉는다. 특히 마이산 남쪽 주차장에서 탑사 입구에 이르는 길의 벚꽃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해발이 높은 400m 고원에 자리해 4월 중순경에 꽃이 만개하는 만큼 미리 서두르지 못한 나들이 객들이 찾기에 좋다. 진안군청 (063)430-2228

■ **경남 진해 군항제-** 올해 42회째 맞는 진해 군항제는 오는 3월 27일 막이 올라 4월 5일까지 임진왜란 신호연 전시회와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로 꾸며진다.

축제기간 동안 시가지 일원에는 26만 그루의 20~50년생 벚꽃나무가 일제히 만개해 벚꽃세상을 만든다. 군항제 기간에 해군사관학교와 진해기지사령부가 개방된다. 진해시청 (055)548-2114

■ **전남 순천 송광사-** 4월 초 조계산 자락에서 송광사로 들어가는 길은 그야말로 벚꽃 천지다. 특히 27번 국도를 벗어나 송광사 진입로 양옆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숨이 막힐 정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061)755-0107

■ **울산 언양 작천정-** 울산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작천정은 언양읍내에서부터 쭉 이어진 벚나무들로 근사한 벚꽃터널을 이룬다. 또한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순에는 작천정 입구에 풍물시장이 조성돼 찾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을주군청 (052)229-7076

■ **서울 여의도 · 남산-**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길은 단연 여의도 윤중로.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윤중로에는 30년이 넘은 1천 4백여 그루의 벚나무들이 4월 중순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셋째주에 절정을 이룬다.

이밖에 북측 순환도로 3.5km 구간의 남산도로와 송파구의 석촌호수, 잠실의 주공아파트 5단지 길도 도심의 유명한 벚꽃길이다. 서울시청 (02)731-6114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극장가



허니(Honey) / 드라마 / 94분
개봉예정일: 3월 26일
감독: 빌 우드러프
출연: 제시카 알바, 릴 로메오, 메키 피퍼 등
80년대에 '플래시 댄스'의 알렉스가 있었다면 2004년에는 허니가 있다. 힙합음악과 함께 힘있는 춤이 함께하는 댄스영화. 안무가 허니는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과 작업할 기회를 갖지만 감독은 허니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녀는 자신만의 자선댄스 공연을 준비하게 된다.



아홉살 인생 / 드라마 / 105분
개봉예정일: 3월 26일
감독: 윤인호
출연: 김석, 이세영, 정선경 등
마니아층을 확보함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였던 위기철 원작소설 〈아홉살 인생〉을 영화한 작품. '아홉살이라면 인생의 쓴맛을 알 나이'라고 생각하는 소년 여민의 눈을 통해 70년대를 살아간 우리들의 자화상을 돌아본다. 화려한 스타 캐스팅은 없지만 진한 감동이 있는 영화.



마지막 늑대 / 코미디
개봉예정일: 4월 2일
감독: 구자홍
출연: 양동근, 황정민, 조희봉 등
잘 나가던 강력계 최철권 형사는 조용히 살아보려는 희망에 강원도 정선 파출소로 전근간다. 이 곳에는 범죄소탕 한번 제대로 해보기를 꿈꾸는 고정식 순경이 있다. 어느 날 파출소를 폐쇄한다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지고, 정반대의 꿈을 가진 최형사와 고 순경은 충돌하게 된다.

전시

화폭 가득 담긴 법향

일장 스님 '선서화 초대전' 신라문화원

신라문화원은 개원 11주년을 맞아 일장 스님의 '선서화초대전'을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초의선사' '포아관음' '동자그림' 등 총40여점. 산사의 고즈넉하고 포근한 정취를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담아낸 작품들은 일장 스님의 그림세계를 엿보기에 손색이 없다.

일장 스님은 "번잡해진 우리의 마음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마음으로, 반야와 화합이 깃든 불국토의 세계를 화폭에 옮겨보려 했다"며 "이번 전시회가 또 다른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54)774-1950



일장 스님의 선서화 '화경'.

순환하는 우주 에너지 이주희 '깊고 깊은 그리움… 환희' 전



이주희 씨 작품 중 '의식과 무의식…환희'.

연꽃을 통해 순환되는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와 의식 및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이주희 씨 작품전 '깊고 깊은 그리움…환희'가 3월 30일까지 인사동 이형화랑에서 열린다.

'하심…환희' '생성…소멸…환희' '의식과 무의식…환희' 등 총 17점의 작품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인간의 삶에 대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영원성 등 동양철학, 특히 불교의 윤회를 부드럽고 포근한 화면 구성과 따뜻한 색상으로 보여준다.

이주희 씨는 "연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닮고 싶은 마음으로 그림을 하나하나 완성했다"며 "이 과정을 통해 진여자성의 참 나를 찾고 싶었고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02)736-4806

20면 상식 퍼즐 정답

선	원		신		대		언	사
무	아	지	경		종	무	행	정
	모		전	등	사		일	
합	집	합		기		국	치	일
		창	문		동	산		
사	절	단		수		품	평	회
	대		기	준	점		화	
이	지	가	지		유	한	회	사
마	대		개		물		담	석

각 나라 차문화 배우고 찻잔 받자

인사동 일광정사 '차와 좋은 만남전'

중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국의 차문화를 알고 싶다면 인사동 일광정사가 준비한 '차와 좋은 만남전'을 찾아보자.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중국 다구 전시를 비롯해 매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열리는 강연과 차음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에게서 다양한 차문화를 배우고, 참가비 1만원을 내면 찻잔도 받을 수 있다.(02)733-2325

3월 24일	15시 개막 다회
25일	14시 말레이시아 차문화 15시 중국청궁다연 17시 반종성 돌조각 작품전
26일	14시 싱가폴의 차문화 15시 보이차의 과거와 현재 17시 차와 음악
27일	14시의흥 다기제작과정 15시 대만 고산차 17시 차와 꽃
28일	14시 홍콩 차문화 15시 대만 철관음 17시 차와 그림
29일	14시 일본 차문화 15시 차와 음악 17시 대만 차문화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07:00 뉴스
10:05 BBS 신행상담실
12:20 백팔가요
15:05 음악의 마을
18:15 유쾌한 저녁길
21:05 경전공부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TV 〈ch 32〉

24일 12:50 불교TV 스페셜
25일 09:10 밥상에 도가 있다
26일 15:25 건강하게 삽시다
27일 08:30 성운대사 불경강좌
28일 09:4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29일 16:05 하재봉의 영화로 본 불교
30일 09:10 디지털 동의보감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BBS 신행상담실(3월 25일 10:05~10:55)- 불교 교리와 신행 생활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전화 상담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 매주 수 · 목요일에는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지묵 스님이 출연해 선불교와 대승불교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불교텔레비전:** 정세채 교수의 선식건강법-밥상에 도가 있다(3월 25일 09:10~10:00)- '생명 에너지, 생강을 말하다' 편. 동의보감에서도 담을 없애고 차가운 기운과 종기를 제거하는 동시에 천식을 다스린다는 생강. 항균, 항염, 항응고작용 등의 생강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본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천은사 보리수백팔염주

보리수 중 가장 품질이 좋은 정읍 천은사 보리수 씨앗으로 만든 백팔염주. 백팔배 정진때 사용하면 더 없이 좋은 제품. 사이즈별로 소 · 중 · 대 염주가 준비돼 선물용으로도 좋다.

크기 약9mm, 가격 소 4만원, 중 5만원, 대 6만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우곡선원 참선교육 우곡선원(www.zenkorea.org)이 부산과 서울에서 제 20기, 21기 참선 교육을 실시한다. 참선교육은 부산선원에서 3월 30일~4월 10일까지, 서울선원에서 4월 6일~17일까지 진행되며, 4월 11일에는 만행정진 시간도 마련된다. 수행시간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10시, 토요일 오후 3~6시. (02)2055-3111

한마음 선원 다도 · 요가강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재가불자들을 위한 교양강좌 다도와 요가를 진행한다. 다도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시작되며, 요가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062)373-8801

창원 서원사 선원장 초청법회 창원 서원사가 3월 26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선원장 초청법회를 연다. 제주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과 40여년간 장좌불와 중인 대해 스님, 곡성 태안사 선원장 종대 스님, 문경 대승사 선원장 탄공 스님 등이 법문한다. (055)291-6405

원명선원 참선교육 제주 원명선원이 참선전문 과정인 '선불장'을 개원한다. 대효 스님의 문답식 법문으로 진행될 이번 과정은 4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8시,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064)755-3322

부여 문화재 안내 일본어강좌 국립부여박물관이 5월 20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재 안내 일본어 무료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문화재 관련용어와 전시실 안내 실습, 우리고장 문화재 일본어로 안내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단 30명에 한해. (041)833-8562

마포문화원 법안명상기공강좌 법안명상기공회가 몸과 마음 수련 '법안명상기공강좌'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마포문화원 문화학교에서 실시한다. 보덕현호선사의 지도로 진행될 이번 강좌는 초 · 중 · 상 · 고급반으로 나눠 각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02)312-1100

시조배우기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관내 3층 교육실에서 '시조반'을 진행한다. 또한 1층 취업알림방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02)804-4058

함께 해요

장애아동가족 일일휴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부모의 여가 및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동가족일일휴가프로그램 '엄마, 아빠 힘내세요!'를 매주 토요일 실시한다. 휴가프로그램은 장애아동과 자원봉사자가 1:1로 연결돼 사회성 · 정서함양 프로그램,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진행한다.(02)831-2755

도자 및 전통염색 교실(사진)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박물관 도자 및 전통염색 무료교실을 연다. 도자기체험은 흙끈말아올리기 작업부터 상감, 점토판 성형, 유약 등을 중심으로 매주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전통염색교실은 치자, 괴화, 오배자 등 식물염료를 이용해 명주에 염색하는 우리나라 전통염색기법을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재료비는 각자 부담.(02)398-5073



청소년 현대미술체험 국립현대미술관(www.moca.go.kr)이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현대미술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미술관 관람법과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현대미술관 하이라이트 작품감상, 역사와 함께하는 한국미술 감상, 세계의 현대미술 감상 등 주제별 3개 그룹으로 편성 · 운영된다. 4,5월 강좌 참가신청은 3월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02)2188-6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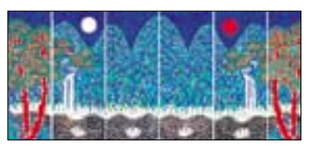
자선음악회 대구 보리수중창단이 3월 26일 오후 7시 30분 대덕문화전당에서 '제1회 보리수중창단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연꽃 피워 오르기, 농부가, 뱃노래, 경복궁타령 등의 노래를 선보일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청년불자 박원구 돕기성금으로 쓰인다. (053)622-0703

미수 허목 특별전 삼척시립박물관이 개관 4주년을 맞이해 역대 삼척 부사 중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미수 허목선생을 추모하는 특별기획전을 3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033)575-0768

창업안내강좌 중소기업은행(www.kiupbank.co.kr)이 소자본 자영업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안내강좌를 3월 26일까지 기업은행 본점 15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강좌는 올해 창업유망업종 및 아이템,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방법,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성 분석, 창업 자금조달 및 금융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단 선착순 200명. 참가비 1만원. (02)6322-5196

전통차와 함께 고궁나들이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가 '우리 전통 차예절 체험'을 3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창경궁 내 영춘헌에서 진행한다. 매주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이번 체험은 차문화의 이해 및 생활예절, 차예절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02)701-0475

조선시대 궁중장식화(사진) 국립춘천박물관이 조선시대에 궁중과 민간에서 사용했던 장식화를 주제로 '조선시대 궁중장식화-태평성대를 꿈꾸며'를 3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왕실의 장식품으로 쓰인 병풍, 왕실 내 기념행사를 그린 기록화, 화조화, 일월오봉도, 심장생도 등 총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033)260-1500



관광사진공모전 서울시관광협회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제9회 서울관광사진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 서울의 역사, 문화, 쇼핑, 예술행사 등 관광서울의 모습을 담은 미발표작이면 모두 출품가능하며, 1인당 최대 5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단 규격은 11″×14″. (02)757-7482

즐겁게 떠나요

안동 하회마을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3월 28일 안동 하회마을로 문화답사를 떠난다. 조선시대의 양반가옥과 서민주택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번 답사여행은 하회별신굿 탈춤공연과 함께 여행의 색다른 묘미를 선사한다. 성인 3만 8천원, 어린이 3만 3천원. (02)725-1234

산유수축제 부산여행자클럽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산수유축제(3월 19일~28일)를 맞아 28일 문화기행을 떠난다. 산유수마을과 함께 화엄사, 지리산 온천랜드 등을 두루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어른 4만 5천원, 어린이 3만 5천원. (051)462-1391

연어테마여행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3월 24일 연어 방류행사가 열리는 강원도 양양 남대천과 연어연구센터로 연어테마여행을 떠난다. 또한 4월 5일까지 아쿠아리움 민물전시장에서는 '살아있는 연어 일생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는 연어 치어 1천여마리와 함께 연어의 산란과정, 발생단계 등이 모형으로 전시된다. (02)6002-6200

“탱크 빼곤 다 있어요 다녀오면 돈 법니다”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 알뜰 속 알뜰쇼핑

일명 ‘도깨비 시장’으로 불리며 ‘탱크 빼고는 다 판다’던 서울 황학동 벼룩시장. 우리네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들로 사랑받던 곳이었지만 청계천 복원공사와 함께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도깨비 시장은 지난 1월부터 동대문운동장 내에 둥지를 틀고 ‘풍물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날씨가 풀리면서 제법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요즘,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


풍물시장에는 각종 고미술품도 눈에 띈다.

고미술품·옷·악세사리 등 900여 좌판에 빼곡
보는 재미 쏠쏠…흥정 잘하면 가격 깎아줘

진귀한 물건 가득

◇볼거리= 청계천 시절과 마찬가지로 동대문 풍물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

900여개의 빼곡한 좌판대 사이를 지나는 사람들도 물건을 사기보다는 구경하기에 바쁘다. 전자제품, 의류, 건강보조기구부터 동양화, 병풍, 도자기 등 고미술품까지 종류도 다양한 상품들이 순서 없이 늘어져 있다.

그래서 풍물시장은 흡사 온갖 잡동사니가 모인 거리의 박물관을 연상시킨다.

“나 인터뷰 같은 건 안한다”며 끝까지 이름 밝히기를 사양한 골동품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도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한데다 구경꾼 어르신들의 설명이 곁들여져 생생한 삶의 교육현장이다”고 자랑했다.

기자도 한 시간이 넘게 주인아주머니의 입담과 ‘먹통’, ‘액운방지 호랑이이빨’ 등에 대한 구경꾼 아저씨들의 자상한 설명에 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옛날자장 한그릇 2천원

◇살거리, 먹을거리=풍물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물건은 각종 생활 소모품. 이곳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시계는 1천원대부터 2만원대까지다.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필수품인 방수 전자시계도 5천원이면 산다.

의류도 저렴하기는 마찬가지. 봄맞이 운동복은 상하세트 1만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흰 티셔츠도 한 장에 2천원이다. 흰 남방은 5천원, 넥타이와 넥타이핀 한 세트가 1만원이라 정장상의 마련하는데 2만원도 들지 않는 셈이다.

중고 명품 좌판도 눈에 띄는 아이템. 샤넬, 프라다, 버버리 등 명품 지갑부터 핸드백, 숄더백까지 갖가지 제품을 구비해 놓고 있다. 가격은 1만원부터 30만원선까지. 백화점에서 명품 손지갑 정가가 최소 15만원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각종 고미술품도 이곳에서는 상상이하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지금은 흔치않은 옛날 놋수저, 약저울, 먹통, 연적 등은 1만원. 크기, 모양, 출토시대가 각각 다른 도자기류는 6, 7만원부터 10만원선이다.

높이 1m 가량의 달마상은 30만원대. 중간 크기의 청동 불상, 관세음보살상 등은 150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흥정만 잘하면 5천원 정도는 가볍게 에누리 할 수 있다. 다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만 원 이상 할인되는 후한 인심도 만날 수 있다.

구경하고 흥정하느라 출출한 이들을 위한 먹을거리도 있다. 이곳에서는 단돈 몇 천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옛날자장 한 그릇, 반주로 곁들이는 막걸리 한 병, 돼지껍데기 1인분이 각각 2천원이다.


동대문운동장에 늘어선 900여개의 좌판대가 도깨비시장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연중무휴…해질녘에 파장

◇풍물시장 정보=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오면 동대문운동장 간판이 보인다. 시청, 종로에서 도심순환버스인 엘로우버스를 이용해도 쉽게 갈 수 있다.

보통 10시~11시 사이면 대부분의 좌판이 장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탓에 해질녘인 6~7시면 문을 닫는다. 연중무휴.

글 · 사진=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단 / 신

사찰음식 축제 4월3일부터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 스님)은 4월 3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평택 수도사에서 ‘전통사찰음식 축제한마당’을 연다.

연구소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메주, 고추장 등 전통장 담그기, 사찰 두부 및 두부요리 만들기, 각종 사찰요리 작품관람 및 무료 시식하기 등이 마련됐다. (02)355-5961

주부클럽, 신사임당상 공모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는 5월 17일 제 36회 신사임당의 날을 기념해 신사임당 상을 수여한다.

이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신사임당 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만 55세 이상의 기혼여성 가운데 문학과 예술에 뛰어나며, 사회참여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사람이면 추천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각종 제출서류와 함께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에 접수하면 된다. (02)752-4227~9, www.jubuclub.or.kr

현장에서 만난 우바이

수필가 맹난자 씨



글쓰며 강의·포교까지 ‘분주’

죽음 주제 세번째 수필집<묘지기행…> 곧 출간

글에는 글 쓰는 사람의 향기가 묻어있다. 특히 자신의 주관과 철학을 담는 수필에는 그 향기가 진하게 배어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필가 맹난자(62) 씨의 글에서 나는 향기는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불교철학이다.

맹 씨는 특히 작품을 통해 죽음을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표현하는 죽음은 결코 무겁거나 어둡지 않다. 죽음으로 불교관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1998년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를 시작으로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등 ‘죽음’을 주제로 한 책을 잇달아 펴냈다. 그리고 3월 26일 죽음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수필집 <묘지기행, 인생은 아름다워라>가 출간될 예정이다. ‘세계 작가 묘지 기행’이라는 부제처럼 맹 씨가 직접 전세계 작가 30여명의 묘지를 방문해 역시간적 흐름으로 그들의 죽음과 삶을 조명했다.

“책을 펴내면서 정치인, 철학가, 작가, 선사 등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삶을 돌아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죽음의 중심에는 불교의 죽음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의 열반을 두고 ‘오직 열반락 만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일화처럼, 불교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결국 죽음마저도 초탈하는 공부를 통해 현재 나의 삶을 단단히 껴안고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맹 씨가 이처럼 불교에 빠지게 된 본격적인 계기는 1960년 이화여대 국문과 1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박종홍 선생의 논문 <금강경의 공사상과 야스퍼스의 실존주의>를 읽고 발심해 불교 동아리를 조직했다. 이웃 대학생들과 함께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정각사에서 김동화 박사의 경전강의를 수강했다.

이후 1969년부터 10년 동안 월간 <신행불교>의 편집인을 맡으며 체계적인 불교 사상과 교리를 배우기도 했다. 또 이를 통해 자연히 불교철학을 주제로 글을 쓰는 기회도 갖게 됐다. 불교관련 잡지, 신문 등의 기고를 통해 ‘불자 수필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에세이 문학> 편집위원, ‘자비의 말씀 풍경소리’ 편집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올 3월부터 달마문예대학에서 산문반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제 2의 김성동 같은 작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훌륭한 문학작품을 발표하고, 나아가 비주얼 시대에 걸맞게 영화, 드라마, 연극화 돼 불법을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활발한 강의활동과 더불어 풍경소리 편집위원장으로서 4월 <풍경소리 모음집 2>의 발매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그는 법구 한 구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심코 지나가다 풍경소리의 구절을 읽고 마음이 정화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포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사람 한사람이 청정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라 생각합니다. 이런 서원으로 제가 있는 자리가 법당이요, 제가 하는 일이 불사라 여기며 계속 매진할 겁니다.” 한상희 기자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 仁 製 藥(株)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물 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 온 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 다양한 형태의 묘지설치
▷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 이장 무료상담
상담전화 : 031-775-0114



찻자리에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차가운 돌과 쇠로 만들어진 찻잔받침이나 찻상, 다반(茶盤) 등을 상상할 수 있을까? 찻자리를 한결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차 목공예품을 만들어 온 차정보(46) 씨를 그의 일곱 번째 개인전에서 만났다.

자연위에 올려진 차한잔 '폼나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차 목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목수 차정보씨. 사진=박재완 기자

차정보씨는 대학을 다니다 어느 날 문득 목수로 변신했다. '죽을 때 까지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목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곤 경남 창녕 화왕산 기슭에 작업실 '다천산방'을 열었다. 그가 주로 만드는 것은 차와 연관된 목공예품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작품들도 찻상과 다기장, 다반 등이다.

"어릴 때부터 스님들께 한두 잔씩 차를 얻어 마시면서 차를 즐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차를 마실 때 필요한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누구에게 목공예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던 탓인지 지칠 줄 모르는 그의 노력 덕분인지 그



의 작품은 "차맛처럼 은은하고 향기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을 손수 만들고 다듬어가는 과정 탓에 개인전도 2~3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열지 못한다. 그마저도 작업실과 가까운 부산과 대구에서 주로 소개됐다.

"잘 쓰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물건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나뭇가지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다반도 그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작품이다. 바닥에 놓인 다반을 들어올리기 쉽게 하는 손잡이 역할도 하지만, '다반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도 결국 처음에는 나뭇가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가 만든 작품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 나무의 결과 구멍, 쪼개짐을 그대로 살려두기 때문이다. '생긴 그대로'의 모습이다. '바보찻상'이라고 이름붙인 찻상은 네모반듯한 다른 찻상들과 달리 울퉁불퉁한 나뭇결을 살린 모습이 '바보'로 취급받는 현실을 웅변하는 것이다. 각 작품마다 제작할 때의 느낌이나 계절의 흐름을 읊은 글로 조각해 두는 것도 그만의 특징이다.

'가장 정직한 일' 목수 선택
'은은하고 향기롭다' 평
나무, 생긴그대로 멋 살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작업

"나무는 정성을 들인 만큼 윤이 납니다. 정직한 물건이죠. 만들 때는 쓰는 사람의 마음으로, 쓸 때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으로 한다면 오랫동안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나무를 만지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는 3월4일부터 서울 종로 가진화랑에서의 12일 간의 전시를 마치고 '물소리와 나무향기' 가득한 자신의 작업실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055)521-2533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청주 BBS 찻사발 특별전

청주불교방송(사장 지원)은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500년만의 귀향-조선 찻사발 특별전'을 선보인다.

청주불교방송 개국 7주년 및 사옥이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 전시회에서는 일본에서 사용되어 온 조신찻사발 40여 점이 선보인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일본 노무라 박물관 타니 학예부장과 일본 고려미술관 김파망 씨의 강의와 행다시연 및 들차회, 차음악회 등도 마련된다. (043)294-5114

日, '녹차 항암 효과 일부 규명'

녹차의 떫은맛을 내는 성분인 에피가로카데킨가레트(EGCG)의 암 억제 구조가 일본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다.

일본 규슈(九州)대학 다치바나 히로부미(立花宏文) 조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유방암과 폐암 등 악성 암세포의 표면에 녹차 2~3잔을 마셨을 때 혈액에 흡수되는 정도의 소량의 EGCG를 첨가한 결과, EGCG가 암세포 표면의 단백질에 들러붙어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사찰 차 모임 — 법륜왕사 석정원 차회

차 문화, 정신 일상화



2월7일 성신여대에서 열린 제5회 지도자 연수에서 회원들이 선혜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다.

법륜왕사 다도회 '석정원'은 문턱이 높기로 유명하다. 들어가는 문턱이 아니라, 졸업하는 문턱이 높다는 말이다. 회원들의 '수강카드'를 보면 길게는 15년 전부터 꼬박꼬박 출석체크를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차문화속에 담긴 정신문화와 풍류생활, 예절의 법도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게 한다"는 설립목적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석정원을 이끌고 있는 선혜 스

교육엄격, 졸업 까다로워
15년 공부해야 '교수' 인정
고전강독등 이론 실기 겸비

님의 교육은 엄격하다. 보통 1~2년만에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여타 교육기관과는 달리, 석정원에서는 3년 5개월 과정을 마쳐야 '생활차 교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진정한 '차 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동안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기본교육인 5개월 과정의 생활반과 각각 3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기초과정 '예급(禮級)', 중급과정 '지급(智級)', 고급과정인 '선급(禪級)'을 모두 거친 후 5년에 걸친 연구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교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생활차 교수' 과정을 거친 사람만도 500여 명이 넘고, 현재는 100여 명의 수강생이 차인의 길을 걷기 위해 수업을 받고 있다.

1980년 다도교육을 시작한 선혜 스님은 86년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차 전문가를 양성해 왔다. 그동안 사찰헌공차례와 다담상차례, 부도차례 등을 발표해 온 석정원은 일반적인 차예절 강좌뿐만 아니라 차문화 이론교육, 고전강독을 병행함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차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1월 둘째 주에는 2박3일간의 연수를 통해 그동안 배운 것을 익히고 5월에는 선혜 스님이 일구는 보성의 반야다원을 찾아 제다실습을 한다. 6월에는 새로 나온 차로 품다회를 , 겨울에는 송년다회를 열기도 한다.

"물(음)과 불(양)이 솥을 만나 조화를 이루고, 이 탕수(湯水)가 차를 만나 색향미기(色香味氣)로 조화하는 것이 다도입니다. 차를 달이고 마시고 예절을 행하는 과정에서 중정(中正)의 도를 익히는 것,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 바로 다도의 목적입니다."

인터뷰 선혜 스님

연구서적 부족 절실, '차문화사' 출판 예정



"30여 년 동안 차를 배워왔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다양한 제다법을 익히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성신여대 예절다도학과 겸임교수였던 선혜 스님이 오는 4월 초, 강단을 잠시 떠난다. 중국 항주시 절강대학교에 연구교수로 가게 됐기 때문이다.

"일단 1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강의 외에도 복건성과 운남성, 사천성 등을 두루 돌아다니며 중국의 제다법을 배워올 생각입니다."

귀국한 후에는 성신여대 교수직도 내 놓고 30여 년 차생활을 정리해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차 전문 연구서적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차문화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책을 써 볼까 합니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법비가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감로법비의 성지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매년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밤,낮 없이 법비가 내리고 92년 10월 29일 찬란한 무지개 발현. 11월 8일 오색불꽃이 발현. 새벽기도중인 신도들을 감탄케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와 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계신곳 동해사에 오시어 삼사순례도 하시고 10분기도로 한가지소원을 몸소 채험해 보세요.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흥복사 · 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모든 걸 한군데다 모아서 들이고 내라

귀신 방귀씨를 틔우려면

문 스님 말씀 중에 귀신 방귀씨 말씀이 나오는데, 귀신 방귀씨를 덜 먹이면 배고파 죽고 귀신 방귀씨를 더 먹이면 배 터져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귀신 방귀씨를 알맞게 잘 먹여서 키울 수 있나요.

답 마음 소를 기를 때는 방귀털을 먹여서 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귀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빛깔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털은 빛깔도 없고 쥘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털 자체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구요.

방귀라고 하는 거, 귀신 방귀털이라 그러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있는 거, 이게 어디 보이기나 합니까? 지금 속으로 설계를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놓은 것마저도 공했는데 어찌 그것이 그렇다고 말을 안 하겠습니까? 판치생모니 뭐니 하고 모두 말해 놓은 것이 전부 덫을 놓은 겁니다. 덫을 놓은 건데 그 덫에서 그걸 알아내고 빠져나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결국은 한 주먹이 전체의 주먹 안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말로 해서

일체를 얕고 높은 게 없이 내 주인공으로 생각하라

도 되는 게 아니니 어찌 그걸 말로 하리까!

그래서 '대나무 방귀씨를 심어서 대나무 귀신 방귀털을 먹여서 키운다. 그런데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나한테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필요도 없고 오는 거 마다할 필요도 없이 오고 가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이겁니다. 놓고 가라는 것이죠. '거기서만이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거니까, 모든 건 네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놈이 다 알아서 할 게 아닌가! 네놈이 이끌어 줄 거고 네놈이 다 할 거고, 몸도 네 시자니까, 네 종이니까 네가 건강하게 해서 이끌고 다니려면 이끌고 다니고,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왈칵 그냥 다 놔 버리는 거죠.

마음을 돌려서 굴려놓는 자체가 바로 무의 사무 사유, 이것이 팔입니다. 팔 수레공법이란 말입니다. 이 모두를 본다면 하나하나가 그냥 그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여러분이 다 지어 놓은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냥그냥 살아가는 거 같지만, 그냥 이끌려서 매달려 가는 셈입니다, 살아나가는 게.

그러니 우리 모두 마음을 잘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아주 풍요롭게 하고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려면 세계를 풍요롭게 할 줄 알아야 나라를 풍요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다가 또 수없이 인연 따라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짐승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한생각에, 내 마음 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수없이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무명을 벗겨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짐가짐, 그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말겨 놓는다면, 바로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고 아주 그 평등공법, 활궁공법 이런 문제들이 그냥 수없이 자동적으로 솔솔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발전하는 것도,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 중력에 대해서 캐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발전하는 것도 인연의 상대방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홀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 모두가 차원대로에 높은 것입니다. 차원대로 높은 것이다 하는 거는 얕고 높고가 없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대로에 높고 또는 공업 하는 사람은 공업 하는 사람대로에 높고, 상업 하는 사람은 상업 하는 대로 높고. 왜? 이거 하는 사람을 저거 하래도 못하고 저거 하는 사람을 이거 하라고 해도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얕고 높은 게 없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다 내 주인공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고, 가정에서나 나가서나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하러 들어왔더라도 남을 증오하지 말라! 모든 거를 내 주인공에다 맡기고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대로 칼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청년들 한 무리를 만났는데 도무지 돈 내놓으라고 하도 칼을 들고 야단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급하니까 '주인공! 모두가 둘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그냥 거기다 맡기고 급한 나머지 막 그냥 부르다가 보니까, 스님도 부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에이! 이놈 봐 봤자 시간만 낭비해!" 그러곤 가더랍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력을 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창조력을 길러야 되고 창조를 해내야 되고…. 우리가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덜 먹이지도 말고 더 먹이지도 말고 알맞게 먹여서 중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세요.

마음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막히는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도 마음을 일으킴이 아닌지요. 함이 없이 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 그러한 것은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요. 잡힐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답 먼저 우리 생활이 불교요, 불교가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 빼놓으면 생활이 없고, 생활을 빼놓으면 불교도 없습니다. 또 망상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 없고 망상이 없다면 부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목석이죠. 그렇게 모든 게 뒷받침이 되는 거니까,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한 군데다 모아서 들이고 내라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에다 모으면, 이것은 원자 자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한번 마음을 내서 거기 놓으면 그냥 타 버리는 격입니다.

그러면 왜 법이 되느냐? 한 사람의 생각이, 일체 만생의 생각이 한꺼번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그것이 일체 법이 되는 거죠, 개별적인 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급하면 급한 대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때에 따라서는, 급하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지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지금 당장 힘이 듭니다. 어떻게 잘못돼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한다면 여기에서 한생각으로 금방 "그렇습니까?" 하는 동안에 벌써 거기로 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한 점의 마음이 의사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보현도 될 수 있고, 문수도 될 수 있고, 관세음도 될 수 있고, 또는 지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용왕도 될 수 있고 산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젓 자유자재할 것을 여러분이 참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 못할 때는, 여러분이 기계를 갖다 놓고도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못 쓰는 거죠.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계를, 기계라고 해서 안됐지만 사람이 무한의 자유권을 가졌다는 거를 아주 상실하고 색으로만 보고, 항상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아주 다양하게 쓸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배어 버렸단 얘깁니다, 누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관을 통해서 내 한 점의 마음속에, 자가발전소도 있거니와 원자력도 거기에 있고, 여러분이 안방에 앉아서 테레비를 보면 세계를 바로 보는 듯이 다 봅니다. 그와 같이 거기에 천체망원경도 있는 것입니다. 또 천체무전기도 무전통신기도 있고요, 전자력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서 내가 때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한 점을 믿는 마음에 달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찾는 데에 달려 있고 활용하는 것은 지혜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나한테 보배를 두고도 쓰지 못하는데 지혜가 풍부하다면 그 한 점의 보배를 가지고 천체무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급하다면 말입니다.

옛날 신라 때에 이서고국이라는 나라에서 신라를 쳐들어 올 때의 얘깁니다. 요건 간단하게 예를 들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구요. 우리가 조그마한 나라지마는 너무 아픔을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역사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군졸이 모자라게 됐고 각 중에 그런 일이 생기니 너무나 당황해서 그 신라의 인군은 상당히 초조한 감을 가졌더랍니다. 그런데 미추왕이라는 분은 그때 시절에 벌써 능에 들어가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 군이 모자라서 앨 쓰고 싸우러 나갔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내 한 점의 마음이 의사도 판사도 될 수 있어

겪을 고때 댓이파리 하나씩 꽂은 그런 군졸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그런 군병들이 한데 합세를 해서 그것을 밀어 제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구선 온데간데가 없었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된다는 점을 말입니다. 온데간데가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시켜서 찾아봐도 도대체 흔적이 없어요. 그랬으나 그 미추왕 능에 가 보니까 거기에 그 댓이파리가 수북하게 놓여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근거지를 찾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던가.

내가 항상 말을 하지요. 우리가 마음으로서의 차원이 높으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말없이 그 문제를 분신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일체 만물만생과 둘이 아닐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참 살아서도 나라 걱정을 했거니와 죽어서도 나라 걱정을 하기에 이르르게 되고, 또 나라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그것만 안 것이 아니라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그 오신통을 부리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의 한 점을 응용해서 모든 그 민간인들을 풀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그 한 점의 마음에서 바로 그분들을 응용해서 분신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분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분 그분이 됐다면은 얼마

☞30면으로 계속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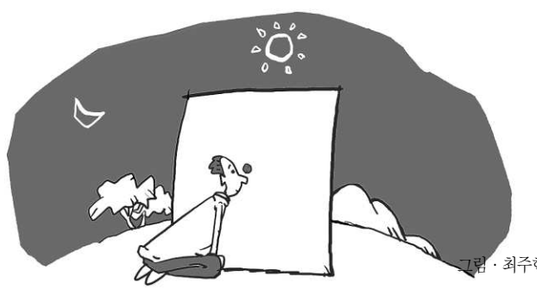
문 일설에선 창조론이 옳다고들 주장하고, 자연과학 계층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가 틀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그것이 다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창조냐 진화냐를 가지고 온통 난리들인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계할 때는 진화지만 집을 지으면 창조

답 지금 얘기로 하기 때문에 다르게 들리는 거지, 예전 얘기로 한다면 학술적, 그 경으로 볼 때 무슨 그…, 수로가 다르잖아요.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내 부(父)가 있어야 내가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주 짧게 눈 깜짝할 사이, 고런 사이에 붙어 있는 나의 부가, 즉 말하자면 불성이 바로 거기에 탁 결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 결부된 그거를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 결부돼서 아주 간접적으로 붙어 있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그저 손 하나 놀리는 거, 일거일동 자기 몸에서 움죽거리고 보고 하는 거를,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각자 보는 겁니다, 자길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상세히 내가 범적인 무한의 그 우주적인 문제, 소용돌이로 내가 들어가서 배우려면 반드시 거기에 인도하는 길잡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안에서. 반드시 안에 길잡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길잡이를 쫓아 들어가야 하고, 만약에 쫓아 들어갈 때에 배가 고프면 그 애비는 자식에게 밥을 먹인다고요. 밥을 먹이고 과자도 사 먹여 가면서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고게 여간 편안한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애비가 배고프면 주고, 또 다리 아프면 쉬게 해 주고 이러니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쫓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체험한 바를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말로 하지만 전자에 배운 사람들은, 그 학(學)이 많은 사람은 학으로다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 뒷면의 뜻을 알면 지금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진화론이라는 게 따로 없고 창조론이라는 게 따로 없고 나툼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입니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모여서 골인을 해 가지고 또 거기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자라는 과정을 지금 가만히 상세히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없다면, 기어다니는 버러지가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나비가 돼서 날겠어요? 아니, 그것을 왜 못 믿어요?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력입니다. 진화력으로서 창조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창조력으로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나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태어나서 나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무(無)에도 나투고 생시에 이 몸도 나투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나투고 있는 걸 보면 벌써 무에서도 나투고 있는 걸 알아야죠. 이것이 참, 못 믿는다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 해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어떻게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죽으로 설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게 창조예요. 설계를 할 때는 진화지만 집을 지어 놨을 때는 창조다 이겁니다.

근데 창조만 됐으면,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다 살 수 있는 집이 된다 이거예요. 고정적인 한 사람만 고 집에서 산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고대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변화돼서 사그러지고 헐어지고 썩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나툼이다 이겁니다, 전부.

그러니 이것이 우리말로 요렇게 해 놓으니깐 쉽죠. 그런데 그것을 이것 따로 보고 저것 따로 보고 이렇게 논의들을 자꾸 하는데, 길게 자꾸 펼쳐 놓지 말고 자꾸 축소해서 이렇게 봐라 이겁니다. 축소해서 보면 자기가 그대로 움죽거리는 것도, 움죽거리게 하는 것도 다 나툼이다 이겁니다. 벌써 이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나기 이전, 벌써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났다 이겁니다. 났기 때문에 나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부처 아니냐 이겁니다. 어째서 그대로 부처를 잘 못 믿느냔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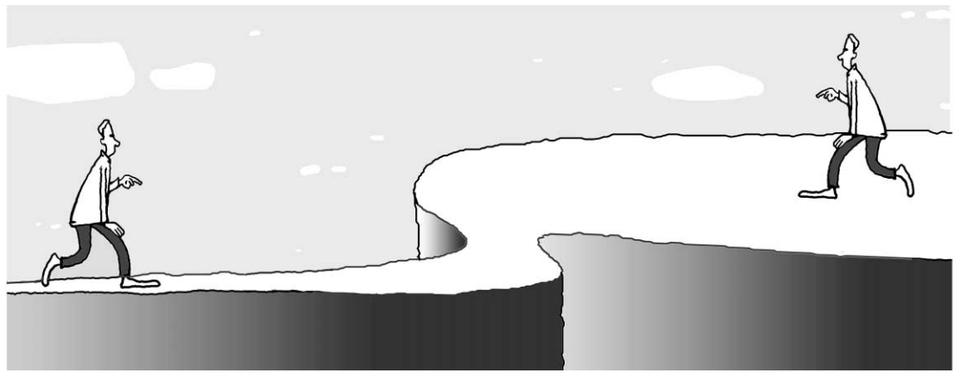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법은 자기 마음을 부처로 만들어

☞29면에서 계속

나 유력했겠습니까.

아주 급한 시기에는, 하다못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미추왕 같은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다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지마는 한생각을 냈다 하면 이건 법신입니다. 몸을 한 번 움죽거렸다, 한 번 앉았다가 한 번 딱 움죽거렸다 하면 벌써 이것은 화신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데에 바로 그 분수 보현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지금 과학적인 문제도 거론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근데 알고 보면 옛날보다도 아주 더 편리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한 점의 그 마음이 보배라면, 지혜만 거기 풍부하게 있다면 하는 소리는, 여러분이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으면 어른으로 성장하게끔 키우기 위해서 오래도록 애를 씁니다. 달마 대사는 면벽을 6년 동안이나 했고, 또 육조 선사는 십 몇 년을 보림을 했듯이, 애를 낳았다고 해서 어른을 만들지 않으면 어른 행세, 사람 행세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리를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한 점이 모든 것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들이고 내는 데서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이 또 그렇지 뭐 안 그럽니까. 여러분이 이날까지 마음으로 들이고 내면서 살아왔지 뭐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해 나왔습니까? 바른 대로 얘기죠. 그러면 일체 만법이 어디서 들이고 내고 살림들을 하십니까. 한군데서 바로 살림들을 하시죠. 거기다 지혜만 낀다면, 바깥에서 찾지 않고 바로 안으로 찾는다면,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그 점입니다. 그 한 점에서 나오는 한생각으로 급하면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지는데.' 한다든가, '우리 국민이 위태로워져.' 이런 다든가 또는 '아, 우리 가정이 위태로워지면 내가 위태로워지고, 또 내 몸이 위태해.'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항상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하다는 얘깁니다.

이 마음 성품은 바로 그 한 점의 원력으로, 누구나가 영원한 생명의 그 원점은 똑같지만 태양의 근본도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한 점의 근본이니까, 또는 천지의 근본도 한 점의 근본이요, 우주의 근본도 전체가 한 점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그걸로 하여금 환경에 따라서 가정이나 몸이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도 영향이 될 수 있게끔 자꾸 넓히면서 우리는 자꾸 실험을 해 봐 가면서 체험을 하면서 믿고 물러서지 않고 한군데서만이 들고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왜? 우리의 대문도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뒷문이 있고 앞문이 있다 할지라도 대문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그 대문을 통해서 온 장안에, 장안이라 하면 전체를 말합니다. 그 대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들고 나지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대문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도 우주의 전체가 바로 그 대문, 대문 없는 대문에 한 점이 있다는 걸 영 모릅니다. 자기 주장자에, 그 주장자가 바로 빗장이라는 걸 모릅니다. 어디고 통과가 된다는 거를 모릅니다. 어디고 통과가 되고 어디든 급하면 급한 대로 해결할 수 있고, 또는 그대로 맡겨 놓으면 맡겨 놓는 대로, 모르면 맡겨 놓는 대로 거기에서 벌써 무루에서 현재 자기의 그 차원에서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참 편리하게 사는 폭이죠. 그러기에 사람이 살 만하다는 겁니다.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족하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금강경의 오안에 대해서...

문 저는 현대불교의 '길을 묻는 이에게' 란을 통해 스님의 설법을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보면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 경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그러한 경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심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누진에 딸린 수하예요. 누진에 딸린 수하.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내 모습 통에서 벗어나야, 누진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누진이라는 건 뭐냐. 바로 지금 현재에 컴퓨터 같은 거예요. 입력되는 컴퓨터. 그래서 여러분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입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력되는 것이 온 우주의 전체에 다 퍼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다 음파를 통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는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전체가 알게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현실이고, 너무나 현실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죽어 가고 모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뒹굴고 그러는 거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사람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째서 한생각이 틀리다고 그래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되 이 육안으로 보는 거는 지금 물질세계만 보는 거지만 심안으로 봐라. 심안으로 본다면 정말 심안으로 또 들는다 이런 거죠. 그래 심안으로 들을 줄 안다면, 공부가 돼서 심안으로 들을 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면 바로 천안으로도 보게 되고 혜안으로도 보게 되고 법안으로도 보게 되고 불안으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전체 보게 되는 것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돼야만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자유스럽다는 얘기죠. 내 모습은 여기 두고도 내 모습 아닌 모습들이 수만, 이 허공에 꽉찰래도 찰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요지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공부를 안 하면 심안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만 보게 되는 거지 심안이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인제 심안이 열리게 되면 자꾸자꾸 순환을 거쳐서 혜안이 열린다. 또 순환이 되면 정말 법안이 열린다. 그 법안이 또 순환을 하다 보면 정말 불안으로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을 거치는 걸 점수라고 그러고 우리가 갓 상봉할 때가 바로 돈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둘로 하지 않는다면 둘로 보지 않는 것이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공생으로 되는 것이고 공생으로 되면 공심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혼자 봐도 혼자 보지 않고 서로 더불어 보는 거니깐요. 그렇게 해서 공심으로만 볼 수 있다면 불안이 되죠. 이 육안으로 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보는 거고 심안으로 보는 거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 그렇다 하지만 그 경지가 참 많아서 혜안 법안 불안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이 모두 여러분은 모르시고 올라가야 되죠. 모르시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알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알게 되고,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알게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내 마음 주인공 하나가 겨자씨라면 일체제불을 다, 일체제불도 각 처 각 급에 부처님 상이죠.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런 걸 다 이 가죽 속에다 넣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 쫓아다니면서 모시고 쫓아다니면서 받들고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일체 중

진짜 자기를 믿는다면 왜 안되겠습니까?

생들도 다 넣고, 둘이 아닌 까닭이에요. 우리가 몽땅, 이 세상에 모두 일체를 다 넣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한 주먹 쥐어다가 넣어도 쥔 사이도 없고 넣은 사이도 없다. 그러면서도 넣어졌다. 또 꺼내서 내 풀어 줘도 내 풀어 준 사이가 없이 풀어 줬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며 보살의 법도입니다. 공법 도리.

여러분이 그렇질 않아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부모님이 잘못 돌아가셨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총에 맞아 죽었다거나 6 · 25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 물에 빠져 죽었다든가 목을 매서 죽었다든가 이런 분들도 그냥 아무리 어렵게 살고 아무리 악하게 살고 잘못하고 살고 그래도 이것이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모든 거를 넣으면 그냥 바뀌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주 하기 쉬운 것도 하기 쉽지 않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안된다는 거죠. 진짜 자기를 믿는다면 왜 안되겠습니까? 자기 모습은 물질적인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인데, 불성인데 어째서 그걸 믿지 않고 믿을 생각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거를 알고 그렇게 믿으니깐 믿지 않아지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죠, 그게. 언제나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글로 한데 합쳐져야 견성인 거예요. 통신이 된 거구요. 이게 겹쳐지지 않는다면 통신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게 벌어져서 일을 한데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책만 보고 염불만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니고 경전만 보는 게 염불이 아니고, 항상 자기 생각이 투철해야 되죠.

그래서 잘 믿고 잘 하는 사람은 심안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배워서 정말이지 믿는다는 소리 없이 믿는 사람들은 법안으로 믿게 되고, 또 그 보다도 더 한 소리 없이, 내가 있다 없다 소리도 없고 남들이 있다 없다 소리도 없고 세상이 있다 없다 소리도 없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은 불안으로 해 나가고. 그러니깐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문 없는 대문에 한 점이 있다!

제6기 참나찾기
선 심리치료 명상호흡지도자 모집

◆선 심리치료 명상호흡아카데미 개설의 목적은?
현대인은 물질과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참나를 잊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도덕 불감증과 각종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심리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참선과 명상호흡, 정신분석, 선 심리학, 자연대체의학을 활용한 정신심리치유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참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전문가 양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최상의 정신심리 지유의 장을 열려는 불교적 노력을 담아서 '선 심리치료명상호흡아카데미'를 개설한다.

◆교과일정

과 정	요 일	시 간	기 간
양 성	목요일	저녁 7시 ~ 9시	4월 8일 ~ 6월 24일(3개월)
특 수	수시모집(15명 선착순, 3박 4일, 수련원)		

◆특 전
❶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가입 자격
❷ 선 심리치료상담 전화인 '마음의 전화' 개설시 자료 제공
❸ 참나 찾기 플관재 큰 모임(선 심리명상수련회)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상담명상수련 프로그램 18회 개최)

◆수강료
20만원(3개월분, 교재비 등 포함. 단, 통신은 3만원 추가됨)
우리은행 달마선원 019-258104-12-501
하나은행 달마선원 379-810048-78107

◆문의 및 수강신청
2004년 3월 20일 ~ 4월 1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단, 특수과정은 개별방문상담 요망)
TEL : 02)738-1275(심리치료), 02)312-8248 / 9(F)
H.P : 016-301-4080
※ 수강신청과 관계없이 선 심리치료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예약 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자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명상호흡아카데미


퇴미승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기찌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 소개

사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교재와 선생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면, 여러분도 빠른 시일내에 사주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는 사주학의 근본원리에서부터 고급 추명비결에 이르기까지 사주학의 핵심이론들을 확실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애매한 사주의 용신을 확실하게 잡을수 있는 비결수록
● 사주구조의 좋고 나쁨을 판별할 수있는 비결수록
● 대.세운을 원국에 대입해석하는 방법
● 기존의 사주학이 간과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각 주간의 작용력 관계를 살필수 있는〈일간 진입론〉공개
● 형충회합 및 공망을 확실하게 응용할 수 있는 비결수록
● 외격과 내격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
● 그외 새로이 연구 개발된 12지지 관계론 및 60갑자간의 특수관계론 공개

■ 저 자 : 오산 정 대 균(하건충 원저)
■ 책규격 : A4용지 620쪽 / 가격 : 220,000만원
■ 본서는 본 연구소 및 "교보문고"에서 판매함
■ 하기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우송
■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정 대균
■ 수강생도 수시 모집함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TEL : 02-831-0055(대표) / FAX : 02-831-0058

법안명상기공강좌

법안명상기공을 수련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진화됩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5시30분
● 초급 · 중급 · 상급 · 고급 각 3개월과정
● 명상 · 사범과정 각 1년
● 지도 : 보덕현호선사
● 수강료 : 3만원(월1만원)
● 개 강 : 4월 7일(水) 오후 4시
● 접 수 : 마포문화원 문화학교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0-2
● 전 화 : 02)312-1100
● 위 치 : 아현고가도로 마포쪽
아현중학 앞 지하보도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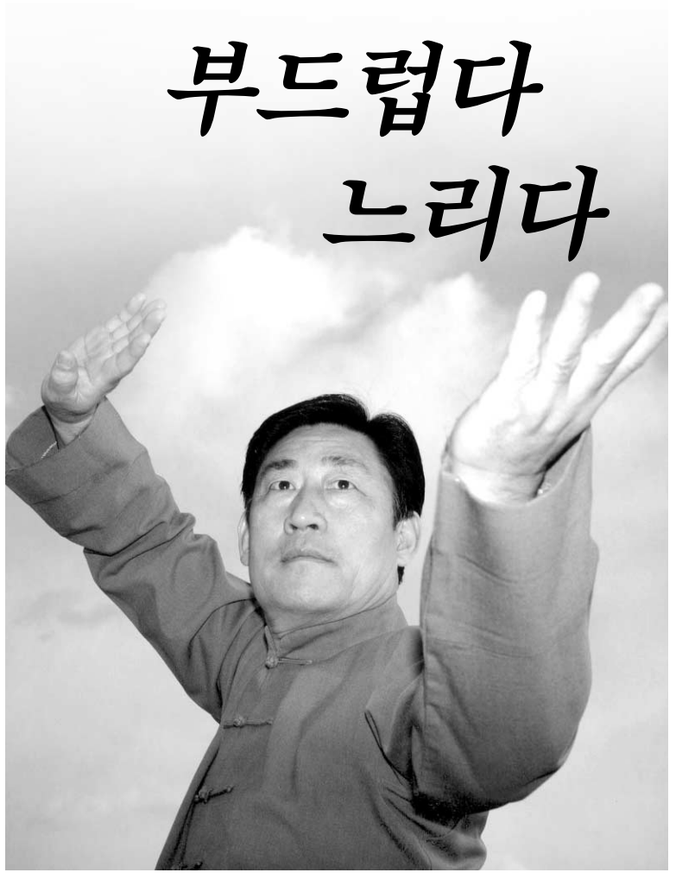
법안명상기공회





진소왕 노사

부드럽다 느리다



건강이 움직인다

태극권

태극권과 건강양생 심포지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즐기는 운동은 무엇일까? 정답은 우슈('무술'의 중국발음)다. 세계 100여 개국에서 최소 14억 명이 건강을 위해 우슈를 챙기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우슈는 바로 태극권. 태극사상과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중국의 전통무술 태극권은 부드러운 자세와 느린 동작을 이어가는 무술이다. 이는 타격기술 중심의 소림권 등과 달리 내공의 단련을 주목적으로 삼아, 심신 수련에 관심이 많은 웰빙족에게 인기가 높다.

이 같은 태극권이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돼 눈길을 끈다. 3월 15일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우슈연합회 등이 진가태극권 11대 장문인 진소왕 노사를 초청해 마련한 '태극권과 건강양생' 심포지엄은 지난 20여 년 간 진행된 '태극권의 건강양생적 효능' 관련 연구들을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이들 연구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태극권 4대 명인중 한 명인 진소왕 노사가 내한, 태극권 수련도장 '심신수련센터 밝은빛'에서 진가 태극권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제공=심신수련센터 밝은빛



▮심장기능 강화

미국 보스턴 소재 터프츠-뉴잉글랜드 메디컬센터의 연구팀이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태극권이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47건의 사례를 통해 연구했다. 그 결과 "심혈관 및 호흡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태극권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은 환자와 심장발작, 급성심근경색 등의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더 아카이브즈 오브 인터널 메디슨(The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최신호를 통해 밝혔다.

심혈관 심근경색에 효과 안정 흥미 건강 갖춘 운동

정밀영상진단클리닉 하트스캔 조현미 내과과장은 "태극권은 안전 · 흥미 · 효과의 3박자를 두루 갖춘 건강지킴법"이라며 "오랜 투병이 일상화된 심장질환자들에게 무리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근력 · 평형성 회복

카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김철민 교수는 2000년 <가정의학회>지를 통해 "태극권이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등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이는 태극권의 독특한 운동형식과 관계가 깊다. 태극권은 단순 직선운동을 표방하는 서양식 스트레칭과는 달리, 호흡조절을 병행하는 가운데 나선형 동작을 취하며 체중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직선이 아닌 나선형 동작 체중이동 인체 곳곳에 영향

꽃마을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김영신 한의사는 "태극권은 허리와 단전에서부터 사지의 끝에 이르기까지 내장, 근육, 관절 등을 순차적 또는 역순으로 회전하는 운동"이라며 "이 같은 나선형 운동형식은 근력과 평형성 회복뿐만 아니라 경락소통과 기혈운행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노년기 건강 증진

미국 케이스 웨스턴 대학의 패트리셔 애들러 박사는 "16가지 동작으로 구성된 태극권이 노인들의 만성 관절통을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2001년 간호학 전문지 <간호학>을 통해 밝혔다.

애들러 박사는 68~87세의 남녀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10주에 걸쳐 매일 한시간씩 태극권 운동을 하게 한 결과, 손상된 관절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태극권이 관절을 받쳐주는 연골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관절구조를 안정시킨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국 · 호주 등서 임상실험 관절 치료법으로 보급 확산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태극권 관절운동(Tai chi for Arthritis: 타이치) 또한 개발돼 화제다. 이는 호주의 중국인 의사 폴램 박사가 만든 것으로, 서울대 간호대 이은옥 교수 · 순천향대 간호대 송나윤 교수 등이 2000년부터 체계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보급하기 시작한 운동이다. 송나윤 교수는 "타이치는 100명이 넘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능을 확인한 치료법"이라며 "앞으로 보건소나 문화센터 등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⑫

부조화 다스리는 것, 3도샤 유지 하는 일

3도샤가 지나칠 때 감소시키는 방법들

피타 도샤는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선선한 날 꽃밭이나 강, 호수, 바닷가에 나와 경치를 즐기며 산책하도록 한다.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걷는 것도 좋다. 평상시 활동은 보통 정도의 적당한 운동, 걷기나 수영, 요가 등이 좋다. 감각 활동으로는 플룻이나 물 소리처럼 시원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좋으며, 시각적으로는 흰색이나 청색, 녹색과 같이 시원한 느낌을 주는 색깔과 자주 접하도록 한다. 음식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도록 한다. 단맛, 쓴맛, 떫은 맛을 충분히 섭취하되 심황뿐만, 고수 열매, 화향풀처럼 시원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양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쓰지 말 것을 권한다. 향기는 로즈나 백단향, 자스민, 치자 향같이 달면서도 시원한 향을 맡도록 한다. 오일 마사지로는 시원하고 부드러우며 온화한 느낌을 주는 코코넛, 해바라기씨 등이 좋다. 감정 활동은 분노나 미움, 갈등이나 원한 등을 삭이는 데 힘써야 한다. 친절, 예의, 용서, 우정, 헌신과 같은 정신을 함양하도록 노력한다. 비판 의식을 줄이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받아들이는 자세를 키울 것을 권한다. 명상시 쉬림(Shrim), 샴(Sham), 마(Ma) 같은 만트라가 도움을 준다.



피타-경치 즐기며 가벼운 산책 시원한색 접하며 비판의식 줄여야
바타-조용한 곳, 진한 향기 도움 포용력 가지고 대인관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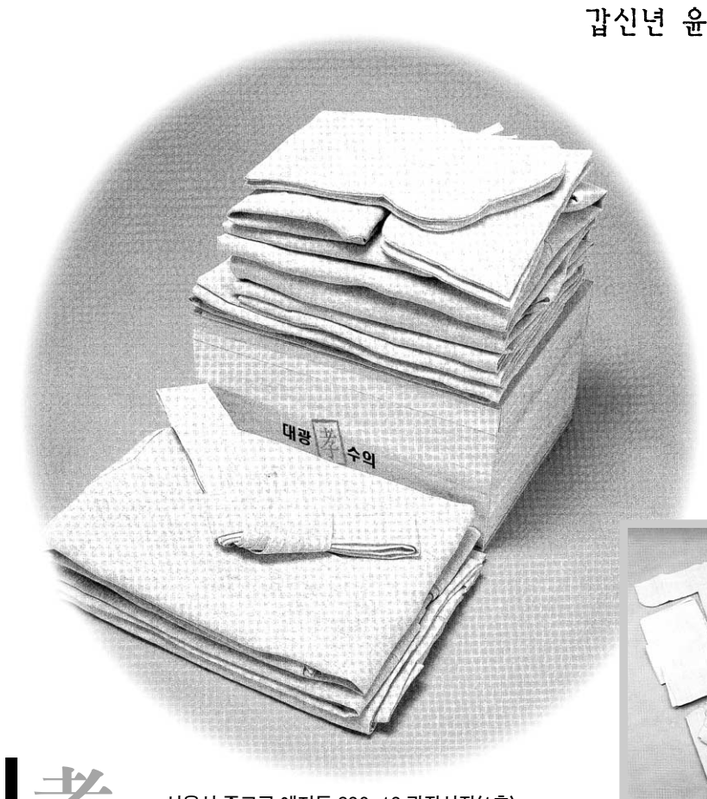
바타 도샤는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곳을 자주 찾을 것을 권한다. 밝고 아늑한 숲속이나 정원, 강이나 호수, 바닷가 산책이 좋다. 음악 역시 클래식이나 성악곡 등 부드럽고 잔잔한 것을 듣기 바란다. 색깔은 금색이나 오렌지 같은 밝고 화사한 색도 괜찮고 청색, 녹색, 흰색 같은 맑고 잔잔한 것도 무방하다. 단맛, 짠맛, 신맛이 많이 들어간 영양가 풍부한 음식에 적당한 양념을 가미하면 좋다. 자스민이나 로즈, 백단향, 유칼립투스 같은 달고 따스하며 진한 향기가 도움이 된다. 맛사지는 참기름이나 아몬드유 같은 부드럽고 따스한 것을 쓴다.

활동은 가볍고 부드러운 운동을 골라 하도록 한다. 하타 요가, 근육 이완, 태극권, 수영 등이 좋으며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을 권한다. 감정은 항상 일정하게 가지도록 노력한다. 되도록 근심 걱정을 줄여 평화스럽고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대인 관계를 유지해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명상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스런 정신을 유지하도록 한다. 바타를 줄이기 위해선 람(Ram), 쉬림(Shrim 혹은 Hrim) 같은 만트라를 외우며 정신 집중, 기억력 강화에 도움되는 사고를 하면 좋다.

이상에 걸쳐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3도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이 3도샤는 아유르베다 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3도샤는 우주 대자연의 질서에 따라 차례로 우리 몸 속에 찾아든다. 그리하여 부족하거나 지나칠 때 이상 신호를 보내온다. 신체의 부조화를 다스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는다는 건 한마디로 이 3도샤를 잘 다스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3도샤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음식물들을 섭취해야 하는지 다음회에 소상히 알아보겠다. ■ 포천 중문의대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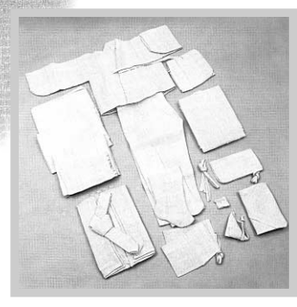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역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역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 1호	삼베100%	중 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3월 21~4월 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직의 수의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孝 대광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

인도그림기행 39 새날 위해 어둠에 가리워진 히말리아

그림·글 이호신



네팔 나가여니강(93×64cm).

흐르는 것이 어찌 강물뿐이랴

(나가여니강과 포카라 호수에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룸비니를 떠나 이제 히말리아로 떠나겠습니다."

오! 히말리아. 가이드 라젠싱의 한국 발음에 꽤 익숙해진 일행은 모두들 설렘속에 일렁이는 눈빛이 역력하다. 네팔의 수미산(須彌山). 히말리아의 아나푸르나. 그 산빛이 어느새 그리움으로 성큼 다가서는 것이다. 상기된 여정은 아침 일찍 마지막으로 스투파 하나를 더 찾은 다음 떠나기로 했다.

마야 부인의 친정인 콜리아족이 살았던 곳에 건립되었다는 라마그라마(Ramagrama) 스투파. 짙은 안개와 싸늘한 날씨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데 둘러보니 그새 어디서 몰려왔는지 아이들의 눈망울이 올망졸망하다. 무엇보다 라마그라마는 붓다 입멸 후 사리가 분배된 8개국중 한 곳에 세워진,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스투파로 지목되고 있다.

정비되지 않은 스투파의 이미지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두 거목의 뿌리가 스투파를 파고든 것에서 더욱 상징적이다. 또 나무에 걸쳐진 만국기는 룸비니동산의 추억으로 새록한데 스투파 주변을 도는 순례객의 정경이 살아 숨쉬는 그림이다.

이제부터는 종일 차를 타고 해질녘까지 포카라(Pokhara)에 당도하는 여정인데 군데군데 쉬면서 지나온 순례의 의미와 성과를 각자 돌이켜 볼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나그네는 여전히 새로운 만남에 눈길과 느낌이 살아오른다. 거리의 풍경 중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단연 영화 포스터인데 마치 거대한 대자보 같다. 가난한 마을에까지 벽보를 대신하는 컬러 포스터는 하나같이 전쟁과 사랑의

포카라행 길목에 마주친 나가여니강
금싸라기 모래와 청록빛으로 눈부셔
호수에 비친 산, 한폭의 수묵화 연상

메시지여서 사내 주인공은 용맹스럽고, 여배우는 비련의 여인상으로 물씬 배어있다.

길은 산길에서 강을 내려다보며 달려나가는데 히말리아 포카라행 길목의 나가여니강이다. 강은 산을 가르지 않고 산의 성장을 도와주는 젖줄이다. 아니 산이 흘린 눈물을 모두 받아주고 대지를 적시는 어머니의 품성이다.

유유히 그 강을 따라 나그네도 흐른다. 안개 걷힌 청명한 오전, 산길은 쏟아지는 숲 사이의 햇살로 투명하다 못해 눈부시다. 산과 다랑이 밭 아래로 에돌아 가는 청록빛 강물은 햇살의 파장으로 때아닌 은하수가 되어 출렁인다.

그 순간 불현듯 한국의 동강(東江)이 떠올랐다. 수년간 발품을 팔며 동강을 걷고 걷던 일. 그 걸음이 '동강 12경과 전도(全圖)'로 까지 이어졌던 일이 전생의 일처럼 스쳐간다. 누가 그랬다. 기억의 모두는 전생이요, 자각하는 현실까지가 역사라고.

"아무리 일정이 빠듯해도 그렇지, 저 강물을 두고 어찌 그냥 지나친단 말입니까." 나의 다그치는 호소에 "예, 그렇지 않아도 강변 어디쯤에서 도시락을 풀 예정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내 부족한 인내는 마침내 일행들이 따사로운 햇살아래 강을 바라보며 따끈한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푸는 새 서둘러 강변으로 달려갔다.

백사장의 모래는 그야말로 금싸라기. 온갖 보석이 부서져 강가에 지천으로 깔린 듯, 손가락사이로 빠져 흐르는 감촉과 빛깔은 무엇으로도 형용키 어려운 체감의 극치로 잠겨왔다.

나는 어느새 한줌의 모래를 검은 필름통에다 담고 있었고 전생의 기억처럼 한국에 와 붓을 든 오늘, 그 통을 열어 추억의 무늬가 박힌 보석을 새삼스레 바라보고 있음에랴.

나는 그 날 아이가 되어 마음속으로 불렀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마치 추억처럼 몰려든 아이들은 하나같이 내 어린 유년의 벗들, 그 얼굴을 꼭 빼닮았고, 황토벽에 초가지붕을 한 집은 흡사 예전의 한국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다.

차는 갈 수록 솟아오르고 산길이 깊어지자 강물은 어느새 숨어버린다. 휴식을 위해 소담한 마을에 내려 둘러보니 이곳에서도 몽골리안의 생태는 끈끈한 이웃의 모습으로 모두 정답다. 낯설어 하지 않음은 그들도 마찬가지. 이마의 붉은 점과 현란한 옷을 빼고는 우리 산골의 얼굴과 그야말로 닮은 꼴이다.

손녀를 품에 안고 머리 손질을 하는 할머니. 아궁이에 걸쳐진 무쇠솥. 둥근채에 쌀가루를 손으로 이기는 아낙. 다만 물동이 대신 이마에 두른 지게끈으로 짐을 지고 가는 여인들이 낯선 풍경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옛 점방같은 곳에서 간식을 사던 일행들이 사진찍기에 열중하니 젊은 여인이 아주 부끄러운 얼굴로 일행을 응시하고 있다.

멀드가뜨 마을의 원더나(20세)는 마치 우리 누이동생처럼 친근한 얼굴인데 해맑고 수줍은 미소에다 우수 어린 눈빛에 반해 일행들이 포즈를 취하는데 의외로 여성이다. 나 역시 궁금하여 통역을 청하니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아직 없는 신혼 여성이란다.

예정대로 차는 큰 차질없이 땅거미가 짙어지는 시간 포카라에 당도했다. 어둠이 깔리는 포카라 호수는 흘러내린 강물의 원천수처럼 넓고 검푸르게 대지를 물들이는데 집시 마냥 작은 현악기를 퉁겨대는 행상들이 달려든다. 한편 어둠속 호수는 근경의 산빛이 겹겹 수묵화가 되어 가물거리고 작은 배들의 파릿불은 길손의 방랑끼를 더욱 고조시킨다.

마침내 돌아보는 하늘 아래엔 어둠에 휩싸인 히말리아. 어쩌면 히말리아의 새날을 열기 위해 오늘 하루의 커튼이 지금 막 내려졌을 것이란 생각으로 안도하고 내일을 희망한다.

적막한 호수를 바라보며 떠올리는 시간, 나가여니강을 거슬러온 여정이 어찌 강물의 시간뿐이랴. 그 동안 순례의 지남(指南)속에 이끌린 감동과 감회. 그 사연의 얼개들이 강물에 풀리듯 내 영혼속으로 흐르고 있음을….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